

윤청광 작가
"가난하게 산다고
無所有가 아니다"
8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7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61호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청정 국토 지키기 불교계 '앞장'

원전 · 케이블카 정책에 조계종 등 반대 목소리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소부터 산악 케이블카 사업까지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정 국토를 지키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와 영덕 덕흥사(주지 성엄) 등은 8월 31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 원불교 영덕 교당도 함께 했다.

현재는 영덕은 원전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영덕군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원전 건설에 지역주민들은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 12일 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6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11일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9월 9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53%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천연 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영덕에 원전이 건립돼 훼손될까 우려가 크다"며 "영덕이 핵의 위험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위원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영덕 덕흥사 등은 8월 31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민족 靈山 설악 지켜내야"
영덕 원전 놓고 지역 갈등
불교 "주민 투표 수용하라"
지역 난개발… 전국이 몸살

덕흥사 주지 성엄 스님도 "핵 관련 사업은 사양사업이며, 공멸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면서 "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청정 영덕을 위해 지역 불교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 전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영덕 군민이 요구하는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영덕군수에게 기자회견을 전달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불교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8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안에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는 국립공원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지는 못할지언정 되레 정부가 나서 파괴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향후 명산 도처에 케이블카 설치가 유행 될 것이고, 그 후유증은 국토는 물론 국민의 의식과 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토환경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족의 영산인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연구소는 "불교계 각 단체에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는 일에 모두 함께 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8월 24일 성명서와 대정부 건의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철회와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대책 폐지를 주장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는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명산과 명찰 등이 포함돼 있는 우리 민족의 정기가 이어져 온 성지"라면서 "단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강을 파헤치고, 산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부실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랑의 독서카페' 서 자비심 키워요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과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3일 군장병의 인성함양을 위해 최전방 GOP소초 5곳에 사랑의독서 카페를 개설했다. 병영 독서문화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랑의독서 카페는 을지부대, 칠성부대, 승리부대, 백두산부대, 율곡부대 등에 마련됐다. 기증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3군단장 나상웅 중장, 을지부대 사단장 조종설 소장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성보박물관 연합체 탄생

8월 31일 '성보박물관협회' 출범… 31곳 참여

불교중앙박물관장이 회장
문화재 체계적 보존 기대

조계종이 성보 관리기관인 성보박물관의 연합체를 구성했다. 사찰 내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기대된다.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는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을 선출했다.

창립총회에는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과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본명 스님 등 40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확정된 회칙에 따르면 성보박물관협회는 종법에 의한 성보박물관을 정회원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불교 관련 박물관 및 미술관을 준회원하여 구성된다. 전국 35개 성보박물관이 회원으로 등록된다.

협회 회장으로는 불교중앙박물관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중앙박물관장 임기와 동일하다. 산하 운영위원회는 성보박물관장 중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창립법회에서는 운영위원 후보로 월정사 성보박물관장 원행 스님과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지경 스님, 은해사 성보박물관장 돈명 스님 등이 추천됐으며 당사자와의 조율 후 명단이 최종 발표된다.

한편, 성보박물관협회는 그동안 성보박물관간 교류 및 직원 전문화 교육 등의 사업 진행에 의해 그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특히 2015년 문화재청의 문화재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사업을 앞두고 박물관 간의 조율 움직임과 운영관리 체계화로 협회 창설이 가시화돼 왔다.

초대회장 화범 스님은 "향후 중앙과 각 사찰의 성보박물관 간 교류를 통해 역량을 배양하고 성보 전시와 전문인력 양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치적 징계자' 사면 위한 공청회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 오는 10월 16일 개최

종헌종법 소위, 9월 1일 결정
종단분규史 · 대상자 현황 논의
전문 발제자 폭넓게 섭외 예정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이후 정치적 이유로 멸빈된 스님들을 사면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종헌종법 소위)는 9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정치적 징계자 사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일정과 논의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종헌종법 소위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청회 명칭은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칭)'로 정했으며 종단 원로의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참가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청회는 △통합종단 이후 종단 분규의 역사 △종단분규에 따른 징계자 현황과 사면의 필요성 △사면 방법에 대한 논의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발제자와 토론자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와 분규 경험 스님들을 참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 사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종헌종법 특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종헌종법 소위는 2회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징계자 사면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늦어도 내년 3월 임시종회까지는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법 제정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승려법에 포함된 징계 조항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수긍할 수 있는 징계 양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주된 이유이다.

이에 대해 만당 스님은 "승려법은 스님들의 자격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야 하지만 징계 내용까지 포함돼 혼란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징계 규정은 징계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 山寺, 동아시아서도 독특한 양식"

세계유산등재추진위 4일 제2차 학술회의 개최

"한국 산사의 특징은 중국과 일본과는 성격이 다른 개방형 구조를 띄고 있다. 자연동화된 건물배치에서도 다른 불교국가 사찰과는 다른 양식을 지닌다"

한국의 전통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초작업 중 하나인 전통산사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의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9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종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한국 산사의 자연입지 특성' 발표를 통해 한중일 삼국 사찰을 비교하고 한국사찰의 특징을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산사는 산속의 또다른 생명체"라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찾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술회의에서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의 '한국 산지가람의 형성과 전개' 발표와 통도사 · 법주사 · 봉정암 · 선암사 · 부석사 등 등재후보 사찰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사찰은 총 7곳으로 추진위는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를 거쳐 2018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2015년 제30회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0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이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1일차 9월 9일 특별 법문 보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2일차 9월 10일 특별 법문 반산스님 쌍계사 승가대학장


●14일차 9월 22일 특별 법문 자광스님 대구 관오사 불교사회복지회주


●16일차 9월 24일 특별 법문 동봉스님 경기 광주 우리절 주지

◆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9월 9일(水)	보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10일차	9월 18일(金)	정원스님	남양주 봉선사능엄학림학장
2일차	9월 10일(木)	반산스님	쌍계사 승가대학장	11일차	9월 19일(土)	관일스님	경산 석산사 조실
3일차	9월 11일(金)	일우스님	대구 성관음사 주지	12일차	9월 20일(日)	대주스님	부천 대륜사 주지
4일차	9월 12일(土)	혜광스님	대전 법화사 주지	13일차	9월 21일(月)	일장스님	화순 유마승가대학장
5일차	9월 13일(日)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14일차	9월 22일(火)	자광스님	대구 관오사불교사회복지회주
6일차	9월 14일(月)	덕문스님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15일차	9월 23일(水)	혜조스님	남산토굴 정진중
7일차	9월 15일(火)	주경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16일차	9월 24일(木)	동봉스님	경기 광주 우리절 주지
8일차	9월 16일(水)	노휴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17일차	~21일차(9월 25~29일)		추석연휴
9일차	9월 17일(木)	현각스님	원주 성불원장장	22일차	9월 30일(火)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백고좌법회 49재 영가접수 받습니다.

◆ 일시 : 2015년 9월 9일 ~ 12월 17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T. (053)766-3747 F. (053)767-6095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가창 부처님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가창 부처님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가창농원 맞은편
(구)청용식당
전화. 766-2747

동 참 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문 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봉선사 차기 주지 일관 스님
선운사 종회의원 재안 스님

산중총회 · 보궐선거 3일 잇달아 열려


일관 스님


법인 스님


재안 스님

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 차기 주지에 일관 스님(불암사 주지)이 선출됐다. 일관 스님은 봉선사 문중들의 합의를 거쳐 단독입후보해 일찌감치 선출을 확정지었다.

봉선사는 9월 3일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일관 스님은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을 은사로 출가, 1979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8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흥사 중앙종회의원에는 단독 입후보한 법인 스님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9월 3일 열린 조계종 16대 중앙종회 보궐선거 결과 선운사 종회의원에 재안 스님(개암사 주지)이 당선됐다. 선운사 종회의원 선거에는 재안 스님이 63표, 도완 스님 47표, 무효 2표로 재안 스님이 당선됐다. **신성민 기자**

용주사 주지 신상 논란
문도간 충돌로 확대돼

전강문도회 총회, 용주사 경내 폐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신상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결국 문도 간 물리 충돌로 이어졌다.

전강문도회는 8월 31일 용주사 관음전에서 현 주지 성월 스님의 신상을 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용주사 측은 '개최 불가' 의 입장을 고수했다.

대치가 이어지자 문도회장 정호 스님은 임시총회 보류 입장을 밝히고 개최 막은 용주사 측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비대위 측 스님과 신도들은 용주사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용주사 사중 스님들은 이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용주사 일주문의 나무 차단문은 부서졌으며, 용주사 사중 스님인 원각 스님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결국 비대위 측 스님과 신도, 용주사 사중 간의 대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3시간 여 만에 풀렸다. 비대위 측 스님들은 향후에도 현 주지 범계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현 주지의 사퇴를 촉구키로 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참사람 열린교육' 추진

8월 31일 전체교수회의서 '비전2020' 발표

참사람 열린교육을 위한 동국대(총장 보광 스님)의 'VISION 2020' 이 발표됐다.

동국대는 8월 31일 장충동 앰버서더호텔에서 진행된 2015-2학기 전체교수회의에서 새로운 비전 'VISION 2020' 을 선보였다.

동국대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 가속화, 무한경쟁에 따른 대학 본질의 왜곡, 재정 위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 왔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취임식에서 약속한 대로, 학교발전을 위한 현안을 해결하고 임기 4년 동안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실천하고자 'VISION 2020' 을 수립했다"며 "동국가족들의 희망과 의지가 담긴 'VISION 2020' 을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동국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VISION 2020' 은 '시대정신과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중심대학' 을 비전으로 △재정확충과 건실한 운영 △참사람 열린교육, 글로벌 연구자 양성 △대학 본연의 가치창출 △신바람 나는 캠퍼스 구축 △병원경영 효율화 등 5대 전략을 내세웠다. 5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연구, 경영 · 재정, 시설 · 인프라, 의료원 등의 분야별 발전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5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국대는 평생교육 확대, 지식재산권 사업화, 학교기업 수익 확대 등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에 나선다.

인성 · 인권교육 강화 골자
매년 300억 발전기금 확보
의료원 3원 체제 효율 운영
사이버대학 개설 · 전국교육
"구성원 신바람 나게 할 것"

또한, 매년 300억 원의 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서울 · 경주 · 의료원 등 3원 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참사람 열린교육과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학제 간 융복합 교육의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이버대학 설립이다. 동국대는 그동안 불교관련 공부의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전국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연구자 양성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사연구원, Post Master 제도 등도 시행한다.

또 동국대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학문화 조성을 통해 대학 본연의 가치 창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선택 ·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신바람 나는 캠퍼스 구축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연구년 신청 및 대학원생 지도자격 제한 등 네거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명예직원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국대는 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의생명 융복합 활성화,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나눔 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의료봉사 등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동국대는 기업에서 탐낼 정도로 명품 인재를 기르는데 노력하겠다"며 "동국대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강남에 세계 최대 약사여래불 나투다

능인선원, 9월 13일
'서울대불' 점안 법회

개원 30주년 맞아 조성돼
18m 규모… 2년 만에 완성


총 18m규모의 최대 약사불인 '서울대불' 은 오는 9월 13일 점안 법회를 통해 대중에 공개된다.

국내 대표 포교도량 능인선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세계최대의 약사여래대불 '서울대불' 을 점안한다.

능인선원(선원장 지광)은 9월 13일 10시 30분 30주년 개원기념법회에서 세계최대의 약사여래대불을 모시는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 약사여래대불은 신도협의를 통해 '서울대불' 로 명명됐다.

서울대불은 18미터의 8층 건물 높이 규모로 지난 2013년 3월 29일 능인선원 내 대불광장에서 불사의 첫 삽을 떴다.

법회에서는 능인선원 연혁소개와 함께 30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월주 스님의 격려사, 자비의쌀 108포대 기증식, 특별공로상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점안법회 이후에는 '화합과 새로운 도약' 을 주제로 방송인 김학도 씨의 사회하에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선원장 지광 스님은 점안법회에 앞서 "우리는 현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번뇌가 많아져 그 수명을 자초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넘실대고 있다"며 "서울 강남구의 주민들은 겉보기에 좋아보일지 모르나 30년간 바라 본 결과 어느 곳보다 몸과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목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광 스님은 "많은 고뇌 끝에 '서울약사대불' 을 구룡산 밑에 모시기로 16년 전 결의했다. 서울은 한국의 중심임에도 이렇다 할 약사여래기도 도량을 찾을 수 없었다"며 "역사여래의 가피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중국에는 세계최대의 입불인 노산대불, 화산대불 등 엄청난 규모의 대불들이 곳곳에 모셔져 있으며 일본에도 가마쿠라니, 도다이지 대불 등이 있다. 한국에는 이러한 대불이 몇 없는 이유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신도들의 용단으로 꾸준히 준비해왔다. 동참해준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02)577-5800 **노덕현 기자**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열기 'HOT'

조계종 교육원 주최 9월 15일 예선 · 10월 14일 본선

개인 · 단체 총 166명 참가
영상 · 음악 활용한 자유 발표
스님들 어학 능력 계발 기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개최하는 '제1회 학인외국어스피치대회' 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참가 신청을 마무리한 결과 개인 45명, 단체 13개 팀 등 총 166명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한 이번 외국어 스피치 대회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스님들의 국제 자질 향상과 세계문화를 읽고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예선에서 학인스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외국어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개인 참가자 중 영어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어 7명, 일본어 8명이 참가한다. 단체는 영어 12팀과 중국어 1팀이 참가한다. 여기에 러시아, 일본출신 외국인스님 3명도 특별 참가자 자격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주제는 선(禪), 불교교리와 사상, 불교문화, 사찰의 생활 등으로 PPT · 관련사진 · 음악 ·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 이들 중 개인 9명과 단체 5팀만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진출자는 외국어 내용 전달, 발음 등의 표현능력과 불교적 내용성, 창의성, 태도, 대중호응도 등을 고려해 당일 심사 후 발표한다. 심사위원은 각각 언어 능력이 출중한 스님과 재가자, 원어민 상당의 실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명예심사위원을 맡는다.

본선은 예선과 같은 장소에서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대상인 총무원장상 개인 1명과 단체부 1팀에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인 교육원장상 개인 2명과 단체부 1팀에 150만원의 상금을, 우수상 개인 2명과 단체부 2팀에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예산 참가자 전원에게도 장려상이 수여된다.

교육원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발맞춰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교육을 시행해왔다" 면서 "이번 대회를 학인스님들의 어학 학습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 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종교문화축제 올해는 괴산서 만나요

9월 19일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종교존' 마련

첫 지역 개최 "지역종교 화합 도모"
18~22일 사찰음식홍보행사도 마련

매년 서울서 개최된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가 올해는 충북 괴산을 찾아간다. 9월 18일 개막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함께 열려 지역 종교와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는 9월 19일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서 '제19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 슬로건은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의 씨앗' 으로 종교적 생명 사상과 유기농엑스포의 취지를 접목시킨 의미다.

종교문화축제 운영위원장을 맡은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9월 2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종교가 생명 · 환경 사상을 중시하다보니 괴산유기농엑스포 측에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면서 "지역 종교와 화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올해는 지역에서 개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종교문화축제는 엑스포행사장 내 종교존에서 행복의 장, 화합의 장, 생명콘서트 등 펼쳐진다. 오전 9시 시작되는 '행복의 장' 에선 △바람개비 만들기 △압화 부채 만들기 △토피어리 화분 만들기 △마법의 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화합의 장' 에선 7대종교별 △종교 문화체험 △공연프로그램 등 실시된다. 종교문화체험서 불교는 사찰음식맛보기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괴산유기농엑스포 기간 중 '사찰음식 홍보행사' 가 별도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참가자들은 사찰음식 요리, 맛보기 등 체험하고 사찰음식 주먹밥(곰취장아찌 쌈밥외 4종)과 전통차 · 웰빙효소 등 시식할 수 있다. 또한 사찰음식전시관서는 사찰음식 웹툰, 모션게임, 닥종이인형 등도 관람할 수 있다. 괴산 개심사와 협력한 사찰음식 홍보행사는 9월 18일~22일 5일간 실시된다.

한편 대한민국종교축제는 1990년 음악제와 미술제로 처음 시작됐으며, 1997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종교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 **박아름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1059호 16 · 17면 '만남 그리고 향기' 기사 중 '甘忍待' 를 '堪忍待' 로 바로잡습니다.

(사)한국불교미륵종 종도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2월 4일 본 종단에서 제적되었던 영빈스님(정병복)이 대표로 청구하였던 본 종단 총무원장권한대행 임명무효확인청구소송이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2015년 7월30일자로 기각(원고 패)되어 그동안 일부 스님들의 억지주장들이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재차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미륵종단의 올바른 수행종풍 확립과 새 역사 창조에 종도스님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5년 9월 1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합장

판결문 요약

사 건 2015가합30886 총무원장권한대행자임명무효확인
원 고 정병복(영빈스님)
피 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외 1

주 문

(1) 원고의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본안 판단

가. 종헌상 총무원장 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임 총무원장이 사임한 후 후임자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 총무원장이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 까지 종전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영빈스님)는 종헌 규정의 총무원장 유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었으므로 권형순(묘각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유고라 함은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바, 위와 같이 전임 총무원장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임의 경우까지 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권형순(묘각스님)의 총무원장 권한대행자 선출의 위법여부

고(영빈스님)는 권형순(묘각스님)의 권한대행자 선출에 있어 종헌상 총무원장을 임명할 때 필요한 중앙종의회의 선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 종헌 제34조에서 "본종의 발전을 위하여 전 종도의 지구대의원으로 중앙종의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중앙종의회를 주의적 피고의 기구로 두고 있기는 하나, 종헌에 총무원장 임명에 있어 종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종헌 제38조에서 중앙종의회의 권한으로"중앙부서장의 선출 인준 및 불신임 청구권" 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종헌 제31조 제1,2항, 제50조 제1항, 제55조에서 원로원장, 감사원 정부원장, 중앙교육부 정부장 선출 시에는 중앙종의회 인준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총무원장 선출 시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헌 제38조 제3항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주의적 피고가 중앙종의회의 동의 없이 권형순(묘각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한 것이 종헌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권형순(묘각스님)이 법인이사회에서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출된 것은 종헌 제44조, 45조에 규정된 총무원장의 임명절차 및 전임 총무원장의 궐위로 인하여 선출된 총무원장의 임기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법심사의 한계

설령 총무원장 선임에 종회의 선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총무원장 선임 문제를 심의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무원장 선임을 법인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결의한 것은 총무원장을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종헌 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중앙종의회가 의원들의 사임으로 사실상 해산되어 중앙종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원고(영빈스님)도 중앙종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권형순(묘각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한 데에 중앙종의회의 동의를 받지않은 것을 두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거나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임명을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비법인 사단인 한국불교미륵종이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주의적 피고인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으로 변경되었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은 종전의 비법인사단과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과 분리된 별도의 예비적 피고의 실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총무원 (☎ 055-338-3678, 010-4940-8979)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 고

(사)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의회
의원 및 중앙간부 임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무원장	묘각스님	중앙종의회 의 장	보성스님
총무부원장	혜륜스님	부의장	성진스님
교육부장	도일스님	부의장	혜성스님
종무실장	진일스님	의 원	법일스님
		의 원	혜연스님
		의 원	민예스님
		의 원	진일스님

2015년 9월 1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합장

진관사 출토 유물, 불교계 품으로

9월 1일 관련 유물 280점 불교중앙박물관 이운



진관사에서 출토된 금동불입상과 토제 나발. 2013년 국가로 귀속됐다 2년만에 불교계로 돌아왔다.

2013년 문화재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서울시에 귀속됐던 진관사 출토 유물 280점이 불교계로 돌아왔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문화재청 소유권 판정위원회의에서 해당 유물의 역사적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고 결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찰 출토 문화재 소유권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는 9월 1일 서울시역사박물관에 귀속됐던 진관사 출토 유물 280점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했다. 진관사 출토 유물이 2013년 서울시역사박물관에 귀속된 지 2년여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진관사 출토 유물이 불교계로 돌아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진관사는 서울시역사박물관을 발굴기관으로 2010년부터 발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암수막새 51점, 기와류 121점, 자기류 84점, 금동불입상 2점과 잡상, 비석편, 용두 등 14점을 포함해 280점의 유물이 세상으로 나왔다.

출토된 유물은 문헌에서만 확인됐던 진관사 국행 수륙재의 역사적 근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는 2013년 11월 19일과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진관사 인근 발굴유물 소유권 판정 심의'를 진행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이에 불교계는 반발했고, 사찰 매장 문화재

국행 수륙재 역사적 근거 보여줘

"사찰 매장문화재 소유권 논란에 전환점을 마련한 중요한 사례"

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진관사 역시 소명자료를 통해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결국 진관사 출토유물은 7월 31일 문화재청 소유권 판정위원회를 거쳐 소유권 판정이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8월 13일 문화재청의 진관사 소유권 판정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유물 환수는 월정사와 회암사의 출토유물 소유권 결정 사례와 같이 사찰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진관사 출토유물 소유권 판정은 사찰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이며, 천년고찰 진관사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종단은 진관사와 함께 출토유물 280점과 국행수륙재가 잘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진관사 출토 유물 이운을 발판삼아 1700년을 함께해온 한국 전통사찰에 대한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보존, 사지의 복원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실관리·불법유출 문화재 환수 나선다

'불교문화재 제자리찾기' 창립… 김시습 사리 등 환수 추진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불법 유출된 불교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수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다양한 NGO활동을 통해 자비행을 펼치는 영담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9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불교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단체인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이미 문화재환수운동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혜문 스님을 비롯해 각원, 능원, 도응, 부명, 원오, 이암, 종호 스님과 법률 전문가로 양희석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문화재 환수 불사의 첫 시작으로 △동아대학교에 소장된 수종사 불상을 본래의 자리인 수종사로 봉안하고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된 매월당 김시습의 사리를 원래의 봉안처인 부여 무량사로 돌려놓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동

영담·혜문 스님 주축으로 구성

유실 목록 작성·세미나 등 계획

아대 소장 불상은 연구를 통해 수종사 불상이란 것이 밝혀졌다.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면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며 "동시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수종사 불상(6점)도 도난품으로 회수된 문화재이므로 반환 운동이 진행되면 자연스



동아대에 소장된 수종사 불상(사진 왼쪽)과 국립부여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김시습 사리(사진 오른쪽). 부실관리 및 불법 반출 불교문화재에 환수를 위해 창립한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이들 문화재 환수 운동을 추진한다.

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해외 유실 불교문화재 목록 작성 △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 발간 △주요 불교문화재가 유실된 국가에 방문해 불교문화재 환수 요구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4대강 사업 그 후 "잊지 말아주오"

불시넷, 2일 내성천 등 훼손모습 주제 세미나

지율스님 '낙동강 7년 기록' 발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장기간 투쟁해 온 지율 스님이 수년 간 직접 찍은 사진 자료 등 토대로 내성천(영주시 중앙부를 관류하는 낙동강 지류) 살리기에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

지원, 이하 불시넷)는 9월 2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불교대학 2층서 '기록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는 지율 스님, 박은선 공간모래 큐레이터, 리나콜레이라이트씨 등 나섰다.

지율 스님은 낙동강 일대 같은 장소서 5~7년 전 찍은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며 4대강개발로 인한 자연변모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댐과 보 설치로 강 수면이 높아지자 주변 농경지 및 둔치 침수가 발생해 농민 피해, 나무 고사로 인한 수질악화 등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강 본류가 깊어지면 지천이 깊어지고 소하천도 영향을 받아 지하수 체제가 크게 변한다"며 "강 인근 마을 주민들이 논에 물을 계속대도 물이 받아지지 않고 밭은 말라간다고 걱정하고 있다. 작은 샘들도 전부 말라 나비, 잠자리 등 유충도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아름 기자

국회도 '답게살자' 자성 운동 릴레이 동참

정각회 등 9월 1일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

정기국회가 열리는 첫 날 아침, 국회의원들이 모여 정치인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각회·국회조찬기도회·가톨릭신도의원회·원정회 등 국회종교모임과 '답게살겠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9월 1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국회의원 답게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 국회부의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해 사회부장 정문 스님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자승, KCRP)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여론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제도적 결함 혹은 상대 정당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는가 반성한다"며 답게살자운동을 계기로 이날 개회하는 정기국회서부터 새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서원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사회 갈등을 조정해 상생, 상화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것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충직한 봉사자가 될 것 △국익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정치인이 될 것 등 결의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독해 축하를 전한 정문 스님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성찰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답게 살기'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은 '인간답게, 종교인답게, 사회인답게' 공공에 이바지하겠다는 자기쇄신 각오를 담아 KCRP가 추진 중인 범국민적 자성운동이다.

박아름 기자



정각회·국회조찬기도회·가톨릭신도의원회·원정회 등 국회종교모임과 '답게살겠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9월 1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국회의원 답게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 500일, 함께 한 불교계 '발자취'

조계종 긴급재난봉사대, '세월호지원활동보고서' 발간

8월 28일 기점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500일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 후 진도 팽목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그 중심엔 불교계 지원활동이 있었다. 조계종은 사건 직후 조계종복지재단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진도 팽목항에 파견, 구조지원활동본부를 구성해 실종자 수색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220여 일 간 지원활동을 이어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긴급재난구호봉사대 구조지원활동본부(본부장 법일, 이하 구조지원본부)는 이 기간 활동 과정 및 평가를 담은 '세월호참사현장 불교계 지원활동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원활동 개요와 경과, 평가 및 문제점 등이 수록됐다.

구조지원본부는 평가 항목에서 △'현장-지역-중앙'의 유기적 지원체계 △최장기간 활동, 야간 부스 운영 등 안정적 지원 △상담, 릴레이기도 등 정서지원 등 관련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구조지원본부는 "신속한 초기 대응, 최장기 대규모 활동, 중앙과 지역 협력 등은 외부적으로도 구호활동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이번 활동에서 선교·포교적 성향을 배제하고 정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유가족 및 일반인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구조지원본부는 문제점으로 교구본사 참여 저조, 안거결제 후 참여동력 저하, 스님들 공양 문제, 안산 지역 활동 미비, 종단차원 장기적 대응계획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하안거가 시작되며 릴레이기도 등서 스님들의 동참이 줄어들었고, 종단에서 사전에 이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구조지원본부는 "종단 기획실과 사회부 등 중심으로 재난 유형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활동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재난대응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위 "세월호 진상 규명해야"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는 8월 27일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진실규명과 조속한 인양을 촉구했다.

노동위는 "세월호 사고 원인, 구조 활동 문제와 책임 등 철저한 진실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아직 수습되지 못한 9구 시신 수습을 위해 조속한 세월호 인양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아름 기자



일 주 문



제12회 오대산 문화축전 일일장터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0월 9~18일 오대산 월정사 주차장서 열리는 '제12회 오대산 문화축전' 서 일일장터를 운영한다.



인도 · 네팔 성지순례

무상 순천 송광사 주지 스님은 12월 4일~16일 인도 · 네팔 성지순례를 떠난다. 접수는 9월 15일까지.



불광어울림 한마당

지홍 서울 송파 불광사 회주 스님은 10월 11일 불광법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해 '불광 어울림 한마당' 을 열고 장기자랑, 바자회 등 진행한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가을음악회

범우 강화 전등사 주지 스님은 10월 3일 오후 7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일환으로 '가을음악회' 를 진행한다.



영평사 구절초 축제

환성 세종 영평사 주지 스님은 10월 3일~11일 영평사 경내서 구절초축제를 개최한다.



글로벌 연구실 사업 진행

김동억 동국대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글로벌연구실(GRL)사업으로 하버드대와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제12회 불교활동가 지원대상 공모

설법연구원 10월 30일까지 접수



설법연구원(원장 동출 · 사진)이 포교 현장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 홍포에 앞장선 불교활동가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에 설법 연구원은 5년 이상 불교활동을 한 재가 불자를 대상으로 불교활동가 후보 추천을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일~31일까지로 △활동내역서 및 계획서 1부 △개인 또는 단체 추천서 1부를 첨부해 이메일(sulpub@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10)9004-2707 박아름 기자

〈인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실 · 팀장 인사발령

△총무처 총괄지원팀장 권영섭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장 류인수 △불교문화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김경호 △총무처 시설관리팀장 노동영 △총무처 재무회계팀장 겸 산학협력단 회계감사팀장 김성규 △비서실 전략홍보팀장 임명수

"불교학 담론 활성화 주도할 것"

〈불교학연구〉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최종남 불교학연구회장 인터뷰



창립 후 발표 · 토론문화 주도

불교 소장학자 양성 터전 마련

대학간 소통와 협력 관계 형성

"2000여 종의 학술지 중 우선적으로 선정된 15종의 우수등재학술지에 불교학연구회가 펴내는 〈불교학연구〉가 선정된 것은 불교학 위상을 드높인 쾌거입니다. 불교학 발전을 위해 불교학계의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가 발간하는 〈불교학연구〉가 한국연구재단 2015년 '우수등재학술지' 로 최종 선정됐다.

우수등재학술지 제도는 등재학술지 중 우수한 학술지를 선별해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2015년부터 5년간 2000여 종 중 200여 종이 선정돼 집중 지원 받는다. 첫 해 선정에는 인문예체분과 4종, 사회과학분과 7종, 과학기술분과 4종 등 총 15종이 선정됐으며 이중 인문예체분과에서는 〈불교학연구〉(불교학연구회)을 포함해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역사학보〉(역사학회), 〈한국사연구〉(한국사연구회)와 더불어 인문예체분과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최종남 학회장은 9월 2일 "종교 · 철학 분야에서는 불교학이 최초로 선정된 의미도 지닌다"며 "꾸준한 학술활동과 내실 있는 학술지를 발간한 1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불교학연구회는 각 대학 불교학연구의 소통과 소장학자 배양을 모토로 2000년 창립됐다. 2005년까지 매월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소장학자들을 위한 봄 · 가을 논문발표회, 춘 · 추계 학술대회, 하계 동계 워크숍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논문발표회는 소장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학회장은 "토론을 통한 창의적인 학술대회와 그 결과물을 학술지에 실은 것이 이번 우수등재학술지 평가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하며 "까다로운 심사로 논문 등재 탈락률이 높아 투고율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실린 논문은 피인용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학회장은 이어 "최근 불교학계의 많은 학술지들이 등재지 탈락 및 등재후보지 탈락이란 결과를 받은 상황에서 우수등재지 선정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며 "학회간 연대 및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불교학계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등재지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2일 간담회 자리에는 학회 역대 회장들과 편집위원장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제붓다봉사단, 미얀마 수혜 돕기

청정원이 후원…2일 미얀마대사관에 구호품 전달



수십년 만의 대홍수로 인해 100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미얀마를 돕기 위해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국제붓다봉사단이 발벗고 나섰다.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회장 목탁 스님과 국제붓다봉사단 부단장 보현수 보살은 9월 2일 미얀마대사관에서 묘딴페이 대리대사를 만나 2000여 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구호품은 (주)청정원에서 협찬한 건강식 음료와 건강용품 등으로 매년 국제붓다봉사단을 후원하고 있다. 국제붓다봉사단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봉사기구로 2008년 결성 이후 국내와 해외 불교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국제붓다봉사단은 전달된 구호품의 배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묘딴페이 미얀마 대리대사는 "수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신 한국 불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지 상황은 너무나 어렵다. 한국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봉사단 부단장 보현수 보살은 "이번을 계기로 지속적인 모금을 통해 더 많은 희망이 모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9월 5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계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천여 군장병들에게 수계했으며 봉은사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모연에 동참한 후원금 1천만원을 호국연무사에 전달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부처님 가피로 무사히 군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축원하며 "전역 후에는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는 참된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원학 스님은 이어 "국군 장병으로서 첫발은 성인으로서의 시작도 의미한다"며 "곧고 바른 마음과 굳건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각자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사 사부대중은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 앞서 논산 쌍계사에서 성지순례 행사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구파발 총기사고 희생자 추모 물결



동국대(총장 보광)는 철학과 재학 중 의경으로 입대해 복무하다 8월 25일 총기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박세원 상경을 추모하고자 학내 정각원과 법학관 건물에 분향소를 차린 데 이어, 故박 상경을 애도하는 게시물을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과 교무위원들로 구성된 조문단은 사고 다음날인 8월 26일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8월 29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안장 절차를 지켜봤다. 보광 스님은 "앞으로 49일 동안 동국대 정각원에 분향소를 유지하고 49제를 봉행하겠다"며 "학교 차원에서 '故박세원 학생 총기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동국대학교 특별대책위원회' 를 구성,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8월 30일 광화문에서 '故박세원 상경 추모식 및 촛불문화제' 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일 제8교구 직지사에서 제49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의 입재 고불식을 개최했다. 고불식에는 남행자 65명, 여행자 31명이 참석했으며, 16일간의 수계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수계교육에 입교한 행자들 중에는 '청소년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소년출가자 7명이 포함돼 있다.

신성민 기자

성주 가천 영통사 부처님 점안법회



성주 가천면 영통사(주지 혜오)는 8월 22일 부처님 점안식 개원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원로의원 평원 스님, 홍원 스님, 종도소임 스님들과 기역기관장 단체장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9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한국불교문인협회는 8월 29일 광복 70주년 · 만해 스님 탄신 136주년을 기념해 심우장에서 한국문학축전을 열었다. 만해 동상 옆에 앉아 노인백일장 행사에서 시를 쓰고 있는 어르신들.



이 자리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유승희 의원, 스님의 생전 가족이었던 한영숙 씨, 대한불교청년회 역대 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문학축전 개회식에서 축하행사로 열린 아리랑 공연. 참가자들의 열띤 박수갈채를 받았다.

심우장서 만해 정신 되새기며 역사의식 고취

광복 70년 · 만해 탄신 136주년 기념… 불교문인협 '문학 축전'

홍파 스님, 문재인 등 500여 명 참석
선진규 회장 '울음' 기념 헌시 낭독
'심우장' 주제 노인백일장도 열어
타악연주, 애송시낭송대회 등 다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심우장은 독립 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이 조선총독부를 보지 않겠다며 반대편 산비탈에 북향으로 집을 지어 10여년 생을 살다 마감한 곳이다. 8월 29일 만해 스님 탄신 136주년을 기념해 이곳 심우장에서는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선진규)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문학축전' 이 펼쳐졌다.

행사는 축전개회식을 시작으로 노인백일장, 애송민족시 낭송대회 및 축하행사 순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 회장(정토 봉화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유승희 의원, 스님의 생전 가족이었던 한영숙 씨, 대한불교청년회 역대 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홍파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만해 스님은 손병희 선생이 연로해 3.1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선생을 강력히 설득해 민족공동 대표로 독립운동을 이끌게 한 장본인이다. 총독부를 보지 않겠다며 북향으로 집을 지어 열반하실 때까지 사셨던 이곳 심우장에서 문학축전을 여니 마음이 흥분된다.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되어 조국의 독립을 걱정하던 만해 스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뜻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만해 스님은 일본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딸을 호적에도 올리지 않으셨던 분이다. 이런 일화들은 광복 후 분단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에 큰 가르침을 준다. 아직까지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많고 일제의 잔재는 청산되지 않았다. 하루 빨리 역사의 잔재를 청산해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을 넘어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만해 스님의 뜻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만해 스님의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를 이끈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 회장은 '울음' 이라는 기념 헌시를 낭독해 주목을 끌었다. 선 회장은 헌시에서 광복 70년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풀어냈다. **"구도의 길 떠나는/ 아들 손 잡고 우시던 어머니/ 새벽길 빠꾸기 소리와 함께 울었습니다…이 울음이 모두의 아픔을 씻을 수만 있다면 세세생생 수 없는 울음이 아닙니까"** 〈울음 中에서〉

2부 행사에서는 '심우장' 을 주제로 노인백일장이 펼쳐졌으며 축하공연으로는 모듬타악연주, 바라춤, 청소년 힙합공연, 애송민족시낭송대회 등이 이어졌다. 심우장을 주제로 한 노인백일장에서는 만해정신에 대한 역사 인식이 명확하고 항일 의식을 고취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신현동 어르신의 시가 장원으로 당선 되었다.

신현동 어르신(80)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3년째 시를 배우며 매주 시 한편씩을 써서 발표해왔다. 백일장은 이번에 처음 나와 봤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채찍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며 기쁨의 마음을 전했다.

민족애송시낭송대회에서는 이순자 어르신이 만해 스님의 '금강산' 을 낭송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순자 어르신(71)은 "호수노인종합복지회관 호수노인문화대학에서 문학공부를 해왔다. 늘 존경하는 만해 스님의 시를 낭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나 기쁘다. 내 생에 너무나 영광된 날인 거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선진규 불교문인협회장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시대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평소 열반일인 6월 29일 추모 행사는 많이 이어져왔지만 탄신일을 맞아 여는 행사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탄신일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고 문인들과 불교 관계자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만해의 '활발발성' 은 생명·자유 상징

고영섭 동국대 교수 특별강연



이번 축전에서는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사진〉가 '만해 한용운의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강연에서 만해 스님은 대일 항쟁기에 자신을 지키며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이라 평하며 '활발발성' 을 통해 만해 정신을 설명했다.

고 교수는 "만해의 주체의식과 역사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이어가야 할 생명의 본질인 활발발성이자 자유의지에서 나왔다. 황벽 희운의 〈전심법요〉와 임제 의현의 '임제어록' 에서 본격화된 이래 활발발성은 물고기가 물을 차고 뛰어오르는 약동의 힘이자 생명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해의 활발발설성은 그의 자유정신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에 따라 평화가 제시되는 것이다. 그의 독립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와 문학사상을 온전히 담고 있는 〈님의 침묵〉은 그 활발발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명의 활발발성은 '님의 부재' 를 '님의 임재' 로 탈바꿈시키려는 강력한 원동력이며, 만유의 생명은 자유에 있으며 평화는 인생의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확신"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 교수는 만해 독립 사상의 핵심은 자유주의와 평화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해에게 자유는 독립이며 활발발성을 지닌 생명성의 다른 표현이다. 만해가 여러 글에서 보여주는 자유는 계율의 구애와 번뇌의 굴레서 벗어난 자유의 몸짓이다. 그 자유는 삼세 즉 과거의 기억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의 예지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현재 자신의 인식으로 대면하는 자유와 평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각성 즉 불성에 겨냥되어 있다"고 만해사상을 정리했다. 정혜숙 기자




도용 종정예하가 부산 삼광사 청년회 대표에게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배구대회 우승팀인 대전 광수사 선수들(오른쪽)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

배구공으로 하나된 천태종…"땀 흘리며 화합"

38회 상월대조사기 배구대회 부산 삼광사 종합우승
4년 만에 총 35개 말사 참가…단양군과 농산물 협약도

"강 스파이크" "와~" "우리 삼광사가 이겼다"

8월 30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 4년 만에 천태종도가 한자리에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저마다 자신의 소속 사찰을 목이 터져라 응원한다.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짜증이 날법한 한여름인데도 표정들은 밝다. 자신의 소속 사찰 선수들이 잘할 때나 실수할 때나 한결같이 응원석에서 함성을 지르며 힘을 북돋운다.

광복 ·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천태종도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성대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종합 우승은 부산 삼광사가 차지했다. 응원단 규모도 제일 컸다. 천태종은 8월 30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서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류한우 단양군수, 전국 35개 사찰 종도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38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 대회 및 천태화합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교무부장 경혜 스님의 대회 선언과 시구에 이어 △배구 △족구 △승부차기 △피구 △단체줄넘기 △8인9각 △단체줄다리기 △응원 등 8개 종목 예 · 결선 등으로 펼쳐졌다. 1위는 부산 삼광사가 각종 종목서 거둔 우수한 성적에 화려한 응원전 점수까지 보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분당 대광사, 3위는 대전 광수사가 영예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백미인 배구에서는 대전 광수사가 우승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사찰 간 화합을 위해 충북 이남지역 사찰을 백팀으로, 이외의 사찰을 청팀으로 나눠 운영했다. 청백전에서는 100점의 근소한 차이로 청팀이 승리했다.

이외에도 △관음상=강룡사 · 삼룡사 · 명락사 · 천화사 · 삼개사 △문수상=보월사 · 장화사 · 삼태사 · 대안사 · 광법사 △보현상=대성사 · 황해사 · 원흥사 · 해장사 · 청안사 △금강상=봉등사 · 삼천사 · 동대사 등이 선정됐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폐회식서 훈사를 통해 "청년회의 열정과 노력으로 전국서 모인 신도 및 불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무량한 공덕을 쌓은 것 같다"면서 "오늘의 신명나는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 자랑스러운 천태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 했다.

이에 앞서 강동화 중앙청년회장은 폐회사서 "배구 대회와 천태화합한마당은 천태불자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천태청년회의 가장 큰 불사"라고 말했다.

대회가 끝난 뒤 종합우승을 차지한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도 "우선 우리 삼광사가 종합우승해서 기쁘고, 화합의 한마당이 된 것 같다. 배구대회가 앞으로 세련되고 현대에 맞는 포교를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이날 천태종은 이날 개회식서 단양군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장려를 위해 소비촉진 협약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배구 대회는 1974년 5월 1회를 시작으로 2011년 37회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개최했지만, 세월호 사고 등으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4년 만에 개최했다. 취지는 "나라와 불교의 미래가 젊은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청년들은 호연지기를 길러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야 한다"는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이에 천태종은 대조사의 이 같은 유훈을 받들어 청년불교 활성화를 통해 신도포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 홍포를 위해 종단 역량 결집 대회를 개최해 왔다. 경기 종목도 배구 외에 족구, 8인9각, 단체줄넘기, 승부차기, 피구, 명랑운동회 등으로 늘렸으며, 단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도시락을 지역 업체에 맡기는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단양=김주일 기자

자유학기제 무료 템플스테이 열린다

문화사업단, 9~11월 13개 종립중 대상 시행

13개 종립중학교 학생 500명이 올해 시범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사업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동대부여자중학교, 청담중학교, 능인중학교 등 종립중학교 13곳의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무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템플스테이는 동화사, 부석사(서산), 봉선사 등 5곳 사찰에서 올해 시범 운영된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소요 비용은 사업단이 지원한다. 자유학기제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단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에 동참하는 한편,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체험활동의 한 형태로 템플스테이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이번 자유학기제 템플스테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전국의 학교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업단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진에어 국내 · 국제선의 탑승권을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의 당일 코스 템플스테이를 각각 20%와 10% 할인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동반 1명도 동시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희망자는 전화 예약 후 현장에서 탑승권을 제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불교영어능력 인재 양성 나서

10월 7일부터 매주 수 총 12강 진행… 9월 30일 접수 마감

봉은사가 불교의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불교영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10월 7일~12월 23일 진행되는 '제9기 불교영어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이해 △여성 불자로서의 역할 △불자와 수행 등을 주제로 영어 강좌가 진행된다.

기본적인 영어 독해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9월 30일까지 선착순 50명 마감이다. 문의 (02)3218-4825~6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학생불자 '청년스트레스' 불심으로 극복!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채은, 이하 KBUF)는 8월 13~16일 경남 하동 쌍계사 및 보리암 일대서 '제6회 KBUF Young Buddhist Camp'(이하 영캠프)를 실시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되는 무한능력발전소'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청춘들 잔치답게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성인이 된 대학생들만의 고민을 털어놓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기획된 '19금 붓다II', 어려운 불교 용어를 넌센스 퀴즈로 재밌게 풀어낸 '도전 붓다킹',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몸짓명상' 등이다. 특히 '도전 붓다킹' 프로그램서는 물총놀이도 함께해 학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채은 회장은 "이번 캠프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우들의 모습을 보기 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누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공불련 '15주년' 합동법회

10월 3~4일 순천 송광사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10월 3일~4일 순천 송광사서 '창립15주년기념 합동수계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계사로 나서는 합동수계법회는 이튿날인 4일 창립 15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진행된다. 당초 합동수계법회는 지난 6월 예정돼 있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철야정진, 금강경 독송 및 108배, 암자순례 등도 실시된다. 박아름 기자

질풍노도 청소년들에 '명상힐링을…'

파라미타,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육성 과정 마련

질풍노도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여유를 되찾아주기 위한 명상힐링 전문지도자가 양성된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육성에 나선다.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는 청소년들이 내적 성찰 및 자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명상활동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파라미타는 청소년명상지도 유경험자 혹은 파라미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연수와 필 · 실기 시험 등 실시한다. 자격연수는 1차 8월 29~30일 통합템플스테이센터, 2차 10월 24~25일 제주 관음사서 진행되며, 교재는 정여 스님의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과 〈명상 선기공〉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양성 프로그램은 한국직업능력대발원으로부터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민간자격증을 승인 받아 마련됐다. 파라미타는 "향후 1기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가 배출되면 정여 스님과 함께 현장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자 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을 밝혔다. 박아름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4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무료배송)

상황극으로 어르신 청소년 공감대 형성

부산 금정구 노인복지관 어르신 소시오드라마 공연

세대통합 및 노인인식개선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상황극 연출 대안학교 학생들 관람후 토론도


부산 금정구노인복지관은 9월 3일 대안학교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학생들을 초대해 '노인이 참여하는 소시오드라마'를 진행했다.

소시오드라마란 사회가 느끼는 집단의 문제, 또는 사회적 화두를 행위로 표현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풀어가는 일종의 치유 프로그램이다.

구성원 각자가 상황에 맞는 역할을 맡아 즉흥적인 연기를 통해 스스로도 성장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시오드라마가 어르신들의 공동작업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을 맞았다.

부산 금정구노인복지관은 9월 3일 복지관 내에서 어르신들이 마련한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복지관이 3월~8월까지 2015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노인이 참여하는 소시오드라마 활동을 통한 세대통합 및 노인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직접 대중에게 선보인 것이다.

'노인공경'을 주제로 하는 이 드라마의 관객은 인근 대안학교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학생'들. 21명의 학생들은 어르신들이 즉석으로 공연하는 10분간의 즉흥극을 보고 20분간의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연극에 참여해 즐거움을 더했다.

8개월 동안 어르신들을 지도해온 이경미 강사(극단 지금 대표)는 "지금까지 노인공경 부부갈등, 고부갈등 등을 주제로 상황극을 만들며 연습해 왔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정해주면 어르신들이 직접 내용 대사 등 세부적인 극을 만들어 가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청소년들만 지도해 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지도해 보았다. 어르신들의 적극성에 놀랐다. 본인들의 경험치를 활용해 연극 내용을 만들어 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을 보며 많이 감탄했고 강사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소시오드라마에 참여한 배정임(69) 어르신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이 커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모이다 보니 하나의 상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내는데 모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니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도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주변을 살피고 상대를 한번 더 생각하는 배려심이 생기게 되었다"며 소시오드라마를 통한 변화를 이야기했다.

지하철에서 자리양보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 노인공경을 이야기한 상황극은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공연을 관람한 우다다학교 강성빈(16) 학생은 "상황극을 보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마음을 괴롭혔다. 나이 많고 약한 분들을 위한 배려는 당연하다. 조금 더 공경심을 갖춰야 할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연재(16) 학생은 "즉흥 연극이라는 점도 놀랍고 그것을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기하셨다는 점도 대단하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청소년 역할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양심에 찔렸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윽박지르며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양보하라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옳지 않은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세대를 넘어 서로가 함께 공경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금정구노인복지관 소시오드라마 공연은 '노인공경' '노인이성교제'를 주제로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51)792-7200

정혜숙 · 하성미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라오스 지원사업 확대

8월 26일 난치병어린이지원 위한 MOU체결

쉼터운영 · 보건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26일 정부와 난치병어린이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8월 2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한 · 라 아동병원에서 라오스 정부와 난치병어린이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 협약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 원거리에 거주하는 환아 및 보호자를 위한 쉼터운영, 보건의료 사업 및 기초의약품 지원 등 라오스의 의료 · 보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증진에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약식에는 현지에 파견한 복지재단 임직원과 라오스정부, 한 · 라 아동병원 및 라오스 중앙불교협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유치원 설립, 무료개안수술, 난치병 어린이 지원 및 쉼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라오스의 의료 · 보건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라오스 불교계가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라오스에서는 난치병 어린이 1인당 300~500만원의 치료비가 있으면 정기적인 진료 및 항암치료 등을 통해 70%까지 완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 몇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한라아동병원 및 라오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확장 요청이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보건의료분야가 취약한 상태의 라오스를 위해 2011년부터 라오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본동 복지관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

8월 29일 마을 벽화그리기 사업 실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8월 29일 지역조직화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 인근 공원에서 본동벽화마을갤러리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를 실시했다.

본동벽화마을갤러리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는 삼성생명 강남지역사업부 임직원 및 가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역 내 노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인근 공원의 벽면을 활동처로 선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낡은 공원의 벽면에 나눔을 상징하는 하트가 들어있는 수레를 그려 넣기도 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해맑게 웃으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으로 채우기도 했다. 또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주제로 함께 하트를 그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다.

본동벽화마을갤러리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817-0852 정혜숙 기자


벽화그리기 사업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 참가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소방대피훈련 실시

유아예체능단 8월 31일 교실 건물서

역삼청소년 수련관(관장 보련) 유아예체능단이 8월 31일 유아예체능단 건물에서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5~7세 유아 55명과 인솔교사 7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유아들에게 안전불감증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실시됐다.

반에서 수업 중이던 유아들은 사이렌 소리가 나자 서로 약속한 듯 낮은 자세로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교사의 인솔 하에 신속히 1층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유아예체능단 김미란 원감은 "백번을 지도해도 넘치지 않는 교육이 있다면 안전교육이다. 이에 유아예체능단에서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매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소방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장 보련 스님은 "유아들에게 안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배우고, 익히며,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유아예체능단 건물에서 실시된 소방대피 훈련

"환자들의 쾌유 기원, 작은 음악회"

부산 생명나눔 9월11일 동의의료원서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9월 11일 오후 7시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에서 '제9회 환자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모두가 하나 되는 노래'라는 주제로 성우원 엔젤스필, 가수 설라경, 코젠어린이예술단, 밴드 바나나우유 등이 무대를 꾸민다. 공연에 앞서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 직원들은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들을 격려하고 차와 다과 등을 나누며 환자들의 쾌유를 발원한다.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은 "투병생활로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희망을 심어 주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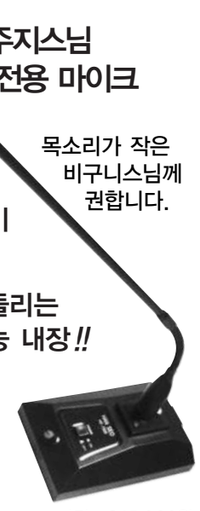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가난하게 산다고 無所有가 아니다”

길상사 일요특강

윤청광 작가

‘무소유(無所有)’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 그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생전 무소유에 대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가진 것을 이타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다. 윤청광 작가는 8월 30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일요법회서 40여 년을 이어온 법정 스님과 인연을 소개하며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강연을 진행했다. 윤 작가는 “1960년 대 군사정권을 비판하다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며 “법정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크셨다. 스님은 이 세상에서 시줏밥을 얻어먹었으니 밥값은 해야 한다며 맑고 향기롭게 사는 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회고했다.

한편 길상사는 법정 스님 올해 입적 5주기를 맞아 법정 스님과 인연 있는 불자들을 초청해 법정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되돌아보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정리=박아름 기자**



윤청광 작가는 … 前 맑고향기롭게살아가기운동 본부장을 역임하고, MBC문화방송에서 ‘오발탄’ ‘신문고’ ‘전설따라 삼천리’ ‘세계 속의 한국인’ 등을 집필했다. 저서로는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회색고무신〉 등을 펴냈다. 현재 동국출판사 대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인사클럽 회장 등 맡고 있다.

법정 스님과 ‘맑고 향기롭게’

저는 1965년부터 문화방송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군사독재 아래 암울했던 시절, 그것이 법정 스님과 저의 인연이 됐습니다. 5·16군사정변 이후에 제가 다니던 동국대학교에 군 장성들이 권총을 차고 학내로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학교 캠퍼스는 군부대로 변했고 학교 총장실에는 군인들이 들어차 총장과 학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 부었습니다. 군인들은 데모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당시 능력 있는 많은 교수님이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칙을 엄하게 제정해 데모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 기자였습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군에 빼앗긴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기사를 썼습니다. 당시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는데 남대문에 있던 인쇄소에서 발행 전 모두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그 신문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동국대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당시 동국대 불교대학에 알려져 법정 스님과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동서문화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국대 김영한 교수님께서 법정 스님을 제게 소개시켜주셨습니다. 김영한 교수님은 다방에서 법정 스님에게 “스님 책 한 권 내셔야죠”하며 저를 소개해 줬습니다. 법정 스님 또한 당시 정부와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하게 됐는데 총무원에서 전국 각 사찰에다가 ‘무훈장구(武勳長久) 기도회’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법정 스님이 불교신문에 글을 기재했습니다. “장병들이 무사히 회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기도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오라는 기도는 불교의 불살생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없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 스님에 대해 정부의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의 저도 법정 스님처럼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법정 스님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통하여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1972년 12월 〈영혼의 모음〉이라는 첫 책을 내셨습니다. 수필집이었지만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인지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내용은 똑같고 제목만 달리하여 〈무소유〉 책이 발간됐습니다.

1995년부터 저는 문화방송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맡으며 방송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방송국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오발탄’ ‘신문고’ 등으로 정부에서 듣기 싫은 소리만 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되고 저는 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풍토가 남아있는데 당시에는 조금만 반정부적인 태도를 보여도 속히 ‘빨갱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사실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살아계실 적에는 모두 빨갱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평등과 사랑을 주장했으니 어느 사회 기득권이 그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형당했으며, 부처님은 여러 암살시도를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권력층에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 때문에 저는 일을 새로 구하기 힘들었고 다시 출판협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스님의 연락을 받고 법륜사로 갔습니다. 그날 저 말고도 몇 분이 더 모여 계셨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철이 들라고 하는지 밥값을 해야겠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시주 밥을 먹었으니 밥값을 하고 가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없고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는 뜻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맑고 향기롭게’라 적힌 말을 저희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스님은 돈을 몇 배로 준다며 법문을 요청해도 움직이지 않으실 만큼 번거로운 것, 사람 만나는 것 모두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어느 날 불현듯 자발적으로 사회운동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저는 스님이 내주신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이 한번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연구는 해봤냐’는 스님 말씀에 ‘마음을 향기롭게, 세상을 향기롭게, 자연을 향기롭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무릎을 치시며 ‘바로 이거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맑고 향기롭게’ 본부의 실천덕목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것을 다 실천한다면 세상은 분명 맑고 향기로워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실천본부가 만들어져 조직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부서를 만들 때였는데 스님께서 저를 본부장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절대 맑고 향기롭게 살아오지 못했다며 한사코 고사 했지만 스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라는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7년 동안 엉터리 본부장을 맡아왔습니다.

군사정권시절 법정 스님과 인연
‘맑고 향기롭게’ 사는 법 연구 당부
“이제 제대로 살라”며 본부장 맡겨
가진것 이타적으로 써야 ‘무소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

저는 수십 수백억을 두고 재벌가에서나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법정 스님처럼 엄청난 금액의 보시가 들어와도 거절하는 모습은 평생 처음 봤습니다. 어느 날 스님의 〈무소유〉를 감명 깊게 읽었다며 김영한 보살이 법정 스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김영한 보살은 “제가 성북동에 요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스님께 시주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청했지만 스님께선 다른 좋은 분께 시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받으십시오”하면 “못 받겠다” 하는 김영한 보살님과 법정 스님의 싸움이 10년 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때 요정이 있던 자리가 지금 바로 길상사 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마음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느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나만 잘돼야 한다, 우리 식구 잘돼야 한다’는 이기심에서 옵니다. 반면에 모든 행복은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옵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 법문을 설하실 때 ‘욕심은 More & More(점점 더 많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자유경제주의를 택한 나라마다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길상사의 상징은 법정 스님이고 법정 스님의 상징은 무소유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정당하게 번 돈을 좋은 곳에 이타적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핑계 삼아 무소유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담배를 하루에 두 갑을 넘게 태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속히 ‘줄담배’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피웠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당연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을 차로 모시면 스님은 언제나 조수석에 타셨는데 담배 냄새가 스님을 괴롭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죄스러워 눈물이 다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망막에 염증이 생겼는데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라며 담배를 끊어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담배와 제 눈을 바꿀 수는 없어 그때부터 금연 하게 됐습니다. 담배를 끊게 되자 제일 좋아하셨던 것은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진작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스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쌓아두기 말고 단순하게

법정 스님은 사실 예전엔 괴팍하기도 하고 괴짜 같은 면도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 신도가 책을 가져오며 “스님 한 말씀만 적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책에다 “한 말씀” 세 글자를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셔서 잘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맑고 향기롭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원래 스님은 다른 절은 말할 것도 없고 송광사에서조차 법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강화 선원사의 주지 스님이 선원사를 다시 복원하며 법정 스님께 법문을 청해보면 안되겠느냐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강화 선원사는 고려 시대 때 본원이었던 절로 폐허가 돼버려 다 쓰러져 가는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사 주지 스님께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부탁하시기에 ‘맑고 향기롭게’ 회의 때 한번 찾아와 스님께 직접 말씀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은 두말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람과 동시에 기뻐하며 스님을 선원사로 모시고 갈 준비를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강화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지에서 많은 신도가 몰려들었습니다. 기념촬영 또한 흔쾌히 허락하셔서 그날 오셨던 분들 모두다 스님과 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날 “나 많이 변했지?” 하면서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불교의 가르침이 무상 아니겠냐며 변하셔야 한다고 스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고 느끼셨던 스님은 실제로 예전보다 농담도 많이 하시고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식사자리에 생선이나 고기가 올라와 신도들이 난감할 때도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오히려 곡차까지 시켜주시며 저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전생에 곡차와 고기도 많이 드셨다며 전생에 못 먹어본 저희 많이 먹으라고 권하시곤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위한 법정 스님의 배려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저희에게 법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쌓아두지 마라,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남을 헐뜯는 사람은 불행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언행이 일치하는 삶도 힘든데 법정 스님은 언어와 행동, 그리고 글까지 모두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법정 스님이 40년 전에 집필하신 〈미리 쓰는 유언〉이란 책이 있는데, 스님은 그 책의 내용 그대로 변함없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 또한 법정 스님 덕택에 정말 좋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이지만 길상사 이 맑고 향기로운 가람에서 좋은 인연, 좋은 공부 많이 하시고 나날이 맑고 향기로워지길 소원하겠습니다.

각종 점안의식의
작법절차를
집대성!



해사 편집/사륙배판/스프링 제본
312쪽/값 30,000원

점안의식집

전래되는 의식집들을 비교분석하고 보완하여
여법한 점안의식을 완성!

삼화상청, 신중작법, 불상점안, 삼보통청, 신중권공, 화엄시식, 조탑점안, 나한점안, 신중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산신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불상이운, 괘불이운, 파불급경가사소송법 등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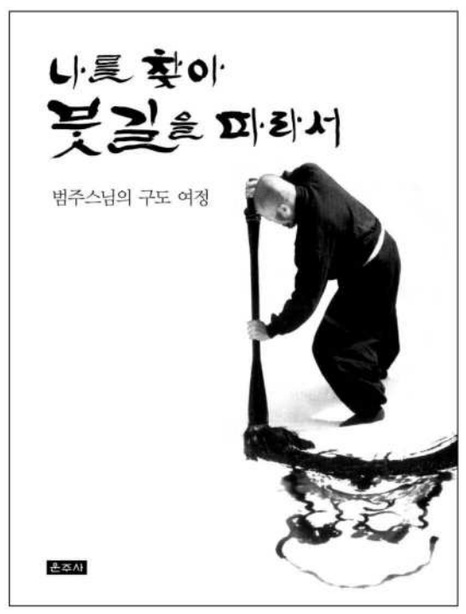
달마도와 선묵화의 대가 범주스님의 삶과 수행의 여정!

나를 찾아 붓길을 따라서

선묵일여, 선화불이의 세계를 추구해 온
범주스님의 삶과 수행, 예술세계를 담은 회고록.

출가 50년, 선묵화 40년!
선화를 화두 삼아 수행해 온 구도의 여정을 글과 그림을 통해 만나다.

범주 글, 그림/사륙배판변형/286쪽/올컬러/20,000원



수좌복지 후원을 위한 범주스님 선묵 회고전 일정

도시명	전시기간	장 소
서울전	8/29(토) ~ 9/8(화)	조계사 나무갤러리
울산전	9/10(목) ~ 9/23(수)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
부산전	9/24(목) ~ 9/30(수)	부산시민공원갤러리
대구전	10/1(목) ~ 10/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일산전	11/9(월) ~11/22(일)	일산동국대학병원갤러리

회고록 출판기념회
일시 2015년 8월 29일 (토) 오후 4:00
장소 조계종 총무원 지하공연장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대학구조개혁평가, 종립대 희비… 문제점은?

〈喜悲〉

동국대 서울캠 '최우수', 경주캠 · 위덕대 '우수' 받아

교육부의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종립대학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됐다.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최우수 등급인 A평점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위덕대가 우수 등급인 B등급을 받아 불교종립학교의 위상을 떨쳤다.

이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춰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지난 5개월 간 일반대 · 전문대 등 총 298개 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D와 E등급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일부 제한되며 국가 보조 학자금, 장학금 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동국대는 전임교원확보율, 수업관리, 학생 학습역량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학생 충원율,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12개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평가, 장학금 지원, 취 · 창업지원, 졸업생 취업률 등 6개 지표는 만점을 받았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A등급 선정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면서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학다운 대학, 참사람 열린교육을 실천하는 대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기획처 관계자는 "인문계와 이공계간 융복합 연구 등을 비롯해 교양교육 전담 학부인 다르마칼리지 신설 등이 좋은 결과를 받게 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은 위덕대도 전임교원 확보 및 교사확보, 장학금 지급율, 취업율 등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위덕대는 취업률 상승을 위해 입학취업지원처 산하에 취 · 창업지원팀을 신설하고 'Job-Cafe'를 설치하는 등 노력으로 2014년 71.3%의 취업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영남권 4년제 중 1위, 전국 12위이다.

위덕대 기획팀 관계자는 "'지역명문 교육중심대학' 이란 비전실현에 '명품교육, 명품취업' 이란 슬로건을 걸고 합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육부, 취업률 등 성과위주 평가 실시
일선대학, 특수성 미반영 우려 목소리
"종교 · 인문학 위기 가속화"

위덕대의 경우에는 학부교육혁신단과 인성기초교육원을 학내에 설치하고 인성기초교육원 내 인성교양교육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위덕진각봉사단의 4개 학생지원센터를 둬 상호연계활동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인문계 축소…대학 특수성 훼손 우려도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사실상 성과위주의 평가라는데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취업률 등 드러난 수치에 의한 평가로 인해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힘든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서울의 D대 교수는 "평가기준이 일률적인 것이 문제"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선도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대학 입학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평가받게 되어있다. 성과 위주 평가에 학문 다양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평가를 앞두고 각종 평가 지표 때문에 지방대에서는 인문계열 학과를 통폐합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와 함께 소수정예로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금강대와 같이 종립대학의 특수성이 평가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위등급에 포진한 대학의 상당수가 종립대학인 점에서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D+등급을 받은 금강대의 경우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혜택 등이 일부제한 받지만 이미 자체 전액장학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대는 이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차기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조개혁평가에 이어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각 대학에 권고한 상태다. 최우수인 A등급은 자체감축 외에는 별도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B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분을 권고 받았다. 아직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소급적용이 어려운 만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전문대학은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등의 정원감축을 권고 받았다. 2015년도 평가제외대학은 평균치인 7% 감축해야 한다. 권고대로 줄이지 않을 경우 각종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신규평가 및 단계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대학 한 관계자는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부에서 대학을 최초로 '서열화' 한 것"이라며 "평가 기준 다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실크로드의 석굴문화 집중 조명

한국미술사연구소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미술사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동서 문화의 용광로 실크로드의 석굴, △실크로드의 역사와 고대 한국인, △우리 불상의 원류 돈황 석굴의 불상, △오아시스의 꽃-쿠챠와 키질석굴, △실크로드 현장 답사, △우리 미술의 원류-돈황 석굴의 벽화, △찬란한 벽화의 보고-돈황 석굴의 벽화, △사막에 핀 화염의 미소 베제크릭 석굴, △지하도에 어린 웅장한 세계 유림석굴, △실크로드의 시작과 종점 맥적산 석굴, △호수 속에 솟아있는 동서 문화 교류의 꽃 병령사 석굴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중국 실크로드 석굴 현지 학술조사' 동참자를 모집한다. 오는 10월 15~22일 진행되는 현지 체험학습 학술조사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연구소는 "실크로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 등 고대 문화의 수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문화의 보고"라며 "이런 신비의 고대 문화를 배우고 몸소 체험하는데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경 번역 제문제' 학술세미나

티벳대장경역경원, 10월 2일 동국대 경주 백주년기념관서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10월 2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5층에서 '불교경전 번역의 제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티베트 경전 번역 및 디지털화가 논의된다. 허일범 진각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성준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전임연구원의 '티벳대장경의 현교와 밀교문헌 비교' △이방배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티벳대장경 번역어의 선정에 관한 문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스마트미디어시대 대장경 전산화의 현황과 전망'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근현대 역경의 단면-백용성의 금강경 번역을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진옥 스님은 "티베트 대장경 연구는 한국불교의 역경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티베트경전 번역과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경청하고 토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054)770-2894 노덕현 기자

北불교도연맹, 일본 내 문화재 반환 추진

평양 율리사지석탑 반환요구, 도쿄법원 조정기일 출석 추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평양에서 유래한 일본 내 문화재를 되찾고자 도쿄에서 열리는 법원 조정기일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8월 30일 차금철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서기장이 평양 율리사지 석탑을 되찾기 위해 9월 17일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서기장은 8월 29일 방북한 문화재제자리찾기 관계자를 개성에서 만나 그간 남 · 북한 불교계의 공동 노력으로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의궤, 어보 등의 문화재가 반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은 조불련이 일본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석탑반환 문제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조불련은 올 2월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도움으로 율리사지 석탑을 반환하라는 조정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의 부루나존자 '무진장 스님' 추모행사 열린다

2주기 맞아 9월 11일 세미나 · 17일까지 유품전시회

'한국의 부루나 존자'로 불릴 정도로 평생을 중생교화에 나섰던 무진장 스님(사진)의 입적 2주기 기념 학술세미나와 유품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조계사와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은 9월 1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무진장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추모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의 '금강경과 무진장 스님의 불교사상',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의 '무진장 스님의 생애와 원력' 기조발제가 1부 행사로 진행된다.

이어 2부 세미나에서는 김경집 위덕대 교수의 '조계사의 지킴이 무진장 스님',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와 무진장 스님' 등이 발표된다.

이어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는 무진장 스님의 유품과 근현대 포교사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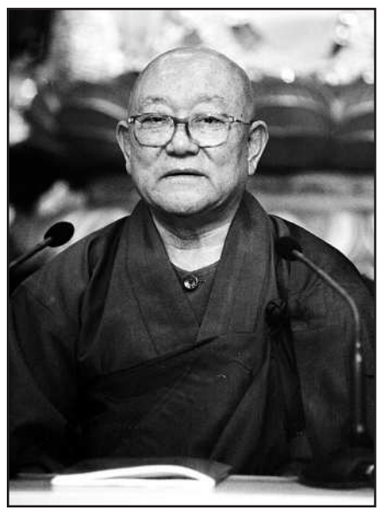
전시되는 유품으로는 발우 1세트(6점), 죽비 1점, 주장자(소) 1점, 합장주(나무) 1점, 불자 1점, '천태사교의 신석' 친필원고 1270장, 근세한국불교사상의 연구 1책, 휴대용 향통 1점, 안경 2점, 장삼 1점 등 전체 42건 중 23건 등이다.

조계사 측은 17일 무진장 스님이 평소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육조解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봉정도 진행된다.

한편, 무진장 스님은 1971년 조계종 포교원을 창설하고, 평생을 대중포교에 바쳤으며, 무소유를 직접 실천해 '칠무(七無) 스님'으로 통했다. 무진장 스님은 1971년 조계사에 주석한 이후 다른 곳에 머문바 없이 40여년 간 상임법사로 수행과 포교에 정진했다.

이후 79세인 2010년 4월 14일 조계사 회주로 추대됐고 2013년 9월 9일 조계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노덕현 기자



'조선후기 선사상'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 9월 19일 서울 법련사에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 2층 강당에서 '조선후기 선사상과 보조선'을 주제로 제113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월례학술대회에서는 △김용태 동국대 교수의 '17세기 묵암최눌의 화엄교학과 보조유풍' △희철 스님의 '승가교육에 끼친 지눌의 사상'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향일암에 군사시설이? 지역민·불교계 반발

9월 1일 광주31사단 입구서 반대시위 벌여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시설 신축 계획
향일암 측 "생태 훼손 심각"
지역주민들도 신축반대 1인시위 진행

국내 4대 기도성지 중 하나인 관음기도도량 향일암 인근에 군부대 시설 신축이 진행돼 지역주민들과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군시설 위치는 거북이가 경전을 지고 바다로 향한다는 의미를 지닌 향일암 일대에서 거북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향일암은 거북이 등의 경전 부분이다.

여수 임포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립공원 향일암 지키기 여수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9월 1일 광주 31사단 입구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가 다도해 국립공원인 여수향일암 지역 병영 생활관 신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자리에서는 향일암 주지 우석 스님, 김상두 시민위원회 상임대표, 김경현 주민대표 및 지역 시민단체 10여 명 참석했다.

시민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 국방부 등에 병영 생활관 신축에 대한 이전 신축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사태해결을 요구한바 있지만, 여수시와 국방부 등 정부 측에서는 여전히 강행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국방부의 공사강행 방침은 지역갈등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여수 향일암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일원이자 해양관광도시 여수시의 랜드마크로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도 매우 높은 곳"이라며 "최근 21세기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여수시의 핵심동력이 될 곳으로 군이 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위원회는 이날 성명발표를 통해 환경도시 육성과 생태 ·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장려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했다.

향일암 주지 우석 스님은 이날 시민단체의 성명발표에 앞서 "향일암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우리 문화의 보고"라며 "군부대 시설 신축으로 인해 이러한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훼손이 우려된다. 현재 군생활관 위치도 좋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더 좋은 곳에 지어 좋은 환경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시설은 지난 2014년 11월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포소초 병영 생활관 신축 협의를 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국방시설본부는 2014년 말부터 계획을 세워 4060㎡ 부지에 연면적 1295㎡ 규모의 2층 시설을 짓고 있다. 이후 12월 임포주민들이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하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31사단과 여수시의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강행 움직임에 2015년 8월부터 여수시민협의회에서 신축반대 성명 발표 및 여수시청과 군부대 입구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향일암에서 바라본 거북머리 지형모습. 사진 원 안이 거북머리 부분으로 군생활관이 들어선다.



향일암 불자들과 시민들의 시위 모습

"우란분절은 이웃을 돕는 자비의날"

전주 금선암, 8월 28일 군부대 초코파이 9600개 전달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우란분절을 맞아 군 장병들을 위한 쵸코파이 100상자를 전달했다. 금선암은 8월 28일 '우란분절 공덕 회향법회'를 열고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에 장병들의 쵸코파이 100 상자를 전달했다. 총 9600개로 시가 280만원 상당이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힘든 시기, 군에서 보내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전라북도를 방어하고 있는 향토사단인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한 후 지역불교계의 관심이 멀어졌었다"며 "우란분절을 맞아 불자들의 정성이 장병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금선암 신도회장은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군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지속적으로 35사단을 비롯한 군 법당의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금선암 불자 중 올해 회갑을 맞은 불자들이 회갑여행 비용을 절약해 9월 20일 35사단 장병들을 위해 위문법회를 열 예정이다. 금선암 불자들은 지난해에도 회갑기념 수계법회를 연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흥댐 수몰영가 및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

장흥 보림사 8월 30일 영산대재 귀농인과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는 8월 30일 '제2회 보림사 수륙무차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이번 영산대재는 지난 2006년에 완공된 장흥댐 수몰 영가와 한국전쟁 가지산에서 희생된 영가와 동학농민 전쟁의 고혼 영가들을 위한 것이다.

영산대재에는 일선 스님, 장흥사암연합회 회원스님, 김성 장흥군 군수를 비롯해 5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이번 영산대재에는 형편이 어려워 조상을 모시기 힘든 귀농인들과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1부 천도의식, 2부 문화공연이 진행됐으며 명부전 주불 지장보살과 무독귀왕, 도명존자 점안식도 봉행됐다.

주지 일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보림사 영산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참선을 하는 선종 사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림사는 신라말 개산했던 구선선문 중의 하나로 보조국사 체증 스님이 남원의 실상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산했다. 경내에는 국보 제44호인 3층석탑 및 석등, 국보 제117호인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舍那佛坐像)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교도소 내 불교법당 개원

올해 2월 문을 연 정읍교도소 내에 불교법당이 개설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정읍 내장사(주지 혜산)는 9월 2일 정읍교도소에서 불교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내장사 대우 스님, 혜오 스님, 선운사 사회국장 도심 스님 등 스님들과 김영기 소장을 비롯한 정읍 교도소 관계자, 불자 재소자 등 50여 대중이 참석했다.

개원법회에서 대우 스님은 "한순간의 실수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중생을 위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불교법당 개원은 정읍 교도소 종교교정활동으로는 최초다. 선운사와 내장사는 개원법회를 계기로 지역불교계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읍 교도소 교정교화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화엄문도회, 학인 장학금 지급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8월 27일 화엄사 승가대학 혜원당에서 화엄문도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주지 영관 스님, 승가대학 학장 종곡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승가대학 장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화엄문도회는 11명의 학인 스님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영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전원이 사회복지학과 이수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학금 수여 정책을 통해 강원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더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순천대 교수회, 사찰서 템플스테이 실시



순천대 교수회(의장 김정빈)는 8월 27~28일 구례 화엄사에서 템플스테이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직 교수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과의 차담, 예불참석, 연수국장 동호 스님의 '불교문화와 예절' 지도, 총무국장 효광 스님의 '간화선 실습', 화엄사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종수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불교문화연구센터장은 "이번 순천대 교수회 템플스테이로 순천대와 불교계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수들에게 불교문화가 종교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로서 체험하는 기회도 됐다"고 말했다.

법주사 9월 17일 '금동미륵대불' 회향대법회

법주사(주지 현조)는 메르스 확산에 따라 미뤘던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대법회를 9월 17일 연다고 밝혔다.

회향대법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경내 금동미륵대불 앞 야단법석에서 펼쳐진다. 법회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금빛 새 옷을 갈아입은 금동미륵대불 회향식을 겸한 자리로 마련된다.

법주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자부담금 7억 원을 들여 경내에 자리 잡은 금동미륵대불의 표면을 뒤덮은 녹과 오염물질을 벗겨내고 새로 금박을 덧씌우는 개금불사를 했다. 미륵대불에는 햇볕이나 비바람에 잘 변색하지 않는 '골드 펄'이라는 인조 금이 7~8미크론(0.007~0.008㎜) 두께로 칠해졌다.

한편, 금동미륵대불은 신라 혜공왕 12년(서기 776년)에 진표율사 7년간의 노력 끝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말기에 대원군의 당백전 주조를 위해 몰수되는 운명을 맞았고, 1939년 시멘트 불상으로 복원됐다. 법주사는 1990년 붕괴 직전의 시멘트미륵대불을 해체하고 청동미륵대불을 세운 뒤 2002년 불상 전체를 금으로 치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차 마시고 작품 감상하며 '나눔 실천'

부산지역 곳곳서 문화공간 개원

부산지역 곳곳에서 갤러리 카페, 전통 다실 및 북카페 등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새롭게 개원해 눈길을 끈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지난 8월 19일 갤러리 카페 '화두(和豆)' 를 개원하고 신도들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130㎡의 규모로 조성된 갤러리 '화두' 는 '커피와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 이란 뜻으로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갤러리 카페 화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은 실장은 "수익 창출보다는 신도들과 홍법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간 '화두' 의 가장 큰 매력으로는 큰 창을 통해 한눈에 들어오는 홍법사 전경을 꼽는다. 이곳에서 시원한 잔디와 꽃과 나무 등 홍법사의 아름다운 4계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3년 동안 전문 바리스타로 커피숍을 운영했던 신정은 실장이 직접 커피를 마련해 일반 커피숍과 맛 경쟁에도 뒤지지 않는다. 일반 과일차 메뉴도 최상의 재료로 마련해 직접 제작해 대접한다.

신정은 실장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탄산수 음료를 위해 기계설비도 갖췄다. 자몽이나 레몬레이드도 사찰에서 직접 담궈 만들었으며 일반 전통 찻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메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정은 실장과 함께 불교대학 김인숙 회장, 이미하 총무 등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운영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홍법사는 8월 19일 갤러리 카페 '화두' 를 개원하고 전시도 마련했다. 홍법사 신도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장면.

개원을 맞아 갤러리 화두는 주지 심산 스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 속에 비친 아름다운 홍법사' 초대 전시도 진행 중이다. 심산 스님의 작품 전시 수익금은 홍법사 대광명전 삼신불 조성불사에 전액 기부된다.

신정은 실장은 "주지 스님께서 갤러리 카페의 문을 연 취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한다. 정성을 다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에서도 부산 불교회관 2층에 위치한 전통찻집 '보송(寶松)' 을 새롭게 단장해 8월 18일 문을 열었다. 그동안 '보송' 은 일반인이 운영해 왔으나 불교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불교회관을 방문하는 많은 불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여여선원이 운영을 결정했다.

갤러리·북카페 등 활용 '다채'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사용

문화 이용한 지역포교 모범 사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부헌 교무는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불교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며 "아울러 불교문화가 가득한 이곳에서 선원을 찾은 불자들이 주고받은 다담은 곧 포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내원' 의 북카페 '커피 열매' 전경

270㎡의 넓은 공간의 보송은 마치 사찰에 들어선 듯 전통 기와와 전통가구들로 꾸며져 있다. 특히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상설 전시되고 있는 선서화다. 경허 스님, 수안 스님, 정여 스님의 선서화를 비롯한 80여 점의 선서화 작품들이 오는 이들을 반긴다.

김부헌 교무는 "한국 근현대 불교를 개창한 경허 스님의 글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지닌다"며 "갤러리로 문을 연 것은 아니지만 이 공간이 스님들의 선서화를 모시기에 어울리는 공간이이라고 판단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송의 수익금은 국내 및 국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세상을 향기롭게(대표이사 정여)의 활동금으로 지원된다.

김부헌 교무는 "보송의 의미가 보배 '보' 소나무 '송' 이다. 향기로운 소나무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로 선원장 정여 스님께서 지어주셨다"며 "마치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공간처럼 아름답게 꾸몄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방도 조성 되어 있어서 모임을하기에 좋은 장소다. 또한 명상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해 선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물론 악기연주 혹은 춤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가능해 활용 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커피전문점도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내원(대표이사 정련) 산하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승희)는 7월 1일 다대포해변공원관리센터에 북카페 '커피열매-몰운대점' 을 개원했다. 다대포해변공원관리센터 3층에 162㎡ 규모로 오픈한 '커피열매' 는 북카페 형식의 커피전문점으로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자활 사업금으로 기부된다.

저소득 일자리 창출과 희망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는 커피열매사업단을 구성하고 커피숍을 개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원한 '커피 열매' 는 4호점이다.

특히 이곳 커피숍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 재활용 사업단 '커피큐브' 와 함께 연계해 메모 꽂이, 열쇠 고리 등으로 제작돼 판매된다.

이승희 사하지역자활센터장은 "아름다운 다대포해변공원을 내려다보며 책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며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쓰여질 계획"이라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생명 사랑 실천으로 '세계평화·남북통일' 발원

8월 30일, 쌍계사 자비방생대법회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효명)는 8월 30일 하동차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자비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생대법회는 쌍계총림 본말사연합회(회장 능원)가 함께 참여했으며 쌍계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사부대중 2천 7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본말사연합회장 능원 스님의 대회사, 방장 고산 대종사의 법어, 주지 효명 스님의 격려사, 윤상기 군수 및 김봉학 군의회의장 축사 등으로 법요식이 진행됐다. 법요식으로 마음을 모은 대중들은 섬진강 화개천에 물고기를 방생하며 생명사랑과 평화를 발원했다.

방장 고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해마다 방생하는 사람은 많으나 자기 마음을 방생하는 이는 적다. 마음 가운데 사악한 것을 소멸하면 곧 이것이 바로 참된 방생이다"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자신부터 욕심을 버려야만 가정의 화목을 시작으로 남북통일 그리고 세계평화가 가능하다"고 설법했다.

주지 효명 스님은 "방생을 하는 참된 의미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보살피기 위함이며 산하대지에서 죽어가는 미물까지도 저버리지 않으려는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며 "오늘 자비방생 대법회를 통해 모든 고통 받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보리심을 발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쌍계사는 8월 30일 자비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한편, 쌍계사는 1992년부터 하안거 해제 후 본말사가 함께 자비방생 대법회를 봉행해 왔다.

하성미 기자

부산파라미타 제1회 어울림한마당 개최

9월 12일 온천천시민공원에서

청소년의 바른 문화 선도를 위해 부산 파라미타가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제1회 연제구청소년어울림한마당' 을 9월 12일 오전 10시 온천천시민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동여자중학교, 부산정보고등학교, 여명 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토현중학교 등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어울림 한마당은 학생들의 학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로 직접 준비한 공연과 부스 체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동여자중학교 레드홀 댄스, 토현중학교 핑거스타일 공연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컵쌓기 대회 등이 진행되며, '오늘의 문화존 HOT 스타 수여식' 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학생들이 준비한 부스체험 코너는 매듭공예, 전통차 다도, 버튼 만들기, EM 비누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파라미타협회는 사경을 이용한 족자 만들기, 드립커피, 비누 클레어 등 활동 부스를 함께 운영하며 행사를 지원한다.

백명숙 협회장은 "청소년들이 바른 문화를 나누고 건전한 취미를 갖게 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연구원, 불교아카데미 목요강좌

9월 17일~11월 5일 '중론 입문' 강의

현대불교연구원(원장 무관)은 '2015년 불교아카데미 목요강좌' 를 9월 17일~11월 5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연구원 강의실에서 연다. 이번 강좌의 제목은 '중론입문' 이며 강사는 부산대 박용주 교수가 나선다.

강의 내용은 △투명인간 나가르주나가 부르는 중심의 노래: 나가르주나의 생애와 〈중론〉소개 △윤회를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 카뮈의 반항, 니체의 긍정 그리고 불교의 깨달음 △불교의 사연(四緣)과 하이데거의 사방세계 △제논의 운동부정과 〈중론〉의 운동부정 △눈은 눈을 볼 수 있는가 △〈중론〉의 파사논법과 데리다의 해체 △변증법과 〈중론〉의 논리 △레비나스의 윤리와 공성의 윤리 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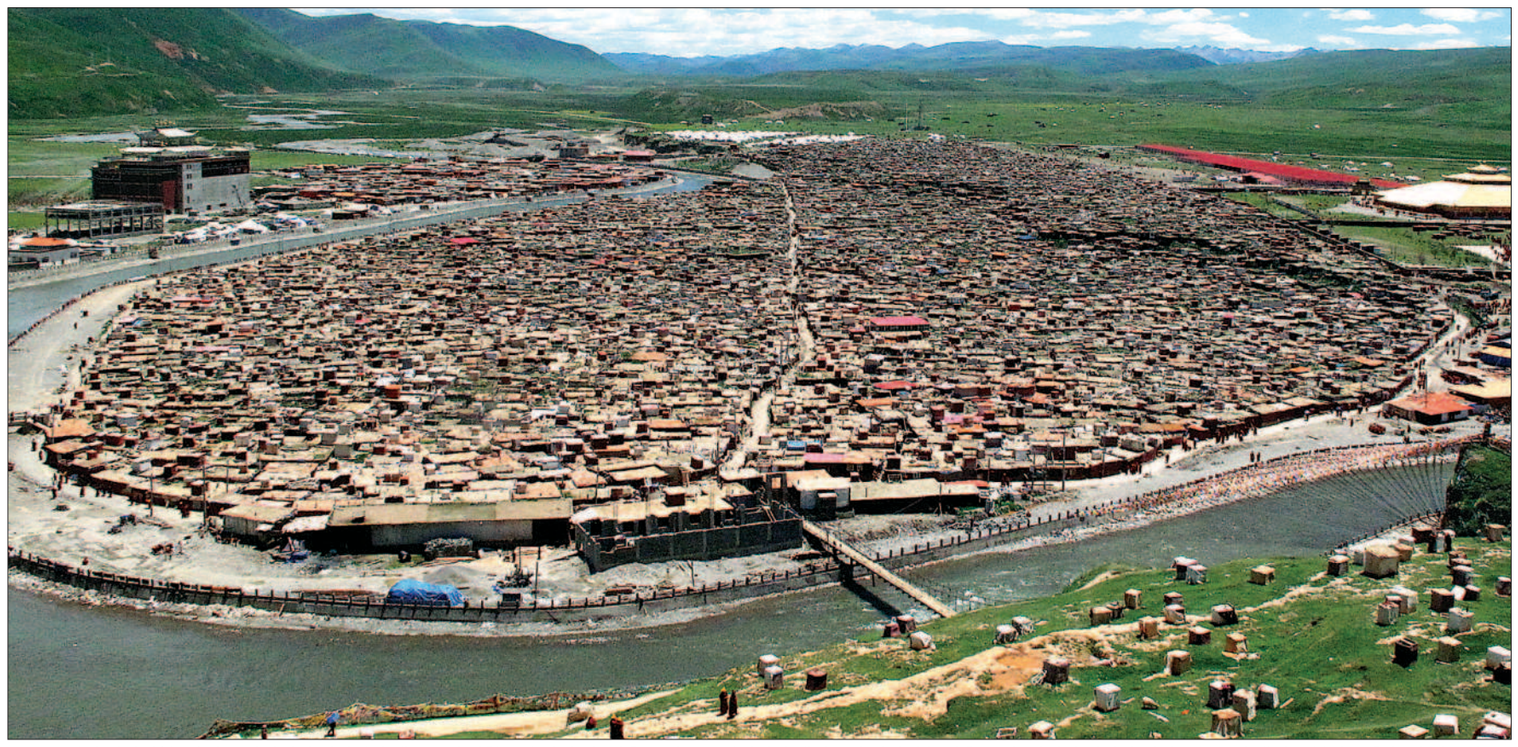
현대불교연구원은 "오묘한 〈중론〉의 논리는 자칫 궤변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서양의 정상급 철학자들과 함께 펼쳐본 〈중론〉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또한 난해한〈중론〉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회화, 사진, 영화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제시된 이미지들은 내용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051)914-2539

하성미 기자



하늘 가까이 맞닿은 수행공동체를 만나다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 동티베트를 가다 – ④ 야칭스


중국 쓰촨성 바이위(白玉)현 고산지대에 자리한 수행공동체 야칭스의 전경. 수 많은 쪽방으로 이뤄진 수행자들의 거처가 눈길을 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 수행과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중국 쓰촨 일원=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명불학원에서 야칭스로 넘어가는 길은 험로와 평준한 길의 반복이다. 고산 증세를 호소하는 인원도 간간히 나타나기도 했다. 해발 5000m를 넘는 준령을 넘어야 숨어 있는 수행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이 야칭스(亞青寺)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험한 이동 경로보다 순례단에게 더 크게 다가온 장애물은 중국의 공안이었다.

야칭스로 들어가 위한 초입에서부터 중국 공안들이 순례단을 제지했다. 당시 티베트와 동티베트는 달라이라마 생신을 전후해 모두 큰 법회를 예정 중이었다. 실제 순례 기간 중 아비장족자치주 대다수 지역은 인터넷과 해외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법회 기간 중 외부와의 연락을 원천 차단했다는 현지인에게 듣기도 했다.

야칭스 순례 동안 중국 공안은 순례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사진촬영의 경우 원경(遠境)과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을 제외하면 허락되지 않았고, 야칭스의 수행자들에게는 말을 걸어볼 수 도 없었다. 중국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

오로지 수행을 위해 모인 사람들

중국 공안들이 선탑을 하면서 순례단을 야칭스로 안내했다. 2006년부터 외국인에게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야칭스는 티베트 불교 종파 중 닝미파(홍모파라고 불림)에 속하는 승려들의 수행공동체이다.

1985년 라마야추 린포체가 이곳에서 사원을 세우자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승려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집단촌이 형성됐다. 지금은 비구니 7000여 명, 비구 3000여 명 등 1만 여 명이 모여 산다. 그래서 야칭스는 비구, 비구니 거주지와 사원으로 구분돼 이뤄져 있다.

그들의 개인 수행처는 대규모 난민촌을 연상시킨다. 3~4평 남짓한 판자집으로 이뤄진 이들의 수행처는 다닥다닥 붙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거주지를 야룽강이 둘러싸고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섬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리를 지나 강을 건너가면 비구니 거주지와는 달리 제법 구색을 갖추고 있는 비구의 거주지가 있다. 외벽 전체가 마니차로 되어 있는 사원과 화려한 금빛 지붕의 사원을 비롯해 거대한 파드마삼바바상도 조성돼 있다.

언덕 이곳저곳에는 한 사람이 가부좌를 틀 정도의 크기로 비닐천막과 판자로 만든 허름한 창고 같은 공간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명상과 기도를 하는 개인 수련장소이라고 했다. 매일 오전 언덕에서는 수많은 학승들이 불법을 듣고, 강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침 수행을 하며, 넓은 들판에서는 대규모 법회가 열리기도 한다.

수행자들은 철저한 수행과 교학 공부를 한다. 새벽 4시 30분부터 참선이 진행되며 7시부터는 오전 교학 강의가 이뤄진다.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방장 스님의 강의가 있고 오후부터는 법회와 오전 강의 복습, 수행이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순례단, 야칭스와 교류

조계종 순례단은 야칭스를 이끌고 있는 아송린포체를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순례단은 몸이 아픈 수행자를 위한 지원금과 합장주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1985년 라마야추가 사원 세우자
집단촌 형성… 現 1만여 명 상주
3~4평 쪽방에 살며 수행 · 공부
열악한 환경 속 티베트 불심 엿봐
中 공안 감시 심해 관제화 단면

이후 조계종 순례단은 야칭스 중심에 있는 티베트 불교를 중흥시킨 파드마삼바바상 아래에서 칠정례와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등 한국 불교 의식을 진행했다. 또한 지도법사 정우 스님의 주도로 염불과 참선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순례단 대중은 이번 순례에서 얻은 발원의 씨앗을 한국에서 여러 모습으로 승화시킬 것을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조계종 순례단은 발원문에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부처님의 심장 박동소리는 쉼없이 뛰고 있으며 그 박동소리는 이 땅에서 또 다른 화장세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화장세계에서 피어난 모든 부처님들은 홀씨되어 중생이 원하고 머무는 곳마다 당신의 힘을 응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순례자 모두는 짧은 여정 속에 많은 것을 얻어간다"면서 "이 순례길에서 얻은 씨앗들은 고향으로 품고 가서 개개인의 처소에서 수행과 정진, 신심, 회향으로 승화시킬 것을 발원한다"고 발원했다.

슬프며 아름다운 티베트 불교

오명불학원과 야칭스의 공통점은 원력으로 이뤄진 수행 공동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전통과 사상을 지켜가는 모습에는 저절로 숙연해진다. 이는 순례단 참여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순례에 참가한 상덕 스님(화방사 지역자활센터장)은 "오명불학원과 야칭스의 개인 수행처를 보면 판자촌을 연상시킬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그럼에도 수행과 경전공부에 열심인 그들을 보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불교가 어떻게 종교를 관제화 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티베트 불교를 중국 정부가 감시와 통제로 박해 아닌 박해를 하는 것을 목도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순례 참가자 도유 스님은 "5~6년 전 태국에서 열린 샤카디타 대회에 티베트 스님이 나와서 남과 북이 나눠진 한반도의 상황과 자신들의 모습이 닮아 있다며 남북통일과 티베트 독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발원했다"면서 "중국의 감시와 통제의 종교 정책이 티베트 불교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알았다. 그들의 불교가 슬프도록 아름답다"고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야칭스를 돌아 나오는 길, 경전이 쓰여진 타르쵸가 산위의 바람에 나부낀다. 부처님 말씀이 온 세계에 전달되기 위한 그들의 불심은 처연하면서 장엄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원력의 힘이다. 원력이 모이면 현실이 된다.

하늘과 맞닿은 수행처 야칭스는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 스님들이 야칭스가 내려보이는 구릉위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


야칭스의 쪽방들. 3~4평 남짓한 곳에서 학인들이 기거하며 수행을 한다.


닝마파 비구니 스님들이 법당 주위를 꽃으로 장엄하고 있다.


오체투지를 수련하고 있는 비구 학인들의 모습.


야칭스 학인들의 교재. 학인들은 새벽 4시부터 일과를 시작해 수행과 공부를 한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이 운동의 창시자는 폐결핵으로 한쪽 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을 기다리다가 「발끝치기운동」으로 살아난 후 「척추운동」, 「골반운동」, 「통증자가치유법」, 「엉덩이치기」, 「기지개운동」 시리즈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골격이 삐뚤어져 오는 병은 골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료강좌 안내★ ★무료체험★

※ 책을 구입하시면 「무료강좌권」과 「무료체험권」을 보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퇴행성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삐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자극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법 수록
- 악어가죽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건강 증진하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3,000원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TV조선에서 방영한 발끝치기운동법 수록!

좋다는 것 다 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증상이 계속 되는 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고 오셔서 딱 한번만 체험해보면 전신에 상쾌함을 느끼시게 되고 스스로 고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창립 22주년기념 !

독자에게 드리는 파격적 건강선물!

책 2권 (25,000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파워21봉」 1개를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500명한〉

※ 구입방법 〈토, 일요일 휴무〉

25,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전화 알려주시면 책 2권 과 「파워 21봉」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신청전화: (02)452-1445~6

계좌: 농협 1149-12-090771 이영숙

위치: 2호선 뚝섬역 5번출구 앞 우영빌딩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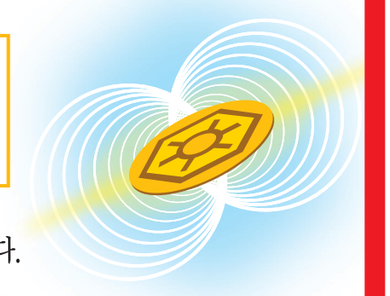
정말 신통하다

알수없는에너지-히란야의 신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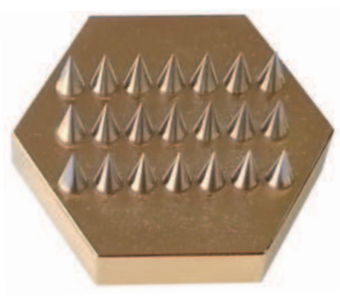
HEXAGRAM POWER SYSTEM – 氣주입기

20여년 전 수녀님들을 통해 비구니 스님께 전해져서 전국선방에 빠짐없이 보급되었고 입소문으로 수십만 명이 체험 증명한 육각성 파워 효도제품!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 불리우는 피라미드 파워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히란야의 파워의 놀라움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독자님들께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파워 21봉

- 파워봉의 위력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 한번만 사용해 보시면 바로 압니다.

~~70,000원~~

儒佛의 진리를 천착한 호남의 名師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③ 운와 김각(雲臥 金珏)

운와 김각(雲臥 金珏)은 함양출신으로, 조선 후기 호남지역의 선비였다. 그는 선암사와 대흥사에서 수행했던 해붕선사(海鵬禪師)와 초의선사(1786~1866), 그리고 호의(縞衣)스님뿐 아니라 이들의 제자와도 교유했다. 원래 그는 도가의 태식법에 밝았던 인물로 알려졌으나 대흥사 승려들과의 교유를 통해 불교뿐 아니라 차에도 관심이 컸던 듯하다. 그의 자(字)는 태화(太和)이며, 호(號)는 운엄(雲?), 운관(雲館), 운와(雲臥), 운옹(雲翁), 운암거사(雲巖居士)라 불렀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각에 관한 자료는 초의선사의 〈일지암시고(一枝菴詩稿)〉와 범해스님의 〈범해선사유고(梵海禪師遺稿)〉가 있고 그의 친필본 자료인 〈운관시축(雲館詩軸)〉이 있다.

그가 호남칠고붕(湖南七高朋)이었다는 사실은 범해스님의 시초(詩抄)를 통해 밝혀진 것인데 범해스님의 〈김운옹선생에 화답하여(和金雲翁先生)〉에는 김각이 1843년경 가을에 해남에 거주했었다(居海南癸卯秋)고 하였다.

호남의 이름난 명사들이었던 '호남칠고붕'은 노질(盧質)과 이학전(李學傳), 함양 사람 김각(金珏), 곡성 사람 홍교 심두영(汞橋 沈斗永), 전주출신 이삼만(李三晩1770~1847), 대흥사 승려 초의(草衣)스님, 선암사 승려 해붕(海鵬 ?~1826) 스님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호남지역에 거주했던 인물로, 선비와 승려들로 구성되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삼만은 조선후기 명필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홍교 심두영은 곡성 출신으로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곡성에 대환정(大還亭)을 지었으며 당대 문인으로 이름 높았던 이만용(李晩用)과 교유했고 성재 조병현(成齋趙秉鉉 1791~1849)와도 교유했다. 이런 사실은 그가 을해년(1815)에 묘군 경성(卯君景成)과 옥교 심두영(汞橋 沈斗永), 이산 이만용(此山李晩用1792~1863), 부성 이의철(蓉城李懿喆1779~?)등과 시회를 열어 연작(聯作)으로 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逢新人)〉〈成齋集〉에서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김각의 친필본 자료인 〈운관시축(雲館詩軸)〉은 초의스님이 1842년에 김각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김각과 초의스님, 그리고 김각과 교유했던 오하사(오河ª Ⅴ, 김석엄(金石ㅂ干) 등 4명의 벗들이 지은 시를 수록한 '운관사회방서(雲館四會訪序)'와 대흥사 수행승 7명에 대한 찬시(讚詩) '대둔칠사(大屯七師)' 뿐 아니라 창암 이삼만과 관련된 시 등 수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는 시축(詩軸)이다. 이 자료에는 초의스님의 명성이 호남지역에 회자되었으며, 김각과 속 깊은 우정을 나누웠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실제 김각과 승려들의 교유가 어떤 동기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운관시축(雲館詩軸)〉이 1842년 10월과 11월과 중동(仲冬)13일의 일들을 수록한 시축이고 초의가 〈운옹과 월사가 앞의 운으로 시를 지어 보내왔기에 그 운으로 시를 지어 다시 보내다(雲翁月?用前韻見寄次韻却寄)〉라는 시를 1843년경에 지었기에 김각이 초의스님을 만난 것은 1842년~1843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김각이 호남칠고붕(湖南七高朋)이었다는 사실에서 그가 대흥사 승려들과의 교유는 이미 호남에서 아름다운 고회(高會)로 회자(膾炙)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호남지역은 선비와 승려들의 교유가 빈번했던 지역이고, 유자들 중에 불교를 이해했던 층도 넓었던 듯하다. 이런 호남지역의 분위기는 다산 정약용의 전등계(傳燈契: 다산이 승려들과의 맺은 사제(師弟)관계) 인연과도 관련이 있을 듯 한데 이는 다산의 유불제자들이 스승이 강진을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유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한편 김각의 〈운관시축(雲館詩軸)〉은 유불교유(儒佛交遊)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는 두루마리 형태의 시축(詩軸)으로 세로가 24cm, 길이가 무려 5m에 이르는 장축(長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관시축(雲館詩軸)〉에 들어있는 '운관사화방서(雲館四會訪序)'에는 초의스님의 금강산 유람이 호남지역의 유생(儒生)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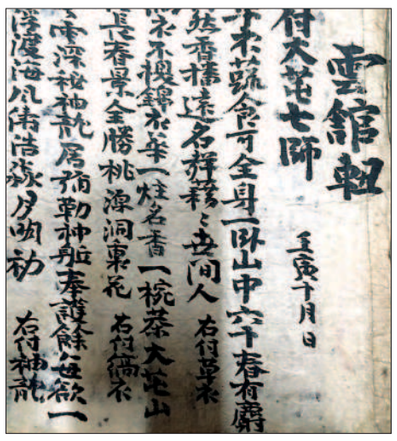
'호남칠고붕' 중 한 명으로 꼽혀
초의 · 호의 스님 등과 깊은 교류
詩會 열어 '대둔칠사' 찬시 지어
'운관사회방서' 등 문집 남기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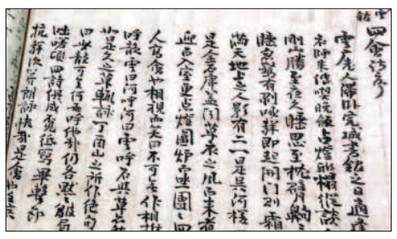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초의가 멀리서 온 것은 11월11일이다(草衣遠來十一月十一日)"라는 시문에는 초의스님과 김각이 나눈 인간적인 우정이 오롯이 드러난다. 특히 김각은 그와 교유했던 대흥사 승려들의 찬시(讚詩)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둔칠사(大屯七師)'이다. 그가 손꼽은 대흥사 승려는 초의스님, 호의스님, 수룡(袖龍)스님, 철선(鐵船)스님, 경월(鏡月)스님, 서주(犀舟)스님, 만휴(万休)스님이다. 지면관계상 초의와 호의에 대한 찬시(讚詩)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식하는 초의스님은 전신불인 듯(草衣蔬食可全身)
산중에서 육십년을 보내누나(一臥山中六十春)
사향노루의 향기는 자연히 멀리 퍼지는 법
(有麝自然香播遠)
세간에 (초의) 명성이 자자하다네(名聲藉藉世間人)

1842년 당시 초의스님의 명성은 경향에 두루 퍼져 있었다. 시문을 잘할 뿐 아니라 선리와 차에 밝았던 그는 전다박사(煎茶博士)라는 칭송되었고, 백파스님과의 선리 논쟁은 추사와 신위까지 가세하여 초의를 옹호했다. 더구나 초의의 금강산 유람은 호남의 지식인들에게 부러움과 환호를 받았던 듯하다. 그러므로 김각은 초의를 사향노루에 비유하여 그 명성이 세상에 퍼졌음을 드러냈다.

또한 엄정한 계율을 지켰던 초의스님을 "소식하는 초의스님은 전신불인 듯(草衣蔬食可全身)"하다고 했다. 호의스님은 초의스님의 사형이다. 완호스님의 제자로 초의스님만큼이나 차에 밝았던 수행자로 칭송되었던 듯하다. 김각은 호의(縞衣)에 대한 이렇게 칭송했다.


〈운암시축〉 '대둔칠사' 중에 초의와 호의의 찬시(김각 친필본, 박동춘 소장)


〈운관시축〉 '운관사회방서' (김각 친필본, 박동춘 소장)

흰 깁옷을 화려한 비단 옷으로 바꾸지 않고
(縞衣不換錦衣華)
향기로운 향, 차 한 잔뿐이라(一炷名香一椀茶)
대둔산에 장춘의 풍경은(大屯山裏長春景)
도원동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워라(全勝桃源洞裏花)

김각은 호의스님을 검소한 수행자라 여겼다. 그러므로 "흰 깁옷을 화려한 비단 옷으로 바꾸지 않고(縞衣不換錦衣華)" 수행 중에는 늘 향을 사르고 차를 즐겼다고 한 것이다. 호의스님이 차에 조예가 깊었고 차를 즐기는 다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근자에 과천 추사박물관에 전시된 정학연이 쓴 '호의다실(縞衣茶室)'이라는 편액에서도 드러난다.

예부터 대둔사 장춘동 9곡은 승경지로 소문난 곳이다. 그러므로 신선이 사는 도원동에 비유하여 늘 올곧은 수행 풍토와 다툼이 없는 곳이 바로 대둔사라 칭송하였다.

김각 또한 지방에 은둔했던 선비로 태식법(胎息法)을 초의에게 알려주었으니 그가 그리던 무릉도원은 수행승의 기상이 드높았던 대흥사라 여긴 듯하다. 따라서 김각은 그와 교유했던 대흥사 승려들과의 교유를 통해 불교를 이해했으며, 억불이 강조되던 시대에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수행승과 만나며 서로의 깊은 뜻을 나누웠던 것이다.

또 '운관에 4명이 찾아와 모임에 서문을 쓰다(雲館四會訪序)'은 초의가 김각을 찾았을 때에 4명의 뜻 맞는 문사들이 모여 시회를 열었는데 이 시회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당시의 정황을 그린 김각의 글은 정겨울 뿐 아니라 이들이 초의스님에게 보인 성의가 어떠했는지를 드러낸다. '운관사회방서(雲館四會訪序)'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남 대흥사 전경. 호남칠고붕으로 칭소 받던 유학자 김각과 초의 스님 등은 사상을 넘어서는 깊은 교류를 해왔다. 호남의 명사였던 김각은 대흥사 등 호남 사찰 스님들과의 친분이 두터웠다.

운엄노인이 완성서관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마침 초의스님을 찾아와서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등불을 밝히고 스님에게 금강산 승경지에 대해 (이야기를)듣다가 밤이 깊어지자 졸음이 와서 팔을 베고 누었다가 코를 드릉드릉 골며 잠이 들었다. 홀연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 문을 여니 서리발 같은 달빛이 하늘에 가득한데 땅 위에 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바로 오하서와 김석엄이었다. 아마 초의가 왔다는 풍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반갑게 (이들을)방으로 모시고 다시 등불을 켜고 화로 가에 빙 둘러앉으니 4인의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다. 서로 바라보고 웃다가 운에 따라 시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하고 나는 오하서를 부르고 오하서는 나를 불렀다. 김석엄과 초의 또한 그러하였다. 잠시 이처럼 하다가 초의가 문득 정유산(丁酉山:정학연)이 지은 절구를 읊조리더니 "이 운을 따라 짓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찌 다른 운을 찾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 각자 묵묵히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중얼 시를 읊조리는 사이에 네 사람의 시가 모두 완성되었다. 종이를 찾아 (지은 시를)모두 기록하였다.

雲广 老人滯臥完城書館之日 適逢草衣師來偕喫晩飯占燈聊 榻縱談金剛山勝 至夜久 睡思至枕臂齁齁而睡 忽驚有剝啄聲 卽起開門則霜月滿天地上之人影有二一 是吳河æ 一是金石斥 盖聞草衣之風而來者也迎而入室 更占燈圍炉而坐團團四人高會也 相視而笑曰不可無作相推呼韻 雲曰河 呼 河曰雲呼 石與草亦然 如是久之 草輒詠丁酉山之所作絕句曰 此韻可矣何必呼他哉 仍各默默皺眉 _唉頃四詩俱成 眞 紙寫畢

1842년 겨울 초의스님은 완성서관으로 김각을 찾았다. 이들이 늦은 저녁을 먹었다는 것으로 보아 초의가 도착한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던 듯하다. 그러기에 저녁밥을 먹은 후 곧 등불을 밝혔다고 했을 것이다. 당시 초의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승경과 그가 만났던 추사나 그의 아우 김명희 등, 경향의 이름 높은 이들과 나누웠던 정황을 들려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흥미 있는 이야기이지만 밤이 깊어지면 졸음이 오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잠시 팔을 베고 누웠던 이들이 코를 골며 잠들었다. 초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이들은 오하서와 감석엄이다. 이미 초의를 알고 있었던 유생(儒生)인 듯하다.

서리 발 같은 달빛이 하늘에 가득한 날 밤, 초의스님이 지은 시는 "서리 맺힌 밤 서늘한 냉기는 옷 속으로 파고들고(霜濃夜色冷穿衣)/ 깊은 산골, 달 아래에서 사립문을 두드리네(深巷來敲月下扉)/손에 든 문장, 득의를 보였으니(入手文章看得足/향기로운 차와 담소에 대부분 돌아가길 잊었네(茶香談例坐忘歸)"라고 하였다.

이날 밤 이들이 나눈 고담(高談)이 얼마나 진지했었기에 집으로 돌아가길 잊었다는 것일까. 시회(詩會)가 무르익고 향기로운 차마저 곁에 있었으니 득의를 드러낸 시구(詩句)를 얻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모두가 만족했던 시회(詩會)이기에 신분이나 사상적 편견은 이미 사라진 지기(知己)들이다. 그 중심에 김각이 있고 초의가 자리했으니 유불의 교유는 이처럼 담백하다. 분명 김각은 유불(儒佛)의 깊은 원리를 자유롭게 넘나든 유자(儒者)였을 것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www.shcandle.com
※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원기둥연꽃나비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29㎝)
원기둥나비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29㎝)
우리향,미연향,무향
쑥향,백목향,목향
설죽매,인삼향,대발향
수입향
원기둥금나비
밀대나비
육각초나비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라일락향
향수림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참된 가르침이 마음의 고삐 잡는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⑯ 부처님과 내기를 시작하는 손오공



그림 · 최주현

할일 없는 꿀보직 제천대성 손오공에게 그저 소일거리로 하늘나라 복숭아 밭 관리를 맡겼구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니 이때부터 큰 재앙의 씨앗이 심긴 셈이로다. 제천대성 손오공의 하늘나라 뒤집기, 맹활약이 시작되네.

복숭이 틈틈이 다 훔쳐 먹고 서왕모의 복숭아 잔치를 온통 망가뜨리고 태상노군(太上老君)의 금단을 다 훔쳐 먹고…하늘 세상 온통 시끄럽게 되었구나.

여러 하늘 장수를 출동하여 원숭이 토벌작전! 그러나 재주도 출중한 손오공 쉽게 당할 리가 없다. 웬만한 장수들로는 감당이 안 되네 이랑진군과 관세음보살, 태상노군까지 출동하여 겨우 잡았구나. 후환을 완전히 없애려 태상노군의 팔괘로에 집어넣고 불을 때었건만 결국 거기에서 탈출하여 팔괘로까지 박살내고 이제 아주 하늘 궁전 접수하여 내가 옥황상제 되겠노라 설치는구나. 감당이 안 되는 이 사태, 결국 부처님께 지원요청을 하도다.

짜잔~드디어 부처님 등장하시도다.

난동을 부리는 손오공에게 부처님 물으신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리 소란을 떠는거냐.'

손오공 당당히 대답한다.

'옥황상제는 누가 맡아 놓고 하라는 법 있느냐? 힘 있는 놈이 최고다! 그러니 힘센 내가 하늘나라 접수하여 옥황상제 하리로다.'

부처님 혀를 차신다.

'허허, 이 사람 닮았지만 아직 사람도 못된 원숭이놈아. 그 자리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로다. 무한한 세월에 훌륭한 업을 쌓아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야! 그런데 네가 세다 세다 자랑하는데 얼마나 세단 말이냐?'

손오공 으스댄다.

'내 재주야 셀 수도 없지만 일흔 두 가지의 둔갑술에, 근두운이라는 신통한 재주도 있다다. 한번 곤두쳐서 십만 팔천 리를 날아가지. 이만하면 옥황상제 할 만하지 않으냐?'

부처님 슬쩍 도발을 하신다.

'네 재주가 그러하다면 시합을 해 보자꾸나. 네가 내 손바닥을 빠져나가면 내가 책임지고 옥황상제에게 천궁을 비우라 하여 네가 접수하게끔 해 주겠노라!'

손오공 속으로 희희낙락한다.

'이런 내기에 질 리가 있나!'

덥석 미끼를 물어버리네. 그리하여 부처님과 손오공의 내기 성립! 과연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으시려는가? 어허,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못 벗어난다는 그 뻔한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결과는 알아도 과정을 모르실 거 같아라. 그건 다음 이야기로~

지금까지 좀 늑장을 부린 감이 없지 않아, 이제부터는 좀 건너 뛰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은 좀 자세히 조명하고요. 원래 이 이야기의 목적은 서유기를 빌어 불교와 세상의 이야기들을 부담 없이 또 기탄없이 해보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유기에서 일반인들은 제일 재미있어 하는 손오공의 싸움 이야기를 슬쩍 넘어갑니다요. 그래도 몇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손오공 잡으러 출동하는 여러 장수들은 모두 도교에서 받들어지는 신들입니다. 그 신들이 다 위계가 있지요. 웬만한 신들은 손오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랑진군(二郎眞君)이 나서지요. 그것도 관세음보살의 추천에 의해서요. 불교와 도교의 결합을 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랑진군이라는 신은 도교에서 관구이랑, 또는 관구신으로 불리는, 옥황상제의 조카로 상정되는 신입니다. 그리고 태상노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삼청(三淸)을 가장 높은 신으로 받듭니다. 서울에 삼청동의 그 삼청입니다. 삼청전이 있었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지요. 삼청이란 옥청(玉淸) 원시천존(元始天尊),상청(上淸) 영보천존(靈寶天尊), 태청(太淸) 도덕천존(道德天尊)을 말합니다. 이 중 태청도덕천존을 보통 태상노군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 화신이 바로 노자(老子)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자가 신격화된 것이 바로 태상노군이라 할 수 있겠네요.

손오공이 어찌나 드세던지 이랑진군이 나서도 손오공을 압도하여 궁지에 몰아넣기는 했지만 완전히 잡지는 못합니다. 이때 관세음보살과 태상노군이 나서고, 그 중에서 태상노군이 하늘에서 금강탁이라는 것을 던져 손오공 머리를 맞혀서 결국 포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괘로라 하는, 태상노군이 금단을 제련하는 단로에 집어넣어 완전히 태워 죽이려 합니다. 그렇지만 손오공이 본디 보통 원숭이인가요? 또 설정 상으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손오공은 하나만 먹어도 불로장생한다는 하늘의 복숭아를 밭떼기로 훔쳐 먹었죠? 또 신선 가운데 최고라 할 수 있는 대상노군의 금단을 싹쓸이로 훔쳐 먹었거든요. 죽으려야 죽을 수 없고, 죽이려도 죽일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그래도 태상노군의 팔괘로라면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손오공이 영민하게, 불기운을 몰아내는 바람의 방위인 손(巽)방으로 피해 있어서 재난을 면하지요. 아무튼 참 대단한 비보통(非普通) 원숭이 손오공입니다 그려~~. 그런데 바로 이 비보통 원숭이 손오공이 바로 여러분 마음을 그린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손오공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은 마음이 제 갈길을 찾지 못한 상태를 그린 것이기에,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지만요.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제 힘 믿고 천궁을 망가뜨려
"옥황상제도 힘 있는 놈이 해야"

손오공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
성공의 욕망은 어디에나 있어

지혜가 없다면 수단에 매몰돼
부처님, 가르침 주고자 내기걸어

"슬기롭고 날쌔니 고금에 누가 이에 비길 수 있으리.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니, 물속에 들어간다고 빠져 죽을까! 어진 이로 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마음먹는 대로다. 착할 땐 부처와 신선도 될 수 있고, 악할 때는 짐승으로 털 덮어 쓰고 뿔까지 내민다. 무한한 신통변화로 천궁을 소란케 하니, 뇌신과 신병도 잡지 못하는구나!"

슬그머니 손오공의 천궁 어지럽히는 대목이 무슨 의미인가를 드러내고 있죠?

마음 선하게 먹으면 부처 신선이요, 악하게 먹으면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그 힘을 다하게 되면 엄청나게 세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장들도 감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서방의 석가여래 부처님께 구원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등장하는 배경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손오공이 날뛰고, 그것을 제압하여 잡아들이려 한 싸움은 세속적인 힘의 논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어, 진리의 힘을 빌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까요? 손오공은 인간의 마음이지요. 특히 깨달으면 지혜가 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선 어리석음이라 불리는 마음의 지적(知的)인 측면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이 난동을 부리네요. 그 난동은 단순한 세속적인 힘으로 제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수단이 많지요? 세상에서 마음 다스리는 수단들만 해도 엄청 많지 않던가요? 또 술법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수많은 마음 다스리는 기술로 등장하여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던가요? '마인드 컨트롤', '두뇌 개발법' 기타등등. 혹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항의가 있을까봐 자세히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진정한 큰 길로 이어지지 못하면 모두 잡술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로는 결코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단지 수단에 불과하게 되고, 그러한 수단과 기술에 매달리면 오히려 본질을 잃어 도(道)에서는 십만 팔천 리 떨어지게 되지요. 손오공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제압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요, 참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등장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힘만 가진 마음의 난동을 온전하게 제압하는 길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밖에 없는 것이니라! 대충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요.

자~ 그래서 길들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마음 원숭이가, 참된 깨달음의 화신인 부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마음이 부처님의 참된 깨달음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법 만나자마자 거기에 감복하여 들어갈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더구나 손오공 상태는 제 힘에 취하고, 저 잘난 맛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부처님 보기를 우습게 볼 수밖에요.

부처님의 물음, 압축하면 가볍게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난리냐?"하는 물음에 저는 좀 전율이 일어났네요. "너는 무엇을 위해 그리 바쁘게 달려가고 있니?"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손오공의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살짝 서유기의 글을 의역해 볼까요?

하늘나라 영소보전(領所)은
옥황상제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더냐?
이 세상의 왕위도 남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처럼
힘 센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야하는 것이니
나에게 양도함이 마땅하리라.

참으로 대단한 기개지요? '왕과 제후 그리고 장수와 정승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王侯將相 寧有種乎)' 〈사기(史記)〉 진섭세가(陳涉世家)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이 말을 하늘의 지배자에까지 적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말 자체는 그리 나쁠 것도 없을 것 같구요. 세상의 신분이 본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 자체야 나쁠 것 없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신분질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또 바꾸려는 노력이 나쁠 것도 없고요. 세상에 신분이 아예 없다면 모를까, 자신이 좀 더 높이 올라가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꾸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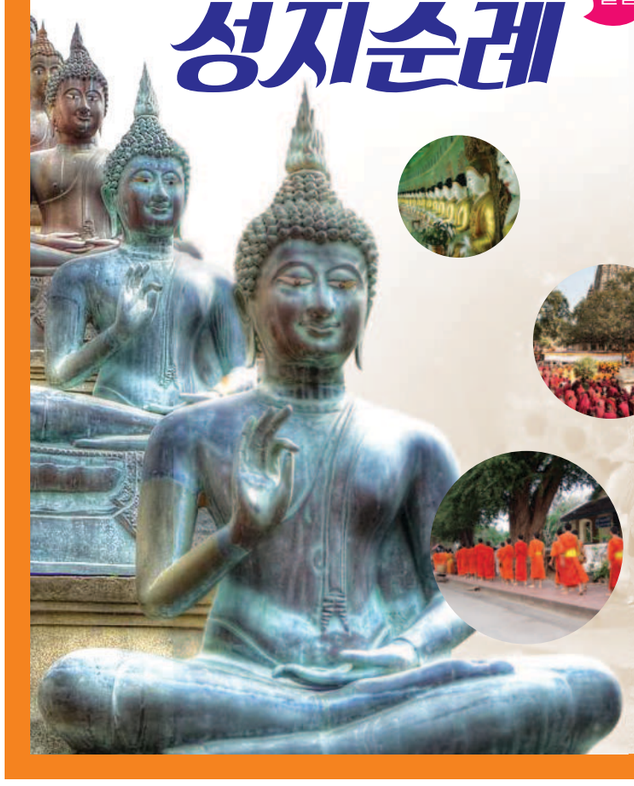
손오공은 무얼 내세우고 있지요? 힘입니다. 힘 센 자가 위에 선다는 단순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힘도 여러 종류의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단순무식한 힘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신분구조가 딱 결정되어 요지부동인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단순무식한 힘을 내세우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요. 정신 못차리는 손오공! 제 힘에 취한 손오공! 그 말로가 걱정이네요. 부처님이야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완전히 힘의 논리로 박살을 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보죠.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출발일 : 11월 13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10월 2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 일	출발일 : 11월 2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 10월 31일, 11월 21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 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 12월 5일, 11월 14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2박 (껄로/뻰띠야 동굴)	7일	출발일 : 11월 14일, 12월 16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현대사회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5. 마무리하며

저자의 말

불교는 언제나 새롭게 파악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물론 오래된 체제나 표현은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옛 모습대로 지니거나 받아들인다면 결코 올바른 불교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들 생각의 지침이 된다거나 힘이 될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법구경(法句經)〉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다."

옛 사상 전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또한 방안에 골동품을 장식하는 것과 같을지 모른다. 따라서 옛 체계나 용어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고 만다면 어떤 의미로는 지식의 악세사리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교를 현실에 맞게끔 이해하며 우리들의 의식에 비춰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불교 그 자체와 언제나 맞부딪쳐야 한다. 그러한 태도로 이 크나큰 가르침을 대할 때 불교는 비로소 신선한 생명력으로 소생되고 이해되며 새로운 힘으로서 생활의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들은 지금 현대라는 산업사회를 호흡하는 사람으로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불교로부터 어떠한 삶의 지표와 힘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을 얻기를 바란다.

역자 후기

불교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2500년의 시간적 간격, 판이한 문화 충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정녕 그 지혜와 자비의 빛이 새롭게 조명(照明)되어야 하리라는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불교 위에 현대라는 옷을 입히는 작업은 무척 까다로운 일이다.

올바르지 못한 믿음은 곧 '狂信'
후광만 남은 종교는 역할 못해
佛法에 대한 냉정한 분석 필요
불교, 시대정신 맞게 이해돼야

우선 '현대'라는 척도(尺度)가 가진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불교의 배후에 있는 그 숱한 암시와 상징을 가슴속 깊이 공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닫혀 진 마음의 창이 열리고, 두터운 편견의 벽이 부서질 때 불교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뜻 깊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많지 않은 저술 가운데 하나가 마즈다니 후미오의 〈현대불교입문〉이다. 저자는 〈동양 사상의 형성〉 〈불타(佛陀)〉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 〈불교백화(佛教百話)〉 등의 명저(名著)로 이미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저술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언어,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예지가 번뜩이는 그 해박한 사상성에 우리는 공감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원래 그는 대학에서 '불교학 개론'만을 30년 이상 강의해온 사람이다. 외길을 걸을 수 있는 학문적 풍토도 부럽지만, 그 신념 또한 존경 할만하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그 대강의 윤곽이 부각될 것이며, 불교를 친숙하게 대하던 이들에게는 사상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못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의 시각(視角)이 붓다, 그 분의 가르침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다. 불교는 석가교(釋迦教)가 아니다. 붓다는 인간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한 분이며, 괴로움의 실존(實存)을 초극(超克)한 구도(求道)의 나그네이다. 그와 같은 인생 행로가 가능했다는 것이 우리들 중생의 삶을 윤기 있게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세주(求世主)로서 군림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불교에 대한 오해와 난점(難點)이 있다. 아무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이와 같이 다양한 물음에 대해 이 책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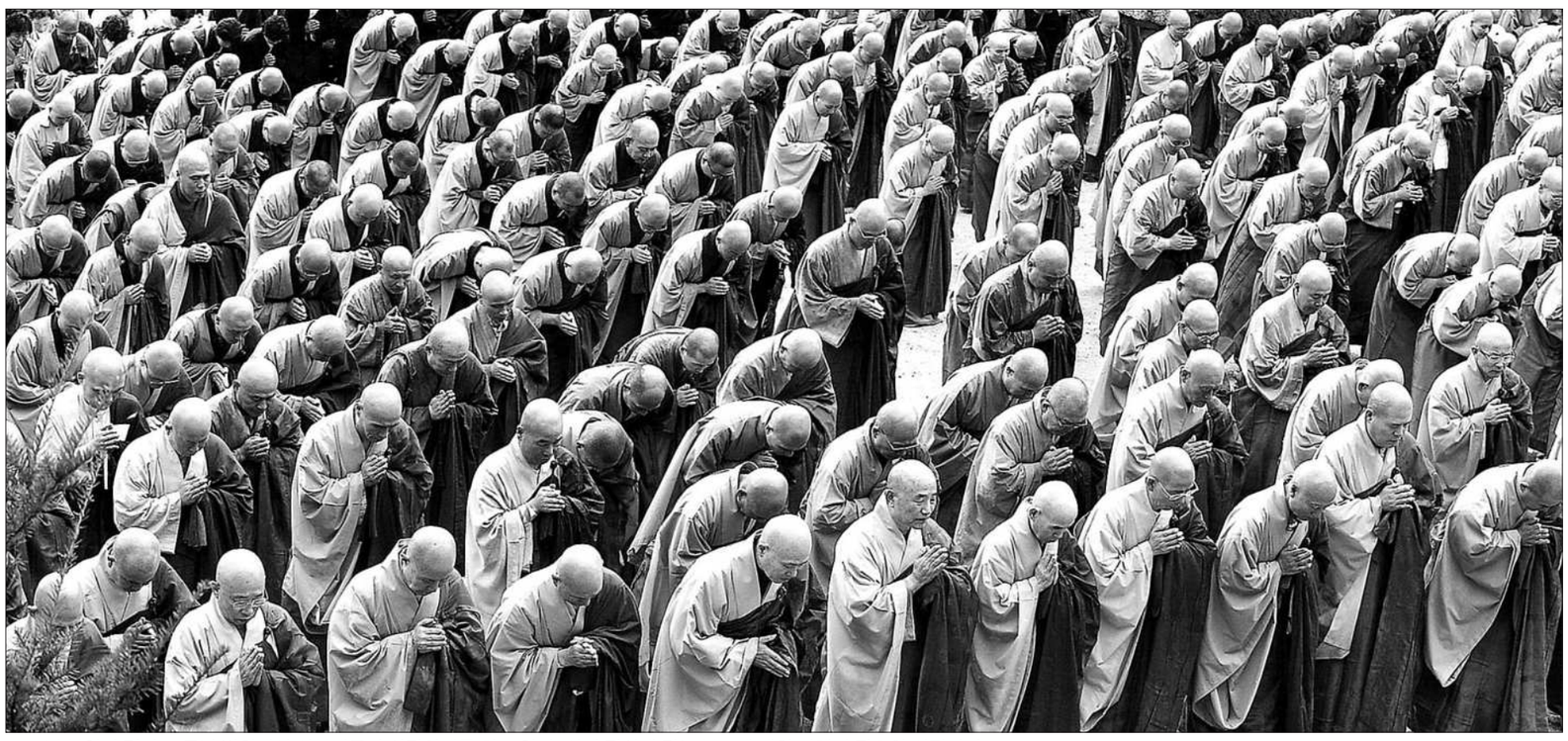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과 그 다양한 역사적 변천에 관해 산더미처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그것은 수많은 입장과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지만 진실로 그것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문제에 부딪쳤을 때 끊임없이 부처님께 묻고 해답을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붓다를 냉정한 타자(他者)로 분석해야 하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종래의 그릇된 붓다관(觀)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우리가 놓쳐 버리기 쉬웠던 그 생애의 정점(頂點)을 명확히 지적한다.

우리는 물론 마즈다니의 견해를 전적으로 추종하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의 견해에는 많은 논리적 결합이 잇고, 반박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가 앞서 언급한 '불교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자(譯者)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올바르지 못한 믿음은 광신(狂信)이며, 믿음을 갖지 못함은 지성의 오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종교는 양약(良藥)으로서가 아니라, 이른바 눈물의 후광(後光)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나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결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도전적으로 현실에 부설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생생하게 우리의 예지에 호소하며, 마음의 밑바닥을 향해 무언(無言)의 교시를 주고 있다.

이 자그마한 책을 통해 올바른 불교 이해의 한 방편이 제시될 수 있다면 역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끝〉



2007년 봉암사 결사 60주년 법회에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시대 정신에 맞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예수와 유다도 될 수 있고
꿈 깨고 다시 보면

한 젊은 화가(畵家)가 있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그의 생각은 언제나 '최후의 만찬'에 머물러 있었다. 사랑과 구원의 상징 예수와 베드로와 요한 등의 열두제자를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싶었다.

성찬식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일 년에 여러 번 부정기적으로, 가톨릭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성체성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아무튼 이 청년이 예수에 대한 영감(靈感)을 얻기 위해 여행길에 나서게 된다.

어느 한적한 시골 교회에 이르게 되는데 어스름이 내리는 초저녁 무렵의 일이었다. 자그마한 시골 교회 안에서 한 젊은이가 무릎 꿇은 자세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어두워지는 유리창을 통해 본 그의 모습은 성자(聖者)의 모습 그 자체였다. 기도하던 젊은이가 밖으로 나오자 통성명을 하게 된다. 화가는 그에게 스케치 대가로 약간의 모델료를 주려 했으나, 그는 사양하며 잔잔한 미소와 함께 떠나갔다.

꿈 속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육도윤회가 있었는데(夢裏明明有六趣), 깨달음을 이룬 후 모든 게 비고 비어 삼천대천세계마저 없구나(覺後空空無大千). 육조 혜능의 제자인 영가 스님의 게송이다.

깨닫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 그 경계를 나타낸 글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존재이다. 어딘가에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꿈꾸게 되고, 현생(現生)의 매듭을 내생(來生)에 가서라도 풀려고 한다. 막연하게나마 사후(死後) 세계를 믿게 되고, 육도윤회(六途輪廻)에서 위안마저 얻게 된다. 뜻대로 되는 일이 줄어들수록 전생(前生)의 업(業)을 떠올리게 되고 정해진 운명을 믿게 된다.

하여 이들이 있어 종교는 성업(盛業)중이고, 신앙은 가지를 더해 뿌리를 깊게 내린다. 그리하여 배고픈 신부(神父)없고, 가난한 목사(牧師)없으며, 주머니 빈 승려(僧侶)가 없는 것이다.

천국도 지옥도 내 스스로 만든다
만일 자유가 그립다면 우선 비워라

예수의 얼굴을 화폭에 옮긴 그 화가는 다시 길거리를 헤매게 된다. 가롯 유다의 얼굴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늦은 밤 가로등도 없는 변두리 골목길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큰소리치며 토악질을 해대고 있었다. 머릿결은 헝클어진 채 초췌한 모습으로 바지를 내려 노상 방뇨까지 하고 있는, 있는 그대로 찾아 헤맨 유다 그 자체였다. 하여 화가는 술주정뱅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자기는 화가이고 이름은 레오나르도다빈치라고. 그리고 스케치 대가로 모델료를 지불했다. 그러자 술주정꾼이 하는 소리다. "이왕 모델료를 주려거든 예수를 데생한 예전의 밀린 돈까지 주고 가시지."

하여 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다빈치는 예수의 얼굴도 유다의 얼굴도 완성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상징인 예수도 될 수 있고, 배반의 상징인 유다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살해당한다 해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새벽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하질 않았던가.

우리는 예수도, 유다도, 베드로도 될 수 있다. 천국의 삶, 지옥의 삶도 내 스스로 선택해 만들어가는 삶일 테니까.

일부 성직자의 눈에는 신도들이 먹이로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부모도 마다하고 떠나 온 승려가 신도 생일을 기억하고 전화질을 해대거나 신도를 성도(聖徒)라고 부추기며 주판알만 굴리는 목사도 수두룩할 테니까.

그러나 깨달음을 이루고 보니 모두 다 부질없는, 집착할게 없는, 비고 비어 삼천대천세계마저 비고 없음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 속박에서 해탈로 얽매임에서 자유로, 이르는 곳마다 세상의 중심이며 날마다 좋은날이 되는 것이다. 극락도 지옥도 천사와 악마도, 말솜씨 좋은 신부와 목사, 승려들의 도움 따윈 벗어 던진 지 이미 오래이다.

집착이 없어 편안하고 무소유(無所有) 삶이라서 행복하다. 오늘은 오늘로서 오늘이 중요할 뿐 내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어 넉넉하다. 각후공공무대천(覺後空空無大千)은 깨달음을 이룬 자유인이 거침없는 노랫가락이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他人)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안(開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자유가 그립거든 우선 놓고 비워야 할 터이다.

꿈 깨고 다시 보면 세상은 또 다른 세상으로 환히 열려 있을 테니까.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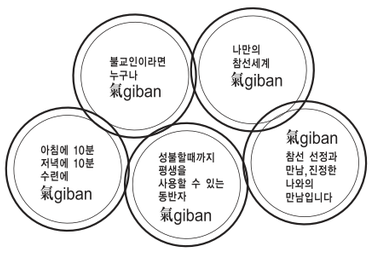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자본주의 시대 '돈과 전쟁' 불교서 해법 찾다

"돈은 현대사회 불가피한 조건"
돈 의미 바로 봐야 종속 안 돼
'돈=만능 해결책' 생각 버려야
환상 극복에 불교 도움 될 것


로이터통신이 8월 25일 '불교와 돈' 을 주제로 에단 닉턴(Ethan Nichtern) 작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출처=Ethan Nichtern 공식홈페이지

美 에단 닉턴, 로이터통신과 '불교와 돈' 주제로 대담
명상·불교심리학 강연하며 불법 '홍포'… 6월 책도 출간

현대 사회의 큰 줄기인 자본주의는 경제적 이익, 즉 자본(돈)을 늘리는 데 주목한다. 반면 불교는 돈이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또한 진정한 행복의 길도 아니라고 가르친다. 이는 불교가 자본의 담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 불교계의 지성으로 꼽히는 에단 닉턴(Ethan Nichtern) 작가는 이를 '잘못된 통념' 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이 8월 25일 '불교와 돈' 을 주제로 에단 닉턴(Ethan Nichtern) 작가와의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에단 닉턴는 "돈은 대부분 근심과 스트레스의 이유가 되지만 현대 사회의 불가피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에단의 말처럼 우리는 결코 자본과 결별할 수 없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는 돈에 종속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돈이 생산-소비-공유되는 흐름을 가늠하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단은 "예산을 세우고 운영하는 규칙을 세우는 것도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런 방편 속에 '자비와 연민' 과 같은 불교적 덕목을 심는다면 돈에 종속되지 않으며 공존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티베트 불교를 전공한 에단은 뉴욕을 중심으로 '명상과 불교 심리학' 을 소재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가 지난 6월 펴낸 《The Road Home(집으로 가는 길)》은 뉴요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널리 읽히고 있다. 이 책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상에 지친 뉴요커 여성이 자신의 불성을 찾아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의 웨스트사이드(West Side)와 이스트빌리지(East Village)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현대 사회에서 돈의 의미와 그 쓰임' 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다"는 에단은 "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돈을 벌고 지키는데 집착한다"며 "이는 우리가 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 해법을 찾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에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에 관해 이중성을 보인다. 모든 문제와 그 해법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돈과의 균형 찾는 방법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돈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만들고 그 환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듯하다"는 에단은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 이외에 무엇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우리의 삶에서 돈이 끼어들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에단은 돈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는 방편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돈은 처음에는 '금' 이었고 다시 '종이' 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파일의 '숫자' 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실물' 이었던 돈이 이제는 '관념' 이 되어버렸다.

에단은 "우리는 그 관념에 의존한 채 점차 자신의 정체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 같다"며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불교적 가르침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그렇다면 돈을 긍정적인 삶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 에단은 '교환' 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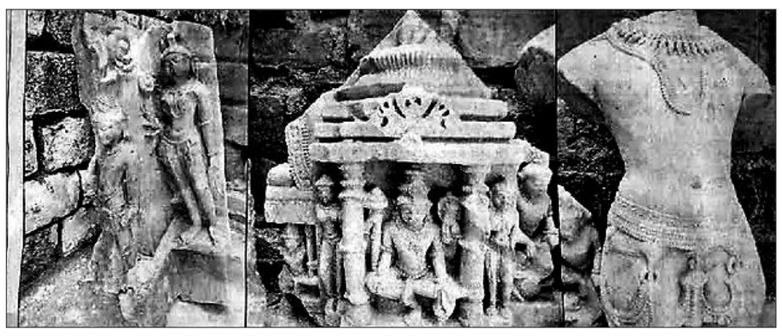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있다면 그는 분명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돈은 쓸모가 없다"고 전제한 에단은 "개인의 계발을 중시하는 불교는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며 "자신을 계발하면 돈의 역할 역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돈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에단 닉턴은 일상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자비와 연민' 에 주목하고 있다"며 '돈과 불교' 를 주제로 한 에단 닉턴과의 대담을 정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관념화 된 돈의 의미와 쓰임을 고민하기 보다는 불교적 사유를 나침반으로 삼아 돈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스스로 그 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2C 쿠샨왕조 '거대 부처 조각상' 출토

8월 31일 인도 마인푸리 지역 개인 농장서 발견
머리 없는 부처조각상 외 유물 11점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마인푸리(Mainpuri) 지역 괄토리(Gwaltoli) 마을에 위치한 마노이 야다브(Manoj Yadav · 남)씨 개인 소유 농장에서 약 100kg 가량 무게의 머리가 없는 부처 조각상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불교 유물 11점이 발견됐다. 사진출처=TOI

인도 한 마을의 텃밭에서 2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물이 다량 출토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The Times of India' (이하 TOI) 9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마인푸리(Mainpuri) 지역서 마을 주민들이 농장서 밭을 일구다 석가모니 부처 조각상을 발굴했다. TOI는 "8월 31일(현지 시간) 마인푸리 지역의 괄토리(Gwaltoli) 마을에 위치한 마노이 야다브(Manoj Yadav · 남)씨 개인 소유 농장에서 약 100kg 가량 무게의 머리가 없는 부처 조각상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불교 유물 11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물들은 카니슈카(2세기 쿠샨 왕조의 제3대 왕) 왕조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쵸드리 차란 싱 대학원 부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괄토리 마을로부터 약 1km 떨어진 아쇼리(Asyoli) 마을서 고대 시바신 조각상이 발견됐는데 또다시 쿠산 왕조 유물이 출토된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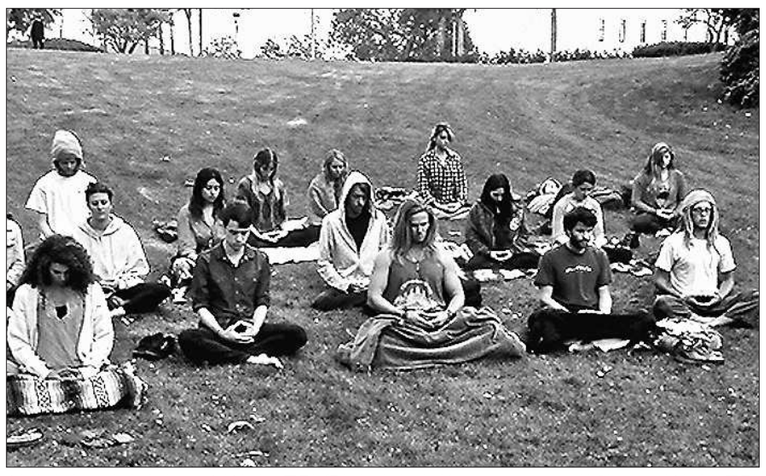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은 유물 11점 중 머리가 없는 부처상을 나무 아래에 두고 숭배해왔다. 하지만 이 부처상을 제외한 나머지 유물들 중 몇 점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도난당했다.

이에 대해 인도 경찰 당국은 "출토품들의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 문화부 산하 인도국립고고학조사단(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1일 TOI를 통해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샌디에이고大 첫 '불교사교클럽' 개설

제프 즈로트닉 법사와 재학생 합심해 9월 중 개설
男 델타베타세타 · 女 델타베타타우 따로 결성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불교남성사교클럽 '델타 베타 세타(Delta Beta Theta)' 와 불교여성사교클럽 '델타 베타 타우(Delta Beta Tau)' 가 9월 중 결성될 예정이다. 이에 제프 즈로트닉 법사를 비롯한 재학생들은 캠퍼스서 2차례 대중명상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불교사교클럽이 열린다.

'Daily Aztec' 는 8월 28일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첫 남 · 여 불교사교클럽이 각각 결성된다"며 "불교남성사교클럽 '델타 베타 세타(Delta Beta Theta)' 와 불교여성사교클럽 '델타 베타 타우(Delta Beta Tau)' 가 9월 중 캠퍼스에서 첫 선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학생 에비 커벤츠(Abby Cervantes · 3학년)와 그의 스승 제프 즈로트닉(Jeff Zlotnik) 법사가 준비하는 불교사교클럽은 이미 재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캠퍼스에서 2차례 대중 명상을 선보인 바 있으며, 당시 다른 학생들의 이목을 잡는데 주효했기 때문이다.

에비 커벤츠는 "대중 명상으로도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 전단을 나눠주는 등 불교사교클럽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9월 중 공식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사교클럽 결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제프 즈로트닉는 샌디에이고에서 '달마범즈(Dharma Bums) 사원' 을 운영하는 재가법사로 과거 애리조나 대학의 재학시절 남성사교클럽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프 즈로트닉 법사는 "애리조나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 대만에서 유학 온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이 캠퍼스 선후배에게 보여준 자비와 연민의 가치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며 "그것이 단초가 되어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사교클럽을 결성했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프 즈로트닉 법사는 졸업 후 대만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2003년 미국으로 돌아와 지도법사로서 불교 포교에 매진했다. 샌디에이고 대학 인근에 '달마 범즈 사원' 을 개원한 것은 그로부터 7년 후이다.

제프 즈로트닉 법사는 "자비와 연민이야 말로 대학 캠퍼스에서 꼭 필요할 덕목" 이라고 강조하고 "두 불교사교클럽이 샌디에이고 대학의 공동체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다른 대학에도 모범이 되길 바란다." 고 기대를 모았다.

제프 법사에 따르면 남 · 여 불교사교클럽은 보살을 서원하며 관대, 도덕, 인내, 근면, 집중력, 지혜를 실천 강령으로 삼고 있다. 즉, 파라미타의 서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관대, 도덕, 인내, 근면, 집중력, 지혜를 실천해 보살을 서원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2차 대중명상 선보여 '호응'
캠퍼스서 전단 돌리며 홍보
제프 법사 대학시절 경험 토대
"자비 · 연민 대학생에 꼭 필요"

한편 'Daily Aztec' 는 샌디에이고 대학의 남 · 여 불교사교클럽 결성에는 아시아연구소를 맡고 있는 산드라 웨렉코(Sandra Wawrytko) 교수도 적극 돕고 있고 전했다.

"제프 법사의 노력이 대학의 영성을 높여줄 것" 이라는 산드라 웨렉코 교수는 "대학은 다양성에서 출발해 소통으로 발전하는 곳" 이라며 "이런 점에서도 제프 법사가 추진하고 있는 불교사교클럽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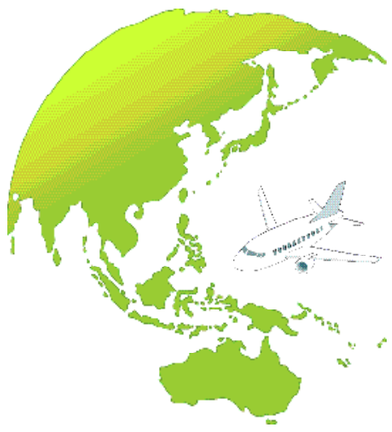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4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 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 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냥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저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맹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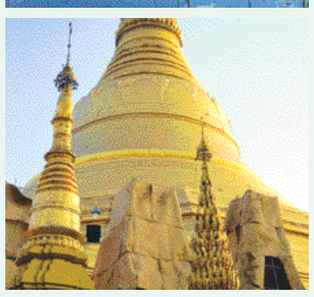
제 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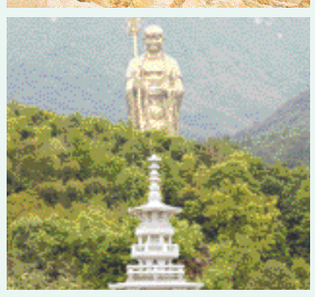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챠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혜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 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 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혜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위대한 유산 '불복장' 의식, 영상으로 만난다

BTN 개국 20주년 맞아 HD 특집다큐 '은밀한 의식, 불복장' 방송

천년동안 이어져온 한국불교의 비밀의식,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불복장 의식 전 과정이 HD영상으로 공개된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개국 20주년 특집으로 '불복장'을 주제로 한 2부작 다큐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을 제작 방송한다.

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불상이 성스러운 예배대상으로 태어나는 불복장의식은 불교의 은밀한 의식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복장흔적이 발견된 일이 있지만 단순히 오장육부를 상징하는 물목정도다. 그러나 한국의 불복장 의식은 물목의 의미와 상징은 물론, 복잡한 의식의 절차와 까다로운 물목의 준비과정까지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이다.

BTN은 "불복장 의식은 중생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일반신도는 물론 스님들도 쉽게 볼 수 없는 비밀의식이었다. 소수의 율사스님들에 의해 스승에서 제자로 전승되어 온 소중한 한국불교의 무형문화재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불복장의 의미를 다룬 정도의 방송이 전파를 탄 적은 있지만 불복장 전 과정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이번에 제작된 2부작 다큐멘터리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HD영상으로 담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1부 '천년을 이어온 발원' 편에서는 국보 제58호인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을 비롯한 국보 및 보물 부처님의 과학적인 문화재보존처리 과정과 이운과정, 불복장 의식 때 납입될 복장물목들과 그 의미를 소개해 문화재불상이 재탄생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준다.

복장 의식은 불상의 복장(배)에 생명력을 상징하는 갖가지 물건을 집어넣는 의식이다.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면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후령통을 제작해 불상 안에 납입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비롯해 부처님의 마음인 무공심주와 심장에 해당하는 오보병을 넣는데 오보병은 오곡이라 하여 다섯 가지 곡식을 비롯해 오약 오향 등 65가지 물목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불복장 의식의 바탕이 되는 '조상경(造像經)'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조상경은 대일경과 금강정경 등 밀교경전에서 나온 불상조성관련 부분만을 모아 하나의 경전으로 집대성한 것인데, 한국에서 편찬된 불상관련 경전이다.

조상경에는 복장물목뿐 아니라 의식을 진행하는 복장 아사리 스님이 마음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의식을 진행해야하는지 등 기본자세에서 계절별로 물목을 준비하는 과정, 복장단을 설치하고 의식을 진행하는 순서, 오보병의 65가지 물목과 납입순서, 한 가지 물목을 납입할 때마다 108번 봉송하는 진언 등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2부 '성스러운 탄생' 편에서는 실제로 오보병을 조성하고 불상내부에 후령통을 납입하는 불복장의식 과정과 불복장의식 후 행해지는 점안의식을 통해 불상이 예배와 공경의 대상인 부처님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대한불교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회장 무관 스님은 "불복장 의식은 보이는 대로 상에 잡히고 집착하는 중생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징의 세계다. 또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불상이 위신력을 갖춘 법신불로 태어나는 성스러운 탄생의식이기 때문에 삿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다. 철저한 결계와 정화의식 속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한밤중에 의식을 행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비밀의식으로 천년 이상 은밀히 이어져오게 되었다"며 불복장을 설명한다.

장곡사 불상 재탄생 과정부터
의식 과정·복장물목 의미 '한눈에'
유형무형 결합된 위대한 유산 기록
12일 밤 9시부터 2부 연속 방송


BTN불교TV가 개국 20주년 특집으로 2부작 다큐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을 제작 방송한다. 복장의식 중 복장물 납입 모습.

소수의 율사스님들에 의해 비밀리에 이어져 온 불복장 의식은 현재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있는 한국불교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지만 그 맥이 끊길지도 모를 위기에 놓여있다. 제작을 담당한 윤정현 기획제작국 부국장은 "제작하는 내내 복장 의식을 단순히 영상으로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느꼈던 그 울림을 시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간소화되고 자칫 끊어질 수도 있었던 복장의식이 유형과 무형이 제대로 결합된 한국불교문화의 위대한 유산으로 자리 잡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조금의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제작 의도를 밝혔다.

BTN 개국 20주년 특집 '은밀한 의식, 불복장 2부작'은 9월 12일 밤 9시에 1부, 10시에 2부가 연속 방송된다. 재방송은 9월 13일 오전 11시 30분, 12시 30분에 1, 2부가 연속 방송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이산 탑사 전주분원 실상사 '실상밴드' 창단

9월 12일 나누우리 환아돕기 콘서트서 첫 공연


마이산 탑사 전주분원 실상사의 실상밴드가 9월 12일 나누우리 콘서트서 첫공연을 갖는다.

마이산 탑사 전주분원 실상사 법당은 요즘 색소폰 소리와 난타 북소리로 들썩인다. 바로 9월부터 본격적인 공연에 나서는 실상밴드의 연습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실상사 신도들로 이루어진 실상밴드는 올 1월부터 색소폰과 난타를 연습해왔다. 실상사 회주 진성 스님은 "98년부터 시민선방을 운영해왔는데 신도들과 상담하면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년 전부터는 교도소 등에 봉사활동을 이어왔는데 이번 실상밴드는 좀더 발전된 형태로 신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스스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46세부터 72세까지의 15명의 신도들로 구성된 밴드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스님의 지도에 따라 악기를 배우고 있다. 진성 스님은 대학시절 클라리넷을 연주했지만 손가락 부상으로 수술을 하면서 연주를 그만 두었고 삶의 문제를 고민하던 중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스님과 함께 매주 월수금 3회씩 연습을 이어가고 있는 실상밴드는 9월 12일 나누우리 '환아돕기 희망나눔의 자선음악회'의 게스트로 나서며 첫 공연을 갖는다.

실상밴드는 이번 공연에서 어머니의 다듬이 방망이 소리를 난타공연으로 승화시킨 '디딤소리'와 즐거운 나의 집, 돌아와요 부산항에, 누이 등의 색소폰 연주 등을 선보인다.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김경은(52) 보살은 "50대는 우울증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인데 봉사하며 악기연주까지 하니 삶이 너무 즐겁다. 첫 공연을 앞두고 떨리기도 하지만 마음을 편히 갖고 연습에 임하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난타를 연주하는 박성균(56) 보살은 "연주를 하며 가슴이 뻥 뚫리는듯 시원함을 느꼈다. 앞으로 이런 느낌들을 무대에서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기쁨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실상밴드는 교도소 양로원 요양원 복지관 군부대 등 음악이 필요한 것이며 어디든 달려가 음식을 나누며 재능기부를 펼칠 예정이다. 진성 스님은 "이미 9월부터 5개 정도의 공연이 잡혀 있을 정도로 스케줄이 바쁘다. 앞으로 자비를 실천하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실상밴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실상사 밴드가 첫 무대에 오르는 (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 '환아돕기 희망나눔의 자선음악회'는 9월 12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청소년 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혜인 정사 이랑 다례회의 다도 시연, 소고춤, 테너 이계향의 독창 등과 함께 실상밴드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나누우리가 선정한 환아를 음악회에 초청 치료비를 전달하는 시간도 갖는다. 정혜숙 기자

연자오곡밥 탄수화물 섭취 줄여 당뇨 예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당뇨 환자 위한 사찰음식 안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당뇨 환자를 위한 사찰음식 메뉴로 연자오곡밥, 시래기 된장찌개, 묵은 나물무침을 소개했다.

찹쌀, 차수수, 팥, 차조, 콩 등 다섯 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지은 연자오곡밥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하다. '연자'는 특히 위장을 편안하게 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식재료다. 불교경전에서는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때 찹쌀과 연자로 죽을 쑤어 먹으면 좋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찰식 시래기 된장찌개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래기와 무, 버섯가루, 제피가루를 넣고 개운하게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시래기는 된장과 궁합이 잘 맞으며, 무에 든 식이섬유는 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한다. 제피는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 매운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양념으로 스님들은 해독, 진통약 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취나물, 고사리, 토란줄기, 가지, 시래기, 호박고지, 숙주, 시금치 등으로 다양한 맛과 향의 묵은 나물무침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봄, 여름에 채취하여 갈무리해 둔 묵은 나물에는 각 계절의 영양성분이 담겨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연자오곡밥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

이밖에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제철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산사(山寺)의 조리법은 사찰음식 공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혜숙 기자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송암 김서경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 實戰四柱 강좌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강의일시 : 매주 월~화, 목~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수 강 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질병,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매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붕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부적기름의 혁명
松송 根근 油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박명숙 작가가 오스트리아 갤러리 암파크에서 9월 14일~18일 '한국의 미' 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다. 운주사를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 '마음'

무심으로 빚은 자연의 美 유럽서 선보여

박명숙 작가, 9월 14일~18일 오스트리아서 도예전



전남 화순에 위치한 도예가 박명숙 작가〈사진〉의 작업실에서는 쌍봉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20여년 108배 수행을 하고 있는 그는 아침마다 쌍봉사에 가서 기도를 끝내고 돌아와 〈전심법요〉 등 법문 CD를 틀어 놓고 작업에 임한다. 그렇게 불심의 마음으로 흙을 빚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형상들이 무심으로 빚어지면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의도성(?)이 없다. 그저 마음 가는대로 손 가는 대로 툭툭 무심으로 빚다보면 어느새 그의 손끝에서는 연화장 세계가 펼쳐진다.

박명숙 작가가 오스트리아 갤러리 암파크에서 9월 14일~18일 '한국의 미' 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연꽃과 연잎을 주제로 하는 도자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전(항아리 입)이 두 겹, 세 겹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기존의 도예 작품들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자연 속 꽃잎이나 잎을 소재로 즐겨 삼아 왔던 작가만이 독창적으로 도전해 얻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백자의 안

화순 쌍봉사 인근 작업실서 작업

연꽃과 연잎을 주제로 12점 선봬

에만 유약을 바르고 표면은 가마의 장작불이 만들어 내는 자연색을 추구해 주목 받아왔다.

이처럼 소나무 장작 가마를 고수하고 손작업만을 추구하는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도 천연의 미를 그대로 담아냈다. 작가는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는 도자기의 종주국이며 스와르브스키 보석이 유명한 나라이기도하다. 인공적으로 세련된 보석이 유명한 나라에서 천연의 미를 강조한 제 작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다"며 전시를 여는 소감을 전했다.

작가는 앞으로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정형화된 규격에서 탈피한 작업으로 무심의 마음을 담은 작품을 빚어내고자 한다. 또한 12월 10일에는 서양화가이자 친언니인 박경숙 씨와 함께 인사아트센터에서 '연을 위한 그림과 도자기' 전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소설가 정찬주 씨의 아내이기도 한 박명숙 작가는 국영기업체 직원이었다. 천주교 신자였지만 남편을 만나 불교로 개종하고 오랜 시간 수행을 이어왔다.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10여 년 전 시작한 도자기는 운명 같은 것이었다. 조선백자의 전통을 잇는 지헌 김기철 선생의 문하에서 도자작업을 익혔고 전남도립대 도예산업디자인과에 입학해 이론을 겸비하는 등 열정을 쏟아왔다. 현재 그녀의 법명인 무량광에서 이름을 따온 '무량광도예' 를 운영하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남미 야생식물 동서양 융합 회화기법으로 탄생

정윤영 개인전 9월 11일~17일

정윤영의 '그때 그 감각, 추상(追想)하다' 가 9월 11일~17일 중구 서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며 관찰한 야생식물에 대한 경험과 기억에 대하여 이야기를 화폭에 펼쳐낸다.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국민대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정윤영은 야생 식물의 이미지를 고려불화의 채색 기법인 '배채법(背彩法)' 과 순수서양회화 방식을 접목시켜 표현해 눈길을 끈다.

작가는 "14세기 고려불화에서 가장 많이 쓰인 대표적인 채색 기법이 배채법이다. 불화에 사용되는 비단이나 모시, 분채 등의 소재를 사용해 현대 평면 회화 작품에 접목시킨 것이 이번 작업 시리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남미의 야생 식물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필선 역시 불교미술에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불교미술은 내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배채법에 서양화 기법을 도입한 정윤영 작가의 작품(부분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 · 서양의 작업 방식을 융합한 30여 작품을 통해 자전적 경험의 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02) 2273-9301

정혜숙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재미있으면서도 따뜻한 '오컬트 로맨틱극'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마흔 다섯은
귀신이 와서 서는 것이
보이는 나이

참대 밭 같이
참대 밭 같이
겨울 마늘 낼 풍기며,
처녀 귀신들이 돌아와 서는 것이
보이는 나이

귀신을 기를 만큼 지긋치는 못해도
처녀 귀신하고 상면(相面)은 되는 나이.
- 미당 서정주의 '마흔 다섯'



주인공들의 좌충우돌을 희극적으로 그린 오컬트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케이블방송 드라마치고는 시청률(7.3%)이 상당히 높았던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이 막을 내렸다. '오 나의 귀신님' 은 공중파를 포함해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흥행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오 나의 귀신님' 은 재밌다. 방송사는 '오 나의 귀신님' 의 공식 홈페이지에 드라마 장르를 '오컬트 로맨틱 코미디' 라고 써 놓았다.

'오 나의 귀신님' 의 골자는 막내 요리사인 나봉선(박보영)과 셰프인 강선우(조정식)의 러브스토리이다. 따라서 로맨틱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대단히 희극적이다. 따라서 코미디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컬트 드라마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단서는 드라마 제목에 함유돼 있다. 나봉선은 억울하게 죽은 처녀귀신인 신순애(김슬기)의 넋이 빙의됐다. 이 드라마의 재미는 1인 2역을 담당하는 박봉영의 역할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박보영은 나봉선의 역할과 신순애의 넋이 빙의된 역할을 해야 했는데, 신순애의 넋이 빙의된 역할을 할 때는 신순애의 캐릭터를 무리 없이 소화하였다.

드라마의 극적 요소를 더하는 것은 최성재(임주환)의 캐릭터이다. 처녀귀신인 신순애가 왜 죽었고, 강선우의 동생인 강은희는 왜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가 하는 문제의 열쇠도 최성재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최성재는 어린 시절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양아버지가 최성재를 파양한 이유는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동생과 차별을 받다가 파양된 경험이 있는 최성재의 마음에는 어둔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성장한 최성재는 우연히 음주단속 중에

상처 입은 영혼 서로 보듬어
사무량심(四無量心) 지니면
모든 정한 씻을 수 있어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를 만난다. 그리고 최성재는 양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하나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강은희를 차로 친다.

복잡한 심경을 지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최성재의 역할을 임주환은 무리 없이 잘 소화했다.

'오 나의 귀신님' 은 재미있으면서 따뜻함도 유지하는 드라마이다. 재미는 요리라는 시대적인 아이템을 가져왔고, 희극적인 요소를 덧씌운 데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따뜻한 정조는 상처 받은 인물 군상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오 나의 귀신님' 을 보면서 필자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떠올렸다. 사무량심이란 불교의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의 자비심을 일컫는다. 사무량심은 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 등 네 가지 무량심을 의미한다.

자무량심은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베풀어 주는 마음가짐이며, 비무량심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구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자무량심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비무량심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희무량심은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버리고 낙을 얻어 희열하게 하려는 마음가짐이며, 사무량심은 모든 중생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마음가짐이다.

사무량심은 자비를 상징하는 십일면관음의 조상(彫像)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곧 십일면관음의 11가지 모습 가운데 불면(佛面)을 제외한 10가지 모습은 이 사무량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필자가 미당 서정주의 '마흔 다섯' 을 인용한 이유도 사무량심을 지니길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흔히 나이 마흔을 불혹(不惑)이라고 한다. 그 어디에도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마흔 살이 아니라 여든 살이라고 할지라도 중도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선(善)과 악(惡), 미(美)와 추(醜), 진(眞)과 망(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양변을 여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삶이 사람의 일이듯, 죽음도 사람의 일인 것이다. 소위 '귀신' 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정한의 감정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처럼 자무량심을 지니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처럼 비무량심을 지닌다면, 모든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희무량심과 사무량심을 지닌다면 어떤 관계에서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사무량심을 지닌 사람은 세상의 모든 정한을 맑게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마흔 다섯' 에서 '처녀 귀신들이 돌아와 서는 것' 이라는 표현은 들끓는 청춘을 되돌아볼 줄 아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처 입은 타인의 가슴을 어루만질 줄 아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 불제자라면 '귀신을 기를 만큼 지긋치는 못해도, 처녀 귀신하고 상면(相面)' 은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유응오 작가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액 14,000원 (배송비 별도)
구입 054)734-1767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2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9권 출간! 수산, 분양, 섭현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8.25~2015.9.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2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3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7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8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김영사
9	감산자전	감산덕청/대성	탐구사
10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1년 365일 古典 읽으며 삶 반추하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삶의 여행자를 위한 365일
성운대사 감수
채맹화 엮음 | 조은자 번역
운주사 펴냄 | 2만 3천원



"말 한마디 참으면 재난의 뿌리가 생겨나지 않게 된다. 집착 한 번 내려 놓으면 타인과 강약을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 한 순간을 인내하면 불구덩이가 흰 연꽃연못으로 변하게 된다. 한걸음 물러나면 그것이 곧 인간세상서 자신을 수행하는 길이다."
〈불광 채근담중에서〉

동양의 대표적 명언집으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명심보감〉 〈고문진보〉 등이 있고, 서양에서는 톨스토이의 〈인생독본〉이 독보적이다. 그 외에도 〈카네기 명언집〉 등이 서구권서 유명하다. 이번에 〈삶의 여행자를 위한 365일〉을 펴낸 성운대사〈사진〉는 대만 불교계뿐만 아니라 대만 사회 각 계각층으로부터 대단히 존경받는 종교지도자요 사회지도자로서 명망이 높은 승려이다.

이 책은 어릴 때부터 중국의 문학, 철학, 종교, 시사(詩詞) 등 다양한 고전들을 닥치는 대로 섭렵해 일가를 이룬 성운대사가, 풍부한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5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불교를 포함한 동양사상의 진수를 글로 소개한 내용들로 1년 365일에 맞춰 매일 읽기 쉽게 엮었다. 여기에는 인생에 있어 독서의 중요성, 혼탁한 마음을 정화하기,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동선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쉽게 중국 고전들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음미하고 반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성운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의 긴 여정서 우리는 하루 하루, 한 달 한 달, 또 한 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오랜 여정에서 방황과 무기력,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 명예와 치욕, 칭찬과 비방, 그리고 성공의 희열과 실망의 아픔을 마주하게 될 때 이 책이 여러분에게 조그만 힘이 되기를 발원합니다."라고.

삶을 끝없는 여행길에 비유하면서, 이 기나긴 여행길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여러 상황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좋은 방법의 하나로 이 책에 실린 명사들의 명언들을 음미하라고 권한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과 작품들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종교의

동양사상 진수 매일 읽기 쉽게 재구성
성인, 정치가, 사상가 명언 집대성
동양의 유명화가, 작품 160점도 수록
중국어, 영어, 일어 등 각 언어로 번역

성인들부터 유불도의 철학자, 사상가, 정치인, 시인, 소설가, 화가 등이 시대별, 분야별로 포진돼 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붓다, 육조혜능 등 유불도의 창시자서부터 주희, 사마광, 왕안석, 유향, 한유, 임칙서, 임어당, 호적, 모택동 등에 이르는 정치 사상가들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이백, 두보, 맹호연, 왕유, 백거이, 황정견 등 중국 최고의 시인 및 문인들과 당나라 때의 오도자를 비롯해 고려불화 대가인 서구방, 현대의 유명 화가인 이소곤, 풍일음 등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유명 화가들과 서예가 등 400여 명과 그들의 작품 160여 점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성운대사의 주옥같은 글들과 빼어난 서예작품들이 군데군데 포진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1년 365일에 맞춰 명사들의 글과 관련 작품들을 계절과 시기에 따라 시사(詩詞), 가곡, 가훈, 좌우명, 권세문(勸世文), 경전과 논서 등으로 분류해 매일 한두 편씩 적절히 안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들을 매일 한두 편씩 감상하고 음미함으로써 가까이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멀리는 인생이라는 먼 여행길에 든든한 위로와 힘이 되도록 했다.

이 책의 기획자이자 감수자인 성운대사는 중국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정수를 담은 이 책을 세계 각지의 호텔이나 공공기관, 서점 등에 비치해 세계의 독자들과 만나게 한다는 야심찬 기획을 추진중이다.

이미 번체 중국어, 간체 중국어, 영어, 일어 등으로 번역돼 세계 각지서 호평 받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 책이 지니는 영향력과 가치를 웅변해 준다.

여기에 한국어로도 번역되는 이 책도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통적인 동양사상의 정수와 불교사상의 진수를 매일의 삶 속에서 무겁지 않고도 웅숭깊게 전해주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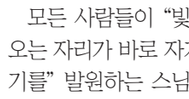
▲감수자 성운대사는?

1927년 중국 강소성 강도서 태어나, 12살에 남경 서하산서 지개 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했다. 서하율학원과 초산불학원서 불법을 공부했으며, 임제종 48대 전인이 됐다. 1949년 타이완으로 건너와 월간지 〈인생〉 〈각세순간〉 〈금일불교〉 등 불교 간행물을 편찬했다. 1967년 불광산을 창건해 '인간불교'의 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문화、교육、자선사업 등에 온 힘을 기울였다. 전 세계 200여 곳에 사찰을 건립했으며, 6개의 불교대학과 지광중학교, 보문중학교, 남화대학교, 불광대학교, 서래대학교를 설립했다. 1985년 불광산 종장직에서 물러난 뒤 전 세계를 운유하며 홍법에 힘쓰고 있다. 1995년 전인도불교대회에서 불교계의 노벨상인 불보상을 수상했다. 국제불광회 중화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세계불교도우의회 영구 명예회장을 맡아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는 물론 인간불교를 전파하는 데 큰 공덕을 쌓았고, 1백여 권의 저술은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 출간됐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빛나는 '해피불'"

빛나는 해피불

동휘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6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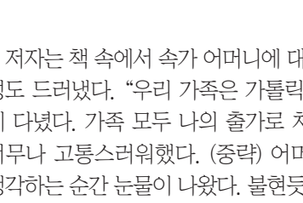
만다라는 우주의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류가 형상화한 가장 강력한 상징 중의 하나로서 특히 불교 건축물, 조각, 불화 등의 불교예술은 만다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해피불 해피만다라' '빛을 쏘다' '빛나는 해피불 만다라전' 등 여러 차례의 만다라 전시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빛나는 해피불(佛性 存在)임을 깨닫게 해 준 동휘 스님〈사진〉이 신간을 펴냈다. 제목은 〈해피만다라〉이다.

이 책 속에는 우리 모두가 빛나는 해피불, 즉 무한 능력을 가진 행복한 부처임을 알게 하고, 우주에 충만한 빛에 코드를 꽂아 숨겨진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움으로써 운명을 바꾸는 빛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님이 손수 그린 만다라 작품 30여 편과 그간의 활동을 담은 사진도 어우러져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동휘 스님은 머리말을 통해 "빛을 의식하자. 그냥 계속 햇빛, 불빛, 부처님을 생각하고 밝은 쪽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나 역시 출가 이전 어둡고 추울 때가 있었다. 나 자신이 빛으로 치유했기에 그 에너지의 힘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빛의 중심이자 빛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아차리기를" 발원하는 스님은 자기 안의 불성을 깨울 방법이 아주 쉽고 간단하다고 역설한다. 그저 빛을 의식하고 밝은 쪽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서 스님 자신의 체험담과 함께 동서양 선각자들의 일화를 밝히면서 평소 빛을 의식하고 우리 안에 내재한 빛을 끌어 쓰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현실화시켜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 있음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빛의 판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빛나는 방향인지 어두운 쪽인지 판단해서 밝은 쪽으로 취하라고 조언한다. 밝은 생각, 밝은 말만 해도 운명이 바뀐다는 스님의 에너지가 넘치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한 편 한 편 생명력 넘치는 글과 눈부신 만다라의 세계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동휘 스님은 화가인 부친에 이어 서양화를 전공하고 화가의 길을 걷다가 동학사로 출가했다. 그 후 티베트 린포체를 만나 깨달음의 경지를 형상화한 만다라를 접했다. 만다라를 통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의 세계를 만난 듯 치유의 기쁨과 지극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체험한 스님은 그 후 20여 년 동안 각국의 만다라를 수집하고 연구해 스님 자신만의 만다라 세계를 새롭게 구현했다.

우리 안에 내재한 빛 끌어 쓸 것 강조
동서양 선각자들의 일화 등 소개
만다라 수행과 인연담도 담겨져

저자는 책 속에서 속가 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드러냈다. "우리 가족은 가톨릭 성당에 다녔다. 가족 모두 나의 출가로 처음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다. (중략) 어머니를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 불현듯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도 정작 속가 어머니를 위한 기도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유아영세를 받던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출가해 한때 가족을 힘들게 한 일,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과 새롭게 시작한 기도, 갑작스러운 부친의 죽음으로 소녀가장이 된 사연, 지금은 미국에 사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종교와 공간을 뛰어넘어 빛나는해피불로 살아가는 이야기 등 스님의 내밀한 개인사도 진솔하게 그려져 더욱 흥미진진하다.

그리고 저자는 빛나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파수 에너지는 유유상종 만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내 몸 자체가 빛나고, 생각이 빛나고, 말이 빛나야 하는 것이다. 빛의 통로인 나의 몸, 그 몸을 빛나게 하는 몸과 마음의 빛을 업그레이드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이제는 빛나는 수행이 답이다."

총 세 개의 장으로 나뉘어 편집된 이 책에는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 우주의 에너지에 코드를 꽂아 운명을 바꾸는 법, 진리의 빛을 형상화한 만다라 이야기, 해피만다라 성지 조성 불사와 해피만다라 문화원 이야기, 그동안 만난 사람들과의 속 깊은 인연 이야기와 사람들을 만다라 수행으로 이끈 이야기가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담겨져 있다.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빛나면 그 빛이 빛나는 것들과 만나 더 큰 빛이 된다" "같은 생각이 같은 에너지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깊은 산의 벼랑 끝에 한 송이 꽃이 피어도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각이 빛나면 그 빛이 모든 빛나는 것들과 만나 더 큰 빛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님은 유유상종의 법칙을 거듭 강조한다.

〈빛나는 해피불-운명을 바꾸는 빛〉에는 메르스 한파로 온 나라가 움츠러들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강남구 압구정동에 새롭게 금광명경여래사를 개원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세상에 만연한 병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라면 이때 더 나서서 바른 법을 펴고 세상을 축복하고 중생을 위해서 빛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원력으로 모두가 스스로 빛나는해피불이요, 조건을 바꾸면 세상과 운명이 바뀜을 일깨워주기 위해 빛의 도량을 조성한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빛나는 에너지가 우리의 질곡진 삶과 운명을 새롭게 빛나게 변화시킬 것 같은 예감만으로도 이 책은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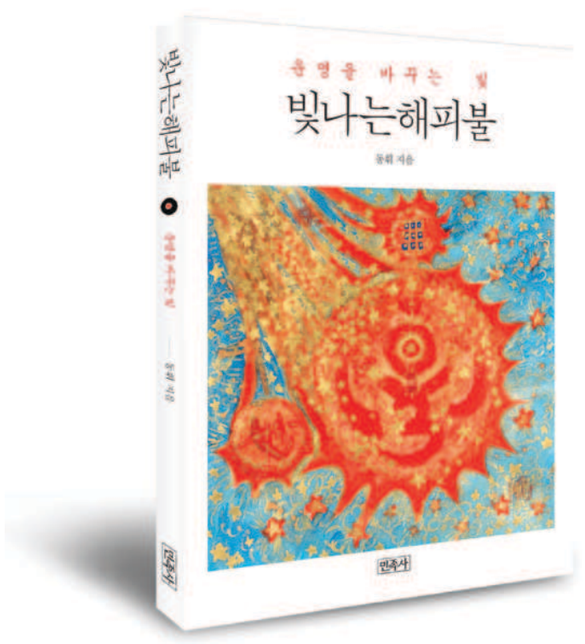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저자 동휘스님은?

스님은 1998년 수덕사 견성암서 정암스님을 은사로 입산 출가했다. 문화포교의원을 세우고 2006년 홍천 천축사 주지, 2010년 홍천 해피만다라 성지 조성 불사를 시작했다. 2011년 만다라법륜대학을 설립했으며, 2015년 서울 압구정동에 금광명경 여래사를 창건하고, 해피만다라 문화원 원장으로 세상을 향해 깨달음의 빛을 뿌리고 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이제는 빛의 시대,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한 이들에게 보내는
동휘 스님의 빛나는 희망과 행복, 성공의 메시지



우리 모두가 빛나는 해피불임을 일깨워 주는, 동휘 스님의 만다라의 세계!
그 빛나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빛을 의식하자. 그냥 계속 햇빛, 불빛, 부처님을 생각하고 밝은 쪽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나 역시 출가 이전 어둡고 추울 때가 있었다. 나 자신이 빛으로 치유했기에 그 에너지의 힘을 정말 잘 알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운명을 바꾸는 빛
빛나는해피불

동휘 스님 글 · 그림 :: 208쪽 :: 값 16,200원 :: 변형 신국판, 올 컬러 :: 민족사 펴냄

빛나는 해피불 북 콘서트
일시 2015년 9월 18일(금) 오후 2시~4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특별 출연 중견탤런트 이재용 씨의 빛나는 토크
공연 동휘 스님의 옴 퍼포먼스, 승무 등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일까?



너무 멀리서 찾지 마라

정운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협회 | 1만 3800원

불교는 신을 '믿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 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의 수행, 마음 다스리기를 강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하면 저 멀리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수행은 무슨…' 이라면서 자신의 능력을 깎아 내리기도 한다. 수행이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불교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에 따르면 불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 신자들에 비해 수행을 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는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서'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수행이 어려워서' 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책은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그렇지 않다' 고 바로잡아 주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수 아사리이며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서 오랜 강의를 한 저자 정운 스님은 우리네 삶과 수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듯이 전한다. 〈불교신문〉에 2년간 연재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던 코너 '정운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 에 게재된 수많은 글 중 독자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글 68개를 가려 뽑아 다듬고 보완한 이 책은 '수행' 이라는 말이 주는 딱딱함, 어려움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행에 대해 말한다.

불교신문에 연재한 수행이야기 68편 모아
수행과 관련된 불교 교리 쉽게 정리
대학 강단서 강의한 노하우도 소개

경전서 찾아볼 수 있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어록 등에서 보는 옛 선사들의 모습과 근현대 선사들의 일화 등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의 삶과 언행, 그리고 근래에 있었던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배울 점이 무엇인지, 또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불교 교리와 함께 쉽게 설명한다. 원고지 10매 정도의 짤막한 글들은 수행과 관련된 교리를 담고 있긴 하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다. 그래서 삶과 수행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독자들의 공감과 깨달음을 불러일으킨다.

'불법은 밥 먹고 차 마시는 데 있다' 고 말한 지눌국사, 정치적 상황 때문에 22년간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그 시간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여긴 중국의 본환 선사, 불법을 구하러 찾아온 제자에게 '보물 창고를 집에 놔두고 왜 여기에서 찾느냐' 고 말한 마조 선사 등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대단한 깨달음을 찾는 이에게는 실망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자 정운 스님은 원고 연재 기간에 대해 "허한 마음으로 원고를 시작했지만 실한 마음으로 회향"했다며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별 기대 없이 허한 마음으로 책을 들었다가 책을 내려놓는 순간, 따스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이 책은 획기적인 '수행 방법' 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책 읽듯이 책에 수록된 글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꾸려야 할지, 또 어떤 행동이 올바른 삶을 위한 것인지 독자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닌 스스로 깨닫는 가르침은 더욱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코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CODA〉



수화, 소리, 사랑해

베로니크 폴랭 글 | 권선영 옮김 | 한울림스페셜 협회 | 1만원

베로니크의 엄마와 아빠, 외삼촌과 외숙모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농인이다. 베로니크와 그녀의 외사촌들은 소리가 들리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청인이다. 하지만 부모가 들을 수 없기에 코다들은 침묵의 세계에 살면서 동시에 소리의 세계에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가는 말한다. '나는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창피함, 분노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했다' 고. 멋모르는 어릴 때에야 수화를 할 줄 아는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특별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며 상황이 달라졌다. 농인 부모와 수화로 대화하는 것의 고단함,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는 갖가지 소음들, 집 안에서 결코 소리 내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지루함에 질려 버렸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창피하고, 그들에게 짜증이 나고, 그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구경하거나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베로니크는 결국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들리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들리지 않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농인 부모와 사는 코다의 삶을 다루었지만 이 책은 결코 무겁고 어둡거나, 슬픔으로 눈물을 쥐어짜며 독자의 감정을 북받치게 만드는 신파가 아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베로니크의 마음속에 뒤엉켜 들러붙던, 부모를 향한 감정들의 민낯을 사실적이면서 솔직하게, 너저분하지 않으면서 간결하게, 담담하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

결국 이 책은 코다인 베로니크의 성장담이자 모든 코다들의 성장담이다. 동시에 자신들과 서로 다른 세계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 부모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까지 겪어야 했을 코다들의

'코다' 는 청각장애 부모 둔 건청인 자녀
농인 부모와 사는 '코다' 의 삶 다뤄
드라마틱한 주인공 이야기 영화로도 제작

남모를 상처와 수많은 흔들림을 꾹꾹 눌러쓴 코다들의 일기장이다.

〈수화, 소리, 사랑해〉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각 장애인' 대신 '농인(聾人)' 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농인이라고 하면 듣지는 못해도 '수화(수어)' 라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름대로의 문화를 지닌 집단을 뜻하지만, 청각 장애인은 듣지 못하는 '장애' 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농인들의 삶이 세상의 여러 문화 가운데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수화가 여러 언어들 중 하나로 인정받는 사회. 베로니크의 부모님과 외삼촌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수화 학교에서 수화를 가르치고, 수화 사전을 펴내고, 농인을 위한 연극 협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농인을 위한 작은 혁명들이 일어났고, 농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다.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로니크는 결국 부모님을 지지하게 된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마침내 온 마음으로 그들의 활동에 함께한 것이다.

출간과 동시에 프랑스 언론의 주목과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베로니크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쟁쟁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제치고 프랑스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700만이 넘는 관객이 동원되는 등 흥행에 성공한 '미라클 벨리에' 가 그 주인공이다.

〈수화, 소리, 사랑해〉에는 영화에 미처 담지 못한 더 많은 뒷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침묵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에 한 발씩 담그고 서로의 세계와 소통하는 코다의 삶,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이자 하나의 문화라는 농인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농밀하게 녹아들어 있다. 농인과 코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직 생경하고 조금은 불편하다고? 책으로 그리고 영화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낯설거나 불편한 세계가 아닌, 서로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며 소통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다락방 속의 자아들**(할 스톤, 시드라 스톤 지음/안진희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1만 5천원)=다중인격장애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생각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인격은 필연적으로 '파편화' 된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그의 내면에는 대책 없는 게으름뱅이의 성향이 실재한다. 아무리 강인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도 그의 내면에는 사소한 일에도 안절부절못하는 갓난아기의 성향이 실재한다. 그러므로 삶의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아(인격, 성향)들의 파편성 혹은 다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균형 잡힌 '중간지대' 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그토록 경멸하게 만드는가? 그와 내가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인다면 당신은 당신 안의 '외면당한 자아' 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외면당한 자아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처벌을 받아온 에너지 패턴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그를 경멸하게 될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억압된 것이지 파괴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다만 당사자에게 '의식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성장하면서 정교하게 '사회화된 자아들' 이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모험가, 전사, 마녀, 게으름뱅이, 호색한, 몽상가, 미치광이 예술가, 이기주의자, 안절부절못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외면당한 자아들' 도 호시탐탐 우리를 조종할 기회를 엿본다. 다행인 사실은, 그 자아들이 원하는 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 목소리 속에는 종종 뜻밖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자아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엄연히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가 외면하는 한 계속해서 불쾌한 인생경험들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창안한 '목소리와의 대화법' 은 안전한 중간지대(자각의식)에서 온갖 자아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게 해준다. 만약 지금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는 혼란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더 늦기 전에 다락방 속의 자아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불교 이해의 디딤돌**(김대원심 엮음/운주사 펴냄/6천원)=노 보살의 원력과 신심이 담긴 사경 노트를 책으로 엮었다. 아직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두 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 경전 가운데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주제와 내용을 찾아 베껴 쓴 것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불교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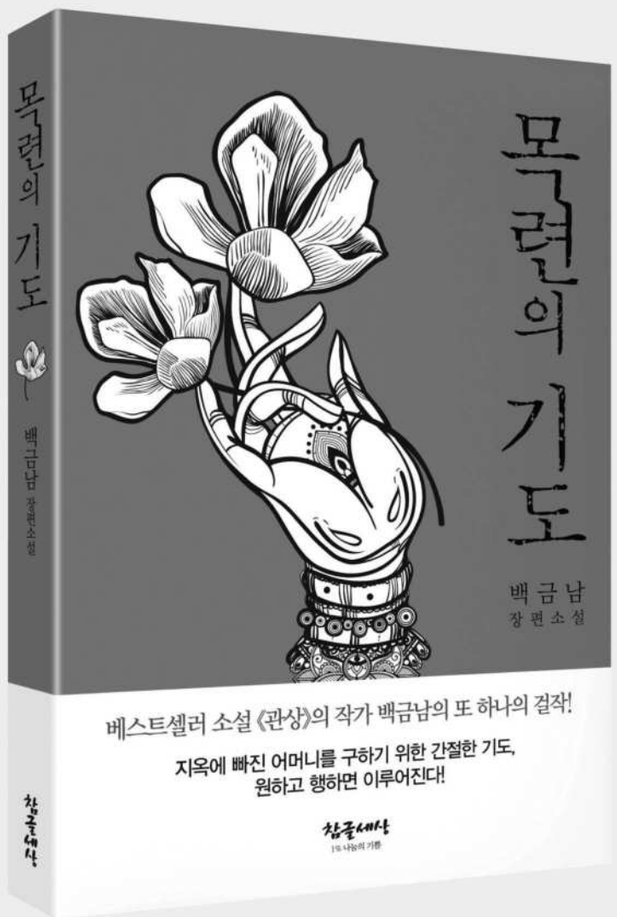
결혼해 자식들을 낳고 불교에 귀의한 지 40여 년, 불교에 대한 믿음과 공부가 갈수록 깊어진 노 보살은,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식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택한 것이 사경이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걸맞은 내용을 경전에서 찾아 옮겨 써서 자식들에게 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중간에 사고를 당하여 처음 마음먹었던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간략하면서도 부담 없는 분량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나 본인의 신행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주로 보살님들이 알았으면 하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며, 그에 따라 설명 또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채웠다. 보살, 인욕, 사무량심, 사섭법, 허공, 보리, 대승, 팔정도, 육바라밀, 사념처, 참음의 공덕, 마업, 파마(破魔), 언어, 사제 등 불교의 주요 개념들이 설명되어 있다.



▲**무문관**(무문혜개 지음/김태완 역주/침묵의 향기 펴냄/1만 3천원)=역자는 최대한 많은 사전과 문헌을 참고하여, 송대(宋代) 언어로 쓰인 〈무문관〉을 정확하게 번역하려했고, 그 결과로 기존 번역본들의 오역을 다수 수정했다. 몇몇 공안의 경우, 공안에 실린 이야기의 본래 모습과 변화의 과정을 참고하도록 〈참고〉란을 덧붙였으며, 역자의 말인 〈군소리〉를 각각 공안에 덧붙여 법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했다.

공안(公案)이란 선종서 공부인에게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는 공인된 방편이라는 뜻인데, 사실 선종의 공안이란 차별의 지혜를 단련하는 공인된 방편이다. 즉, 부처와 조사들이 법과 차별세계를 말하는 다양한 이야기 속으로 공부인을 끌어들임으로써, 차별세계에서도 벗어나고 법상(法相)에서도 벗어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선종의 공안이라는 방편인 것이다. 이렇듯 공안은 온갖 법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법에도 머물지 않고, 세간의 차별에도 걸리지 않도록 단련시킨다. 그래서 법이 곧 차별이고 차별 그대로가 법이어서, 법에도 머묾 없고 차별에도 걸림 없는 대자유를 누리도록 하려는 방편인 것이다. 차별에도 밝고 법에도 밝으면, 차별도 없고 법도 없다. 차별도 없고 법도 없으면, 온갖 차별 속에서 언제나 대자유를 누린다. 선종 최고의 공안집 중 하나인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은 남송대 선승 무문혜개가 선종의 공안(公案) 48칙을 모아서 자신의 평창과 게송을 덧붙였고, 그 제자인 미연종소가 편찬해 1228년에 간행한 책이다. 원오극근의 〈벽암록〉, 만송행수의 〈종용록〉과 더불어 가장 널리 읽히는 공안집이다.

안팎의 차별이 없어지는 체험을 하여 차별 없는 세계로 들어온 뒤에는 그 차별 없는 세계 속에서 오래오래 지내면서 이전까지의 차별에 익숙한 습기(習氣)를 녹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다시 차별세계로 나아가도 차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책은 이런 힘을 어느 정도 얻은 사람이 차별세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분별심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차별세계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다.



베스트셀러 소설《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낳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1003@hanmail.net
참글세상 1% 나눔의 기쁨

화엄·유식의 발전… 東亞 불교 중심으로 '우뚝'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8. 의상 화엄과 해동 유식

삼국통일 후 신라는 고구려, 백제 불교의 유산을 흡수하고 중국 당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면서 교학에 대한 이해가 한층 심화되었고 원효를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불교사상가가 다수 배출되었다. 교학 중에서는 특히 화엄학과 유식학이 신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었다. 화엄학은 의상과 그의 문도들에 의해 체계적인 이해와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의상은 중국 화엄종의 2조 지엄에게 수학하였고, 지엄의 또 다른 제자로서 중국 화엄의 이론적 토대를 닦은 법장과 사형사제 관계였으며 귀국 후에도 사상적인 교류를 지속하였다. 신라의 화엄학은 의상 문도들의 활발한 연구와 활동에 의해 불교계의 주류사상이 되었고 후대에는 종파로 발전하였다. 신라의 유식학은 기존에 진제가 번역한 구유식 경론에 기초하면서도 7세기 중반 당의 현장에 의해 새로 도입된 신유식설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사상적 모색과 함께 많은 학문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화엄학과 중국 화엄종의 계보에 대해 살펴본다. 화엄학은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묘사한 〈화엄경〉에 입각하여 존재의 상호연관성과 부처와 중생의 동일성을 해명하는 교학이다. 중국의 화엄학은 앞서 남북조시대의 지론학파 일부에서 〈화엄경〉의 법계를 중시하고 신앙을 강조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두순을 초조로 하는 화엄종이 성립되었고 2조 지엄, 3조 법장을 거치면서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4조 징관에 의해 교학이 집대성되고 5조 종밀은 선교 융합의 길을 제시하여 포용적 방향으로 나갔다. 한편 신라의 의상은 당에 유학을 가서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돌아와 해동 화엄을 개창함으로써 동아시아 화엄의 중심인물로 부상하였고 그의 명성은 중국과 일본에도 널리 알려졌다.

중국 화엄종의 1조 두순은 법계관문을 열었고 2조 지엄은 법계의 연기와 무진원융을 강조하였으며 3조 법장은 이들을 계승해 화엄교학의 체계를 세웠다. 특히 법장은 『오교장』에서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돈교, 원교의 5교판을 제시하였는데 화엄은 원교에 속하며 가장 뛰어난 일승사상으로 비정되었다. 법장은 당시 성행한 신유식과 기존 여래장 불성사상 사이의 길항관계를 의식하여 유식을 대승시교, 여래장 계통 경론을 한 단계 높은 대승종교에 위치지어 양자의 우열을 판별하였고 누구나 성불이 가능하다는 일승의 관점을 분명히 하였다. 4조 징관은 화엄 이해의 지침서인 〈화엄경소〉와 그 해설서인 〈연의초〉를 남겼고 교와 관행의 겸수를 주장하였다. 이어 5조 종밀은 진심, 진지, 영지를 매개로 하여 화엄과 〈원각경〉 등 교와 선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양자의 통섭을 추구하였다.

해동 화엄의 문을 연 의상(625~702)은 진골 귀족 출신으로 661년부터 671년까지 약 10년간 당에 유학하여 지엄에게 수학하였고 화엄의 요체를 간략히 정리한 '화엄일승법계도'를 일종의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여 지엄의 인정을 받았다. 법장이 중국 화엄학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화엄의 우월성을 천양했다면 의상은 화엄의 실천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상은 귀국 후 신라의 수도 경주가 아닌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부석사를 창건하고 머물렀다. 또한 국왕의 토지 기부 제의를 거절하고 원래 불교의 가르침대로 승단의 무소유를 실천하였으며 하층민도 제자로 받아들이는 등 무차별의 평등을 추구하였다. 한편 그동안 중국의 법장 찬술로 알려져 있던 〈엄경문답〉이 의상의 강의록을 바탕으로 신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제기되어 최근 통용되고 있다.

의상의 대표작 '법계도'는 7언 30구, 210자의 상하좌우로 회전하는 형태로서 법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 내용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원융하며 부분과 전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일즉다 다즉일'로 요약된다. 이는 차별적 현상세계가 실제로는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각기 드러난 것이어서 실상은 모두 차별이 없는 중도로 존재함을 간파한 것이다. 의상은 화엄교학에서 존재의 연기와 원융을 밝힌 십현문, 상즉상입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화엄의 세계를 법성을 드러낸 '법계도'로 나타내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의상 스님 신라 화엄학 기틀
회향·실천 강조… 교학 발전
문도들에 의해 심화·발전돼

통일기를 살았던 의상 또한 원효와 마찬가지로 실천과 대중교화를 중시하여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을 장려하였다. 의상이 창건한 부석사에는 화엄을 대표하는 비로자나불이 아니라 중생 구제의 일승불인 아미타불이 주존불로 모셔져 있다. 또 의상이 동해의 낙산에서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였다고 하는데, 관음보살은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보타락가산에 상주하며 구도자를 인도하는 존재로 나온다. 의상이 쓴 글로 전하는 '백화도량발원문' 또한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을 결합한 내용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의상의 문도들은 이후 의상계로 지칭되는 단일한 색채의 학파를 형성하였고 지엄부터 법장으로 이어지는 화엄교학 및 의상의 사상과 실천정신을 계승하여 신라 불교교단의 주류가 되었다.

한편 제자인 지통과 도신이 스승의 강의내용을 집록해 쓴 〈추혈문답〉과 〈도신장〉의 단편적인 내용이 〈법계도기총수록〉 등에 인용되어 전하는데, 의상의 독자적 화엄사상으로는 자리와 이타 양면의 실천을 추구하는 당과불설과 오척신 사상을 들 수 있다. 이는 타과(他果)가 아닌 자기의 당과(當果)를 얻는 자리적 수행을 통해 5척의 몸이 바로 부처임을 깨닫고 몸 자체에서 부처의 세계를 드러내며, 다시 그로인해 평등법을 얻어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고 부처에게 하듯 일체에 경배하는 이타적 실천행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의상은 신라에서 널리 행해진 관음신앙과 아미타신앙에 이 오척신 사상을 적용하여 화엄을 현실의 장에서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의상 대사의 진영. 당나라에서 유학한 의상 대사는 신라 화엄학의 기초를 다졌다.

유식학은 인도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에 기초한 교학으로 〈해심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중국에서는 7세기 후반 법상종으로 성립되었다. 현장은 17년간 인도 여정 길에 올라 불교연구의 중심지였던 날란다 사원에서 유식학을 비롯한 최신 학설을 배운 후 많은 경론을 수집해 돌아왔다. 현장의 여행기 〈대당서역기〉는 당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불교와 사회, 문화 등 다채로운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다. 한편 원숭이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유기〉는 현장의 여행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소설이다. 현장은 645년에 당에 돌아온 후 황실의 지원을 받아서 가져 온 총 75부 1,347권의 경론을 제자들과 함께 한역하고 연구하였다.

이 중 인도 유식학파의 세친이 쓴 〈유식삼십송〉에 대한 호법과 계현의 해석을 중심으로 성립된 〈성유식론〉은 흔히 말하는 신유식의 정립에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 불교사상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즉 알라야식은 오직 망식일 뿐이며 여래장식(불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당시 인도 유식학의 주류 담론이 중국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신유식의 입장은 진제의 한역 경론에 토대를 둔 섭론학 등 기존의 구유식에서 진식과 망식의 결합으로 알라야식을 이해한 것과 어긋나는 주장이었다. 특히 신유식에서는 성불 가능성이 아예 없는 무종성의 중생을 상정한 오성각별설을 제기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불교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불성론과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부정하는 파격적인 문제제기였다.

신라 유식을 대표하는 원측은 왕족 출신으로 10대에 당에 유학하여 범어와 서역의 언어를 습득하였고 현장의 제자가 되어 새로 들어온 신유식 문헌의 한역에 종사하였다. 그는 스승이 도입한 신유식을 적극 수용하여 식의 이해, 오성각별설 등의 문제에서 기존의 구유식을 비판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유식학의 이론적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658년 당 황실의 지원으로 개창된 서명사에 주석하면서 서명학파를 열었고 〈성유식론소〉 등 1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지었다. 원측 계통은 현장의 수제자이자 중국 법상종을 개창한 규기 계통의 자은학파와 라이벌 관계였는데, 법상종 내의 주류세력이 된 규기 계열의 배척을 받아 원측과 그 문도들의 사상과 활동은 실제 위상보다 폄하되었다.

하지만 원측의 유식교학은 현장 신유식의 정수를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적 포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제자인 도증이 692년에 귀국하여 신라에 원측의 교학이해가 전해지는 등 동아시아 세계에 미친 그의 사상적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특히 원측이 쓴 〈해심밀경소〉가 8세기에 둔황지역에 전승되었고 이후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티베트대장경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신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유식학자로는 도륜과 태현, 그리고 백제 출신으로 알려진 의영과 경흥을 들 수 있다. 의영은 성불 불가능한 존재를 상정한 신유식의 오성각별설을 비판하고 구유식의 입장에서 모든 중생의 성불가능성을 의미하는 '일체개성설'을 주장하였다. 국로로 존숭된 경흥도 유식관계 저술을 다수 남겼지만 현재는 〈무량수경〉과 〈미륵경〉에 대한 정토관련 주석서만 전한다.

이에 비해 도륜(또는 둔륜)의 〈유가론기〉 24권은 현존하는데, 여기에는 당과 신라 유식 승려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태현은 원효, 경흥과 함께 신라의 3대 저술가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해동 법상종의 조사로 추숭되었다. 그의 〈성유식론학기〉에는 원측과 규기의 견해가 대등하게 인용되어 있다. 이들 신라 유식학자들의 사상은 남겨진 저서는 물론 일본 등에 전하는 사본이나 주석서의 인용문을 통해 그 단편을 엿볼 수 있다.

화엄학은 한국불교의 사상을 대표하는 교학체계로서 통일신라시대에 유식학과 함께 교학불교의 전성기를 열었다. 의상은 중국 화엄에는 없는 이이상즉(理理相卽)의 이론을 제시하고 회향과 원력을 강조하여 교학과 실천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의상에서 비롯된 실천적 측면의 강조는 해동 화엄의 특징으로 이어졌고 그의 존재로 인해 한국은 '화엄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한편 동아시아의 유식학은 당과 신라의 유식학자들에 의해 만개하였다.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신유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도 있었고 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이도 있었다. 또한 보다 융합적이고 일승적인 관점도 제기되는 등 신라의 유식학은 다양한 사상적 입장이 혼재된 채 발양되었다.

특히 신라 유식학을 대표하는 태현, 도륜 등은 성상융회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유식학의 기본 관점 위에 법성종 등의 이질적 계통의 이론까지 포섭한 것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화엄학과 유식학 등 교학불교가 만개한 사실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전이되는 과정상의 단순한 전달자, 수용자만은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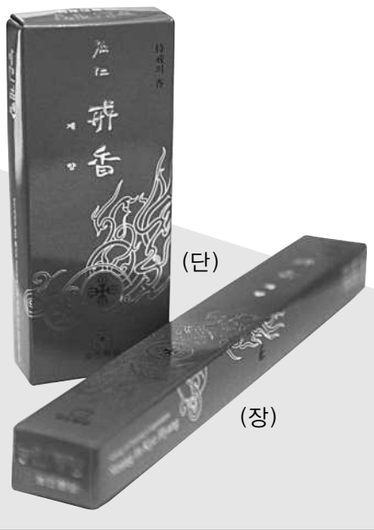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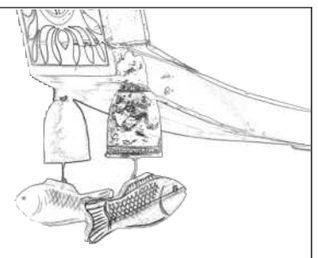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들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 여러 악업을 지으면 육도윤회하여 끝없이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응당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자타의 이익과 안락을 구해야 한다.

- 대반야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약사여래불사 권선문

약사여래 부처님은 왜 해야 하는가? 약사여래 부처님은 모든 장애와 두려움과 곤란을 없애주시고 모든 나쁜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시며 모든 좋은 일을 소원 성취시켜주시는 신비한 부처님이시다.
성원사 (제주시 도련길 66)
064-783-2092, 010-9267-2092,
011-699-2616
우체국 510446-01-000934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정확한 방편술

한권의 책으로 방편술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스님을 찾습니다

울산 연암동 만덕스님
군위 고원사 혜일스님
연락주세요
김국희 010-9208-3835

미륵불 (대형)

알 림
010-4630-800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고승 비급 전수
책임지도, 바로 친견가능. 기존 사주학 아님
동국대대학원 졸업(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11-9514-3721

도심 속 사찰, 비구니 기도스님

(염불기도) 구합니다
010-3160-283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대전, 50-60대, 부부환영)
010-5209-7420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60세 이하)
010-7311-5335

6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시)
010-3755-4242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 상담환영

신심깊은 노보살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이름은 돈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주는 인생의 씨앗이요
이름은 인생의 꽃입니다
빛나는 이름, 향기로운 이름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덕인 성명학 (역삼역 6번출구)
02)562-8353
(홈페이지 참조)

특수한 기도법

- 하루 만에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불교무용 특별지도

바라춤,극락무,나비춤,
살풀이,법고,승무 등
30년 경험 선생 직접지도
수강료 : 십만원/월(선착순)
010-3711-5072
부산 서면역 부근 반야선원

포교선원 지부 등록

바둑,태권,등산,종교시설,주택,
아파트,사무실,사설암자
월세 2백 보장. 매월 회비 납입
경기 오산시 오산로 62번길 8
031-373-1120 (오후 6-8시)
포교선원 다르마 사업부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실전 사주학 토요반

9월 5일 개강

	초급반	연구반
시 간	10:30-13:30(16주)	14:00-17:00(16주)
수강료	36만원	40만원
	기초부터-실전까지 속성으로 강의	명리입문 1년 이상이고 실전 통변으로 강의함

- 교육기간 : 2015년 9월 5일 - 12월 19일 (16주)
- 강사 : 김동현 교수
  · 공주대학교 동양철학 석사졸업
  ·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 글로벌사이버대학 겸임교수
- 문의 : 교수 010-4704-8373
  학교 02)2260-3728~30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지하철 3호선 6번출구)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여래의 가르침의 핵심은 너희 마음을 단속하는 데 있다. 너희는 욕심으로부터 멀리 떠나 몸을 바르게 하고 순결히 하며 말에 거짓이 없도록 하라.

- 반니원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충남 논산시 사찰전세가격 내림
- 2층 법당 58㎡ 요사110㎡공양간
- 토지600㎡, 마을주변, 깨끗함
- 전세가격 내림. 금액 5천만원
- 집기류완비즉시법회가능(월세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임대

- 위치 : 김해지역
- 평수 : 약 50평
- 아파트 밀집지역, 포교하기 좋은 곳(불교대학가)
- 가전집기 일체
- 가액 :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 시설A급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옥과 설산 기암괴석사자형상, 적송림 옥과 톨게이트 5㎞
- 산: 1만2천평, 종교부지650평
- 약사석불12자(血사리봉안)
- 건물 : 조립식건물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 가액 : 3억7천, 차진입가함

010-8224-16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100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50평 외 ◎ 법당:50평, 요사:60평
◎ 요사:60평 ◎ 차량진입, 경관양호
◎ 양도:가격협의 ◎ 양도:1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제천시 포교사찰 급 양도
* 법당48.7㎡, 한옥요사채59㎡, 토지250㎡
* 제천시시장부근사찰. 포교사찰 적당함
* 양도가 : 1억 6천만원 (융자5천가능)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신축 한옥 주택

땅을 알고 터를 잡은
산 자락에 예쁜 한옥
이웃환경 좋은 마을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30평,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황토방, 정자)

010-3703-58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안
- 2층, 삼존불, 소불 108불, 아담한 법당
- 평수 20평, 시설일체 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삼십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010-3101-1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7-7번지 태진빌딩 4층
- 총 실평수 120평, 대법당, 일체 시설은 최상임.
- 100% 시설완벽 일체 양도해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급 양도 일단 오셔서 눈으로 보세요

010-4010-4070

토 굴(터)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 관음리
- 지목 : 전, 면적 : 221평
- 토지이용 : 생산관리지역
- 금액 : 1억원(목재 석재 포함)
- 참고사항 : 백두대간 포함산 주변 2차선 도로에서 200m 거리이며 지적도상 도로 구거와 연결되어 있고 앙쪽은 산이며 입구 주택 3가구 까지 차량통행 주차가능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완료 15톤 덤프 레미콘 차량 출입 가능

연락처 : 010-8555-4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243-4번지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123번지
- 화재로 요사채 전소 , 산신각, 미륵불상
- 암반수, 전기
- 대지 1,240평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청평 한옥 주택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 (큰방 1, 작은방 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암자나 토굴 교환 가능
- 가액 2억 6천만원

주인직 : 010-9411-5302

포교원 임대

- 위치: 안산 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 교통편리 유동인구 많고, 포교원 운영으로 최적지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 좋고, 일체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실평수 60평
- 법당, 상담실, 요사채, 다용도 공간, 주방,욕실,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 90만원 시설비 3,300만원(상담시 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 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옥상활용(기도, 행사) 너무 좋음
- 현대 원활히 운영중이며, 불사관계로 소입을 맡아 급하게 내놓습니다

010-5913-7239 일연스님
010-3145-8626 종무소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7호선 사가정역 근처
- 평수 : 4층 54평, 방4개, 내부화장실 2개
- 보증금 : 3,000만원 월 임대료 130만원 시설비 별도 : 2,500만원 (법당 집기류외,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TV 등 기타 모든 집기류 포함)
- 기존 신도가 있으니 몸만 오셔서 법회 보시면 됩니다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의성 IC 5분이내
- 대지 235평, 주차장 10대주차, 채전밭 약 300평(국유지)
- 법당 : 삼성각, 요사채 집기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30년된 아담한 사찰
- 가액 : 1억 5천만원(조절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 스님 건강상 문제로 안내

054)832-6567
011-522-65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포교원 최고의 위치
- 부산 서면역 5분 거리(부전시장)
- 5층 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후불탱화 108호신불, 시설완비,
-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공양실, 종무실, 주지실, 화장실(남녀)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삼천오백중 일부(급이전관계)

문의전화 : 010-3711-50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 373평
-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034-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가액 : 3억 6천
- 대지 : 1408㎡ (약 425.92평)
- 임야 : 340.49㎡(약 103평)
- 전 : 287.60㎡(약 87평)
- 경내로 청정한 개울이 흐르고 있음

010-5479-5779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김수로왕능과 공원사이 (김수로왕능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 평수 : 2층 50평(상가건물)
- 시설 : 포교당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628-115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2층 8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 주인직접 (매수, 전세 :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02)403-3333

포교원(급)안내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위치 : 경북 경산시 진량읍
- 평수 : 52평, 3층중 3층, 옥상 사용가(소대)
- 법당 : 상단(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단(탱화) 산왕단(탱화), 영단(천혼단)
- 요사 : 주지실1, 사무 친견실1, 방사2 후원, 공양간 각1개, 차고 2대이상
- 가액 : 보증금 3백, 1년 월세 2백 시설비, 집기일체 5백

※ 온난방 완비, 월 전기세 3만 미만

010-2329-1424(주지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 평수 : 종교용지 대지 251평
- 구 성 : 본제 법당 요사채, 창고 및 넓은 텃밭도 있음
- 사방이 다섯봉우리, 앞에는 바다 조망권과 경관이 수려함
- 건강상 급 양도
- 주차공간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010-9476-9001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송추계곡 근방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백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면지역
- 대지 : 120평, 전 390평
- 법당 : 목조 13평
- 요사채 : 26평, 종무소 6평, 산신각
- 가액 : 1억 8천만원

010-9231-68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천삼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토굴 터(급)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526(408평)527(298평) 합706평
- 주봉에서 래용입수 좌청룡 우백호
- 안산은 천황봉 좌우음양수개울 윗쪽산 50미터 높이 석간수 있는 명당
- 가액 : 3천만원

010-6738-8823
041)542-2055

사찰 싸게 (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로 (화왕산 군립공원 입구) IC에서 8분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25평,부지600여평 (종교부지,3필지)
- 요사채 (60평), 칠성각, 산신각,석탑,심야보일러,창고,텃밭경작
- 산밑에 도로 인접(뒷산, 소나무울창) 150m암반수 및 상수도
- 가액 : 대출 7천안고 양도금액 2억8천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연락처 010-3149-4478
(스님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 가액 : 6억 8천만원(1억8천 융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대웅전, 산신각, 영각, 문화재 탑, 요사체
- 전체 12000평
- 보증금 : 1억 3천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2262-0001
010-2262-565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 화성 산밑 전원주택다수
- 민원 없이 즉시 예불 가능
- 토 230평 인법당 단층한옥 52평
- 가액 : 4억 전세 월세도 가능

010-9470-420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로 11-1
- 아담한 법당
- 포교활동 최적지
- 평수 : 30평, 3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월30만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대출 4천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토굴 겸 임법당

- 위치 : 경북 김천
- 건물 22평, 실제 31평
- 대지 129평, 정남향
- 방 3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 삼존불, 탱화, 관음소불 100불
- 조용한 시골 홀로 정진기도 하기 최적지
- 노스님 시봉관계로 급 안내
- 가전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5,800만원

010-4323-3579

포교원싸게(급)안내

- 위치 : 경기 파주시 금촌동
- 평수 : 2층 27평 (방2, 화장실, 주방겸 거실)
- 신제작 원목 불단(280만원) 삼존불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28만원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유선 인터넷 + PC포함)
- 소임관계로 급 안내, 시설비 무, 이사비용 100만원

010-7179-3378

주 택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아신역 지하철, 차로 5분거리
- 대지 257평, 건평 40평, 방 3개, 욕실 2개
- 도보로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 인접, 위치좋음
- 조용하고 전망좋음
- 위치가 눈에 띄임
- 사주카페, 포교원,암자,요양 적격
- 가액 : 5억

010-4234-253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사천시내 5분거리
- 대지 175평, 법당 13평
- 요사채,방2개,주방1,거실
- 양도가 : 7천8백만원 시설비 500만원

055-833-5769
010-8503-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읍 근교 대중교통편
- 요지 똑바로 보존된 기와 한옥 15평 부속건물 8평
- 상수도 보일러, 수세식
- 대지 100평
- 즉시 입주 가능
- 4500만원, 일부 후불가능

주인직 010-8899-8899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3층 중 2층 약 48평
- 시설 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보증금 5백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11천 8백만원

010-3868-7435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 단독 상가 2층 23평
- 보증금 : 3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월세 35만원
- 인연만남 좋은자리

010-2727-0895

사찰(급) 안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 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4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IC 인근 곤지암IC에서 약 10km (제2영동고속도로 신설예정 IC에서 5분, 장호원 국도 IC에서 5분)
- 대지 147평
- 건물1층-40평 (등기 외 약 10평 추가) 2층-20평
- 건물은 철골조 조립식 주택입니다
- 소임관계로 절을 비운지 4년이 되어 부득이 양도합니다
- 찾아 오실 분은 전화주시면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현재 절이 비어있으므로 미리 시간 약속하셔야합니다)
- 가액:1억9천만원(절충가능)

연락처 010-2887-576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장근접
- 2층 80평
- 법당.방3개 부엌1. 화장실3개
- 삼존불. 후불 일체
- 보증금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조정가능

010-5942-2032
070-8844-2030

울산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30평
- 삼존불: 아미타불.관세음. 지장보살.관음.지장보살.소불60불 후불탱화.미타.관음.신중.칠성.산신
- 현재법회도량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558-9016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향리 팔공산 뒷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기도도량임
- 대지 : 700평(시유지포함)
- 법당 : 20평, 요사채 : 50평
- 가액: 9천5백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 포함)

연락처 : 053-986-108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2차선 대로변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는 방문 후 상담. 방 없음
-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053-651-1514
010-2500-1514

마음 다이어트

김대선 (명상 지도자)

〈6〉 오감깨워 상상력 개발하기

내 안의 오솔길 따라 '五感' 느껴보자



퇴화되는 인간의 감각

명상에서는 외부로 향하던 감각의 방향을 내부로 돌려 자신을 느끼고, 오감을 이용하여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몸에서 감각신경은 자신에게 소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고속도로와 같다. 말초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전기 화학적인 신호들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학 문명 발전으로 일상생활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멀티미디어와 스마트폰, 인터넷 등은 말초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는 다양한 감각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여 시선을 외부로 향하도록 유도한다.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항시 외부를 향해 열려 있는 감각신경들을 잠시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연습이 바로 명상이다. 이를 통해 내외부의 정보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명상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의 조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

평소 말초신경의 강한 자극을 추구한 사람들은, 명상을 하는 동안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의 잔상들이 잡념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폭력과 전쟁, 선정적인 영화 등에서 받는 자극은 뇌와 세포 사이사이에 깊이 각인되며 생각과 감정에서 잊히고 비워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하면 직접적인 살인과 폭력이 많이 나오는 장르인 전쟁물 등은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심하면 근육통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어 점차 멀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속도와 경쟁의 공간인 도시를 떠나 깊은 두메산골을 배낭여행하는 것처럼 자극에 익숙해진 세포들이 잊어버린 자연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명상이다. 오감을 이용한 명상은 평소 해 보지 않았던 자신 안의 색과 소리를 찾아 마음의 초원에 오솔길을 만드는 일이다. 말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 때까지 좋은 친구가 되어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제공할 것이다. 상상력 훈련으로 공감각 기능을 개발하여 두뇌의 창조력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인간의 삶은 다양한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에게 만남과 헤어짐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오감을 감각이라 한다. 눈, 코, 귀, 혀, 살갗을 통해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거나 사물에서 받은 인상이나 느낌 등을 말한다. 성향과 성별에 따라 감각이 발달된 정도에 차이가 있어 실제 기억하고 사고하는 데도 감각을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오감은 얼굴에 있는 일곱 개의 구멍을 통해 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건강의 척도를 나타내게 된다. 자신의 기억을 저장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언어를 통해 감각의 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10월 중순의 주말에 산행을 하면서 사과 과수원에 달린 사과를 보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자신은 어떻게 사과를 표현할 것인가? '저 사과 먹음직스럽지 않니?', '빨갛게 익은 사과 예쁘지?', '빨갛게 익은 사과를 한입 깨물면 달겠지?' 시각이 발달한 사람은 평소 언어 습관에서 듣는 사람이 그림으로 상상이 되도록 시각언어를 사용한다. 미각이 발달한 사람은 '달겠지' 처럼 미각 언어를 사용한다. 특정 감각이 발달하였다는 것은 해당 감각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각기능은 자신 안에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순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도 앞에 있는 사물에 의식적인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딴 생각을 하면 옆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경험을 자주 하기도 한다. 그래서 감각은 집중 훈련을 통해 일정 부분 계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두뇌 계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각과 뇌의 관계

인체의 뇌는 감각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뇌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달 통로인 말초신경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과 뇌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신경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말초신경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할 때는 시선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시선을 주변 사물에 두면 모양, 색깔, 공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시선을 귀에 두면 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가슴속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눈으로 보고도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시선을 어느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며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가 명상의 집중도를 결정한다.

명상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속에 저장된 자료를 새롭게 바꾸는 것과 같이 세포 속에 기억된 정보들을 하나씩 비우고 청소하여 새로운 에너지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날숨에 생각과 잡념들을 실어 내보내다 보면 잡다한 정보들이 비워져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들였던 수많은 정보들이 가지는 무게감도 느끼게 된다. 바위에 글씨를 새기면 몇 천 년 동안 흔적이 남아 고고학적 유물이 되듯이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기억한 지식은 바위의 글씨처럼 되기도 한다.

명상은 받아들였던 정보들을 비우고 정리하여 필요할 때 순간순간 떠오를 수 있도록 해 주는 숨겨진 힘을 강화시켜 사고력을 높인다. 일상생활에서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 힘주어 노력하였다 해도 정작 필요할 때 기억나지 않는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교통 체증을 일으켜 고속도로가 정체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지식은 억지로 기억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비워진 틈을 타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이다. 억지로 생각할 때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다가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할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행동이지만 장시간 계속되는 한두 가지 고민은 악성코드와 같이 정보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창의력은 여유의 산물이라고도 표현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정보와 지식을 비운다고 해서 전혀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각 분야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비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노력이다.

> **명상으로 외부감각 내부로 전환**
> **강한 자극 좋아하면 명상 힘들어**
> **도시 벗어나 산골가듯 오감 살펴야**
> **共감각 개발되면 창조력도 'UP'**
> **마음과 생각 비우는 것이 전제**
> **의식·호흡 일치 '의념 명상' 효과**

의식을 통해 가득 찬 정보가 명상을 하여 비워졌을 때 뇌의 무의식적인 통합으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져 지혜가 샘솟게 된다. 명상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이란 무의식의 힘인 통찰력과 지혜를 자유자재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단계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것이다. 한시도 멈추지 않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잡념들을 의식만으로 비우는 것은 쉽지 않다. 맑은 기운과 함께하는 호흡의 힘으로 뇌 속에 탁기 형태로 존재하는 잡념을 비우면 고속도로 정체가 풀리듯 비움에 비례해서 생각의 속도가 가속된다.

오감 이용한 의념 명상법

이미지 트레이닝은 상상 속에서 실제 상황을 머릿속으로 구현해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 연습의 훈련 방법이다. 이는 의식을 강화시키는 훈련 방법으로 이미지 명상이나 의식 명상이라고 한다.

의념(意念) 명상은 이미지 훈련과 호흡을 함께하는 것으로 의식과 호흡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명상에서 호흡과 함께 집중하는 데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과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 자체에 집중하면서 잡념의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매 순간 강한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하기에는 어렵다. 전문 수행자들이 오랜 연습을 하여 추구하는 방법이다. 초보자가 명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름날에 소나기가 쏟아지듯 잡념이 떠올라 집중하지 못하고 끝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집중을 위해 재미있는 상상으로 생각하는 의념 명상법을 시도한다. 잡념이 많이 떠오른다는 것은 해소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 안에 가득한 잡념의 강을 건너 집중하기는 쉽지 않지만 호흡과 의식의 힘을 함께 이용해서 자꾸 배출하다 보면 점차 잡념이 줄어들 것이다.

의념 명상을 해 보면 자신이 원하는 신체 부위에 집중하고 유지하는 것도 잡념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행기에서 지상을 바라보듯이 지구 전체를 상상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 지구의 모습을 상상하면 과거에 보았던 지구의 사진 크기로 상상하게 된다. 훈련을 하다 보면 점차 상상의 크기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구는 바다, 육지, 섬, 대륙, 사람, 빙하, 숲, 강, 동물, 새, 자동차, 건물, 사막 등 셀 수 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복합적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바다와 대륙으로 생각하고 끝나거나 원형의 지구 사진 한 장을 떠올릴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몸부터 입체적으로 느끼는 '이완 명상'을 하는 것이다. 상상 속에서 자신을 보고 느끼는 훈련을 통해 부처님 손바닥과 같이 넓고 높은 의식 단계에 올라가게 된다.

호흡과 오감을 이용한 의념 명상을 하면, 현실 속에서 마음에 쌓인 감정과 욕구 불만 등의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의식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 점차 의식이 확장되면 과거에 그토록 힘들어하던 문제들이 별일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의념 명상을 꾸준히 하면 점차 의식의 힘이 강화되어 평소에는 생각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조금씩 실천하게 된다.

기억을 떠올릴 때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타인에게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상을 할 때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상상하면 집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백두산 폭포수 명상법'을 따라 상상할 때는 폭포수가 머리와 피부에 '싸~' 하고 방울방울 떨어지면 시원함을 느끼고 개운해지는 등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오감을 이용하여 상상을 구체화할수록 잡념 없이 해당 명상법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하나의 감각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세 개의 감각을 동시에 사용할 때 잡념 없이 깊이 집중하고 몰입하게 된다. 이는 시청각 교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래에 영어 교육에서도 이미지를 이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미지로 시각화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면 글자로 상상해 보는 방법도 있다. 특히 화두 명상을 할 때 이미지화해서 하면 좀 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의념 명상은 오감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많은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감각 기능이 계발된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마음 다이어트〉(책나무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관음수련법

1 관음법은 기원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수련하고 정진하면 인간의 몸 통로가 열려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첨단 음파공학 진리이며,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초첨단 의학적 진리입니다.

2 관음수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통증, 신병, 변비, 소화불량, 빈혈 및 다이어트.20대 몸매, 피부미용효과, 목소리 교정 및 트임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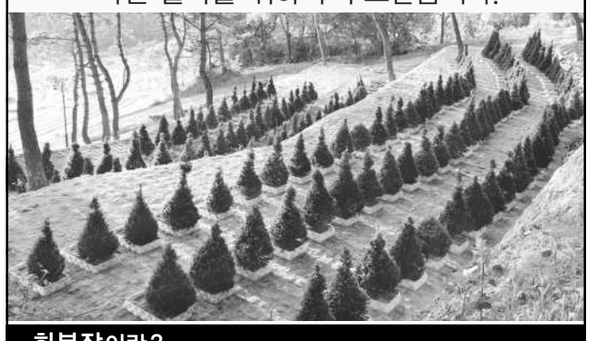
3 관음수련의 종교적 성취
(1) 좌측(뇌) 통로가 열리면 – 지혜의 문이 열려 (문수보살)
(2) 우측(뇌) 통로가 열리면 – 보리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
(3) 중앙(뇌) 통로가 열리면 – 행동하는 힘이 생겨 (보현보살)
(4) 사지 통로가 열리면 –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약사여래)
(5) 오관이 모두 열리면 육신통을 성취하며 이마에 제3의 눈이 열립니다.

4 관음수련의 일반적 성취
(1) 초인적인 운동선수, 골프 등등
(2) 시인 및 학문적 재능
(3) 가수 및 예술적 재능
(4) 팔정도의 사고와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 올바르고 바른 인격수양
(5)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건강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음.

5 관음수련은 불자가 되기 위한 수련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 –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03-9번지
전화 031)572-6118 제석천 만덕사 관음 합장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청화 스님 ㊤

세상을 향한 포용의 생명력을 보았다

개인 초대전시회에 메모가 남겨있었다. 전화를 드렸다. 미술 평론가 손철주 선생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며 상의할 게 있다했다. 나는 소개한 이를 신뢰하고 있기에 약속을 했고 다음날 만났다. 김 회장은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다. 이야기 내내 진지함과 절실함이 있었다.

요점은 "곡성에 있는 극락암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화 스님 초상을 모시고 싶다. 이 두 분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진영을 그려주면 고맙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두 분과의 관계를 물었고 특히 노 대통령 진영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의 부탁으로 초상화를 그린 인연이 있기에 흔쾌히 수용했다. 그 만큼 대상 인물에 대한 연구나 기초 자료가 선행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청화 스님에 대해서는 스님의 흔적을 더듬으며 공부 할 시간이 필요하다 했다.

나는 청화 스님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먼 거리에서 조차 만나 뵙지 못했다. 다만 스님으로서 법에 따라

스님에게 계율은 생명이었다
아니 생명보다 우선했다
스님의 자세는 종교처럼 신성했다

계율을 철저히 지켰던 분이고 염불선을 주장한 이름 있는 수행자로서 기억한다. 스님의 눈빛은 푸르고 깊다는 세상의 소문과 어떤 스님보다 따뜻하고 겸손하였으며 다른 스님과 빛이 달라 감동 받았다는 증언 정도가 전부였다.

김 회장을 만난 지 며칠 후 청화 스님의 상좌이신 극락암 성본 스님이 찾아 오셨다.

나는 그림을 그릴 화가의 입장에서 표현 대상인 청화 스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쭈었다.

스님에게 청화 스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는지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도 했지만 매몰차게 혼내며 훈육하셨던 분이시지요. 인연법에 따라 살고 있기에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스님 임종 시 아무 대안도 없이 돌아 가셔서 무엇보다 안타깝습니다. 그 점이 제일 서운합니다."

스님은 청화 스님과 생활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이 있는지요?

"나는 스님을 40년 시봉했습니다. 30년은 직접 모셨고 10년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님께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님에 대한 인상과 기억은 이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항상 참선 수행을 했고 시간을 내어 책을 보는 등 단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행자로서 철두철미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님, 40년간 앉아 수행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눕거나 앉거나 하는 것이 청화 스님 정도의 경지에 오른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님이 그토록 주장한 염불선이 무엇인가요? 선방 수좌들은 염불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염불선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등등의 의문에 대해 가식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본 스님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해 주셨다. 스승이신 청화 스님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주름까지 가감 없이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받았다.

그해 겨울, 청화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위해 곡성군 옥과면에 갔다. 성륜사는 은일하여 살기를 청한 자의 집처럼 아담했다. 절집의 구성이라기보다 물러나 독서하는 선비의 공간처럼 보였다. 스님의 안내를 받아 청화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방이며 사리탑등을 둘러보았다.

성륜사 주지스님께 청화 스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의 사진을 부탁했다. 그러나 스님을 그리기 위한 기초 사진 자료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청화 스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스님을 기리는 가치에 대한 배려가 아쉬웠다.

저녁에 성본 스님께서 계시는 극락암으로 돌아왔다. 극락암은 불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절이었고 기본적인 생활 설비조차 갖추어 있지 않을 정도로 가난했다. 그러나 절을 지키는 스님만은 인정이 넘쳤고 따뜻했다. 지혜로웠고 세상의 이치에 밝았다.

극락암에서 단둘이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어린 시절에 은사스님을 만나서 같이 살림을 한 분이어서 그런지 목소리는 힘찼고 거칠 것이 없었다. 이때 나누었던 스님에 대한 삶의 조각들은 스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

이런 시간을 지낸 후 청화 스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다. 스님에게 계율은 생명이었다. 아니 생명보다 우선했다. 스님의 자세는 종교처럼 신성했다. 이런 자세는 원고를 쓸 때에도 엄정하고 정중하며 지극했다.

스님께서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님의 서고엔 책이 없다. 보았던 책은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스님의 서고를 지킨 책은 사전류가 대부분이다.

음식은 특별히 즐겨하지 않았다. 쌀가루 2되로 3달을 살아간다. 이런 식습관 때문에 몸은 야위었다.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정신은 자유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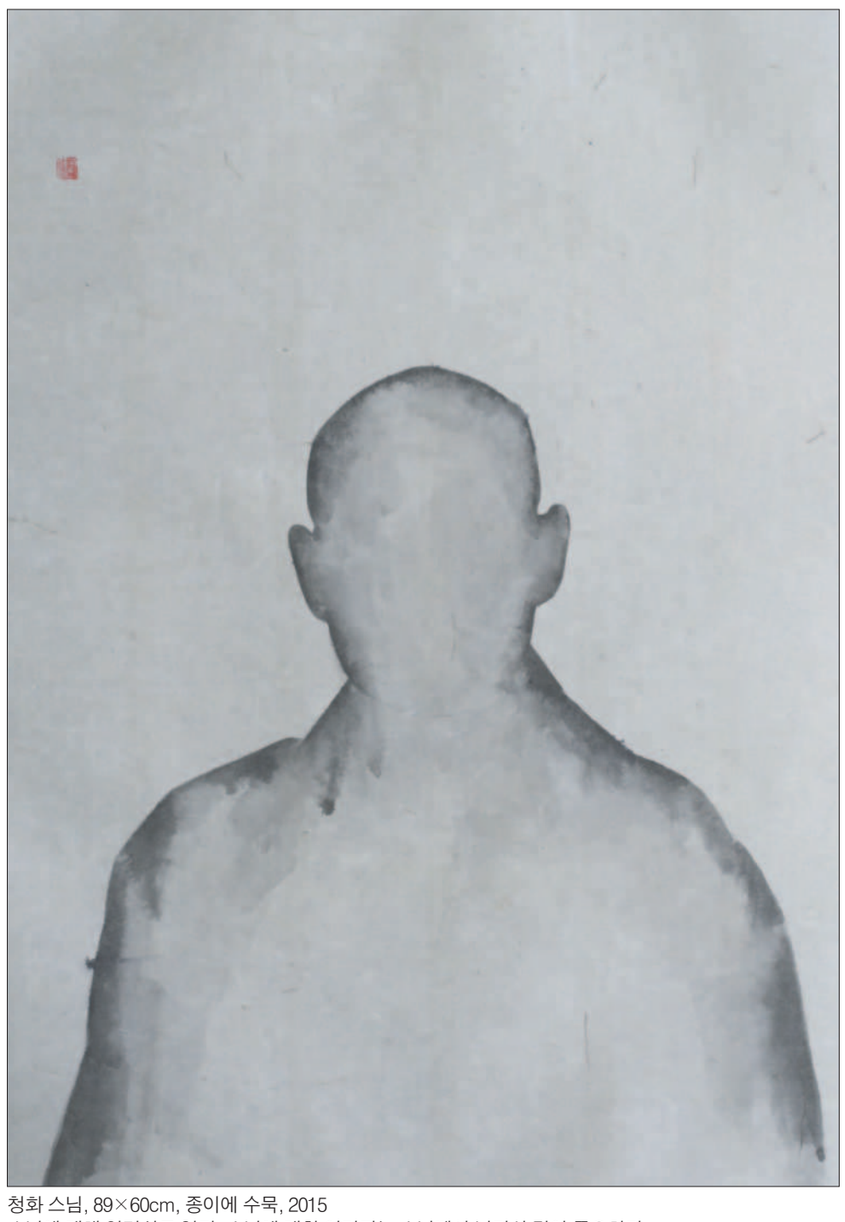
나는 스님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왜 보살들이 스님을 존경하며 따랐는지 궁금해 졌다. 성본 스님은 청화 스님의 인자함과 따뜻함 그리고 겸손함 때문이라 말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청화 스님은 어쩌면 뛰어난 인생의 고뇌를 상담해 주었던 분일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생의 아픔은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생긴 고뇌이다. 상담가는 자기 입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어떤 문제를 바라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옳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이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다.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 생각 밖에 못한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다. 이처럼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고 타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모두 옳은 측면도 있지만 모두 틀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상담가이고 깨달은 자다. 나는 청화 스님을 생각할 때 이런 깨달은 자의 깨끗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래서 수행의 지향점이 중요하다. 세상을 아는 분의 눈빛은 다르다. 나는 스님의 눈에서 세상을 향한 포용의 생명력을 보았다.



청화 스님, 89×60cm, 종이에 수묵, 2015
스님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 스님에 대한 이미지는 스님께서 남기신 말이 중요하다.
나는 이를 통해 스님의 영상이 벽을 뚫고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본질과 바탕, 실체와 허구, 앞과 뒤 이런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내려놓다, 60×88cm, 종이에 수묵, 2015
바가지, 쌀, 깨어짐, 실로 꿰맴, 참과 빔. 스님은 쌀 두되로 일 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속박의 자유와 청빈의 풍요를 누리셨다.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불자 세상보기

세월호 500일, 변함 없는 안전불감증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독일의 율리히 벡은 자신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현대사회가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으나 동시에 각종 위험도 증대시켰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 징표로서 다양한 보험이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도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율리히 벡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같은 독일의 볼프강 조프스키는 〈안전의 원칙〉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를 불안과 공포의 시대로 규정하고, 안전이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핵심가치요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 안전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일, 시간, 심지어 사람은 없다. 우리 인류의 생활 자체가 끊임없는 상해와 죽음의 원천이고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재난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넘는 위험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한계에 대응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8월 28일은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히 드러낸 세월호 참사의 500일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고 결론내리고 정부에서는 '국가대개조' 까지 외치며 대대적인 안전개혁을 벌였지만 인재불안에 떠는 국민은 세월호 이전보다 오히려 세 배나 증가하였다.

비단 국민인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실제 세월호 이후에도 환풍구가 무너지고 한 달에도 두 번 꼴로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의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기사가 지하철 열차와 그 사이에 끼여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관리감독 또한 없었다고 한다. 사회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사회안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나 범죄보다도 '인재' 가 가장 불안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우리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개인, 정부, 기업 등에 총체적으로 팽배해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안전불감증은 왜 깊이 자리 잡고 사라질 줄 모르고 있는가? 아마도 개발주도형 경제정책이 강조되고 그 만큼 효율성이 중요시 되던 조직문화에 기인한 바 클 것이다. 더불어 요행을 바라거나 마치 자동차보험을 불필요한 추가적 비용쯤으로 보는 안전의식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매슬로우(Maslow)도 인간욕구의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안전의 욕구를 들고 있어 안전의 중요성을 직시하였지만 사실은 안전이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최상위 또는 모든 욕구의 전제욕구가 되어야 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은 다른 상위욕구들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더 안전해지는 것이 곧 국가의 사명이고 목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팽배한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의식이 바뀌어 안전제일이 생활 속에 정착되는 '안전문화(Safety Culture)' 가 우리 개인, 조직, 기업, 정부에 뿌리 내려야 한다.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처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의식을 전환을 기반으로 영국처럼 기업살인죄까지 도입하여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제품의 생산을 도모하는 안전에 관한 법규나 제도가 정비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의식, 인프라, 제도를 3대 축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곧 안전불감증을 치유하고 볼프강 조프스키가 주장하는 '안전의 원칙' 이 국가와 사회의 핵심가치가 되는 지름길이다.

발언대

경제논리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경제논리를 앞장세운 개발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는 핵연료 사용을 비롯해 케이블카 사업까지 물밀듯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련 불교계 단체들을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의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원전 확대, 인류 생명 빼앗는 행위



장명 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20세기 들어서 우리 인류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해왔다. 이 우라늄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사용되었으나, 주변의 모든 인간과 생명체를 말살하는 잔인성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우라늄은 이후 '핵의 평화적 이용' 이라는 명분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사용이건, 평화적으로 사용되건 간에 일단 우라늄이 핵반응을 일으킨 후에는 수 백 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방사성 물질은 엄청난 에너지와 지속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게 됐다.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뿐만이 아니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원자력발전소의 핵사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겼고, 오염지역에서의 방사능 위험은 앞으로도 수백 년 간 지속될 것이다.

핵폭탄과 핵사고의 위험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위험은 핵발전소가 평소에 주변에 내뿜는 방사성 물질들이다. 핵발전소는 소위 "평화적" 상황에서도 주변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킴으로써 암과 유전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수많은 역학조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핵발전소는 이러한 위험성과 반생명성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비경제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피되어 왔다. 유럽에서는 지난 30년간 약 50개 이상의 원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발전과 화력발전이라는 구시대적 방식을 추구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외면하고, 핵발전소의 개수를 현재의 24개에서 앞으로 약 40개로 증가시킬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세계 꼴찌 수준이면서도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이제라도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설악산 파괴를 정부가 앞장서다니"



법응 스님
불교사회 정책연구소

8월 28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안을 찬성12, 반대4, 기권1의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다.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안에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국립공원 제도가 시작된 지 올해로 48년이다. 그동안 국립공원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공원개발 요구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요구와 크고 작은 생채기속에서도 지난 48년 간 우리의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서의 명맥과 빛을 잃지 않아 온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책임졌던 지난 소임자들의 양식과 윤리가 뒷받침 되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소임자들(국립공원위원회)이 집요한 개발요구를 받아들일 줄 몰라서, 조건을 달 줄 몰라서, 혹은 개발할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예산을 지원받을 줄 몰라서 매번 케이블카 사업안을 부결시켰던 게 결코 아니다.

국립공원은 강원도의 것도, 양양군의 것도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인 기간 동안 국정을 위임 받은 위정자들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인 것은 그것이 온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민만이 아닌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토환경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이자 영산 설악이기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아울러, 영산 설악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각 불교단체에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일에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란다.

社說

주지 자리 貪心 언제 끝나려나

8월 31일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는 '목불인견(目不忍見)' 의 상황이 벌어졌다. 용주사 최대 문중인 전강문도회가 예고한 임시총회를 막기 위해 용주사는 산중 진입을 막았다. 일주문에는 경내 공사로 하루동안 사찰 출입이 안된다는 현수막도 붙였다.

결국 전강문도회 임시총회는 보류됐고, 문도회장인 정호 스님은 용주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현장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용주사 중진 비상대책위원회가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기물 파손과 용주사 측 스님 한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주문 앞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한데 엉켜서 벌인 몸싸움은 세속의 정치판에서 볼 수 있는 이전투구의 현장이었다.

이미 용주사는 현 주지 선거에서 한 차례 잡음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용주사의 가장 어른인 송담 스님이 탈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지면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 주지 스님의 신상 논란이 인구에 회자되는 상황이다.

조계종은 교구본사 주지 선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반목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2~3년 간 교구 본사 주지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왔다. 가깝게는 총림 방장과 주지 선출 과정에 물의를 빚은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해 팔공총림 동화사, 고불총림 백양사, 직영사찰 봉은사 등이 주지 자리를 놓고 서로 반목했다.

이런 모습에 가장 상처를 입는 것은 불자들이다. 지난 8월 대중공사에 모둠 토론에 참석한 한 재가불자는 이렇게 말했다. "승가 사이에서도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가자들은 '승가 내부의 자정 능력이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 승가의 신뢰 회복이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의 첫 걸음이다."

'중 벼슬은 닭 벼슬보다 못하다' 라는 옛말의 미덕은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세속의 정치꾼이나 할 법한 일들을 태연자약하게 한다. 모든 갈등과 고통은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된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볼 때이다.

조계종 성보박물관協 발족 환영한다

진관사 경내지에서 출토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던 진관사 성보 280여점이 돌아왔다. 문화재청이 사찰 소유임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문화재청의 판정은 역사성을 이어온 사찰 토지 출토 유물의 소유관이 해당 사찰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국가귀속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석탑과 불상들이 바로 그 것이다. 문화재 당국은 유물들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혹은 관리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국가귀속을 결정해왔다. 과거 월정사와 회암사의 경우 소유권이 해당 사찰에 있다는 판결을 받으며 그 방향을 바꾸었다.

지난 2월 매장문화재 제도 개편은 이러한 흐름의 신호탄이었다. 향후 불교계는 문화재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이런 과제 속에 8월 31일 출범한 성보박물관협회의 활동은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종단 내 성보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보박물관협회의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사업은 그동안 박물관 내에 잠들어 있던 성보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뤄질 계기로 기대를 모은다. 또 성보박물관 직원 교육 또한 불교계 문화재 관리 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옛 선조들의 흔적이다. 이를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과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50818-중-75846호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10th

10th Anniversary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개원 10주년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0월 착공하여 2005년 9월 개원, 그리고 2015년 개원 10주년까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의술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함께한 10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은 생로병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세계 속에 의학동국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일 시 2015. 9. 15.(화) 오후 4시 30분
장 소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5층 대강당

103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대표전화(진료예약)** TEL 1577-7000 ● www.dumc.or.kr/is

“항상 웃는 천진불 세상 만들고파”…

이완국 (제주 우리절 지도법사 · 前 제주 더럭분교 교사)



이완국 前 교사는 … 지난 1988년 5월 경기도 양수초등학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서귀중앙초등학교 근무 때는 남제주군서 열리는 소년체전 식전행사서 풍물놀이를 지도했고, 1997년 전국체전 식전행사에서는 ‘혼저옵서’를 주제로 마스게임을 기획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2003년 특기적성교육 발표회에서는 제주도 초등학교를 대표해 지도사례를 발표했고, 2005년 경기도 고양시서 열린 전국 교육혁신인적자원박람회와 2007년 부산서 열린 전국 방과후페스티벌 행사에 어린이들을 지도해 제주 대표로 승무북가락을 연주해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12년에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광고모델로 뽑혀 각종 방송을 타며 유명 인사가 됐다. 2013년 5월에는 ‘제 2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월말 애월초등학교서 명예퇴직 후 현재는 우리절 지도법사로 어린이 포교에 매진중이다.

“우당탕” 복도서 아이들이 뛴다. “얘들아 조심해야지” 오히려 뛰는 아이들 걱정에 노심초사다. 보통의 경우엔 학교 복도서 뛰는 아이들의 예의없는 행동을 먼저 나무라기 십상이지만 이완국 교사(52)는 좀 달랐다. “아이들 눈망울을 보세요. 모두가 천진불로 보이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인데 어찌 조금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 있을까요?”

이 교사의 아이들 사랑 철학은 한결하다.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 교육현실,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매까지 맞는 슬픈 상황, ‘존경받는 선생’이 아닌 ‘직업인’으로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교육 현장의 뉴스들 등등.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명감으로 교사의 길에 나섰지만 일선 교사들은 이런 슬픈 뉴스를 보면 어깨가 축 처진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런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도 묵묵히 교사를 천직으로 어릴 적 꿈을 당당히 펼친이가 바로 이완국 前 애월읍 하가리 더럭분교 교사다. 올해 8월 24일자로 애월초등학교 교사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했으니, 엄밀히 따지면 前 교사라 부르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이 前 교사는 좀 특별나다. 남들은 도회지로 가고 싶어 안달이지만 이 前 교사는 시골 분교를 고집했다. 그러니 승진 가산점도 없는 더럭분교서 9년씩이나 교편을 잡았다. 아이들과 학부모들 요청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꿈꾸는 교육 철학을 펼치기 위해 질퍽한 사람 냄새 풍기는 시골이 좋아서였다.

이 前 교사가 이렇게 시골학교 매력에 푹 빠진 것은 지난 2000년 발령 받은 농촌의 신창초교서다. 이후 도심지 학교로 갔지만 농촌학교만이 느낄 수 있었던 넉넉한 인심을 도심의 학교는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갈증 스러웠다. 그래서 이 前 교사는 더 작은 학교 분교를 찾아 나섰고, 그동안 눈여겨봤던 더럭분교를 점찍어 지난 2005년에 신청했다. 한 학교가 근무가 최대 4년뿐이어서 지난 2009년 다른 학교로 발령 났지만 1년 만에 다시 더럭분교로 재 발령을 받았다.

더럭분교가 제주서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로 거듭난 것은 남모르게 묵묵히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갖고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몰두한 이 前 교사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신뢰가 금강석 같았기 때문이다. 이 前 교사의 교육열정 덕에 폐교위기까지 갔던 학교가 오히려 도심과 더럭분교 주변마을서 학생들이 몰려드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이 前 교사가 1년만 더 더럭분교에 근무하게 해 달라고.

이 교사의 이런 열정 덕분에 더럭분교는 전국구 스타학교로 급부상했다. 마을에선 더럭분교 폐교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활발히 펼쳤고,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학생수는 18여 명에서 80여 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더럭분교가 있는 하가리 농촌에는 현재 빈집이 없을 정도다. 이런 교육 성공 사례가 매스컴에 알려졌고, 급기야 지난 2012년에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광고모델로 뽑혀 각종 방송을 타며 연예인급 유명인사가 됐다.

“불교가 가르치는 실천은 한 마디로 말해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생활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진실한 바라문이 될 수 있는 도를 우리 중생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자연속에서 진솔하게 교감을 나누며, 진실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초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철저한 교육 철학을 갖고 그동안 이 前 교사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남다른 실험교육을 시도했다. 더럭분교와 아이들이 좋아 도심의 집도 놔두고 학교 인근에 토굴을 지어 생활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7시가 되면 출근 한 후 이 前 교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학교에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학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은 “애들아, 선생님 학교 왔다”라는 일종의 신호인 셈이다. 아이들이 마술에 걸린 듯 이른 아침부터 학교 문을 열어 제친다.

“요즘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했죠. 놀러라도 오고싶은 학교로 만들자고요. 또한 왕따와 괴로움 없는 학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항상 꿈꿨죠.”

그래서인지 이 교사의 교실은 뭔가 달랐다. ‘촌구석’인 더럭초등학교 교실에는 경시대회 작품들을 붙여놓는 등 눈요기감으로 가득찬 교실과 달리 뒤편에

교실에 茶室 마련해 아이들과 차담
민속, 음악, 예술 매개체로 어린이 포교
봉축법요식, 도내 불교행사 등 단골 초청

폐교 위기서 인기학교로 탈바꿈 일등공신
대불련 회장때 만난 불교… 교육철학 원천
2013년 5월 제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사재를 털어 차를 마실 수 있는 차방(茶房)을 만들었다. 교실서 다도를 할 수 있게 꾸며 놓은 것이다. 차를 통해 교사와 아이들, 또는 동급생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서로를 교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뿐 아니라 근무하면서 틈틈이 모은 옛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생활용품을 복도와 교실에 전시해 학교를 작은 박물관처럼 꾸몄다.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만들어 놓았더니 아이들이 학교와 이 前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 모든 이 前교사의 교육 철학의 근간은 바로 불교에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은 불교의 가르침은 제주교육대학 시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초심자였던 그에게 환희심을 솟구치게 했던 것은 대불련 시절 도반의 부탁으로 지난 2007년 애월읍 광령리 우리절 동연어린이 특별법회 때 사물놀이를 가르치면서부터다. 그때 우리절 주지 인성 스님의 어린이 포교에 큰 감명을 받고 동연어린이회 지도교사로 본격 나섰다.

이 前 교사는 “주지 스님은 지도교사들이 실수라도 하면 매섭게 야단을 쳤죠. 저는 그럴때마다 속으로 ‘지도교사들이 그만 두면 어떡하지’하고 고민 했는데 이는 기우였어요. 어릴 적부터 어린이법회 지도 교사들은 이미 스님과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터라 왠만한 나무람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한 곳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도반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연들을 목격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前 교사는 “스님은 지도교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실 정도로 엄격하셨어요. 스님 말씀이 내가 지도교사에게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과 동일 시 된다며 스님과 지도교사는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관계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어린이들을 위한 법회는 지도교사들의 수행이자 자신의 신행이라는 소명을 갖고 임하라는 경책이셨지요. 우리절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통해 저는 25년 교직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前 교사는 우리절 어린이법회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몰록 빠져들었다.

“일반학교 행사의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일이라서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인성 스님은 법회때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린이불교학교를 열면 ‘아이들이 뭘 배우고 갈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라는 화두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이불교학교 준비는 두 달 전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회의서 주제가 나오지 않으면 밤새토론은 기본이었죠. 어린이 불교학교에 앞서 교사들 간 10번 정도 회의를 거치는데 지도교사가 전원 참석해야 진행할 정도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직장인들이라 새벽 예불을 마치고 회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조 하나 짜더라도 아이들의 성격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하죠.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죠. 애정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모두가 힘을 합해 진력합니다.”

이처럼 이 前 교사는 인성 스님을 통해 아이들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 前 교사도 ‘매년 하는 운동회일지라도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갈까’ 고민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어린이법회 때 스님에게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다.

이 前 교사는 “좌복에 앉을 때 ‘내 무릎이 옆 사람과 부딪치면 살짝 오므리는 게 배려다’라는 인성 스님의 말씀서 일상 생활서 내가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큰 배려임을 깨달았다”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신발을 바로 놓아주는 것 등을 학교서 아이들에게 말하자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신발을 꼭 돌려놓는다”며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보람을 피력했다.

더럭분교 전교생은 매주 월요일 1교시에 모여 차를 마시며 좋은 이야기와 함께 명상을 한다. 더럭분교는 아이들의 승무북 공연을 통해 얻은 ‘사례금’을 모아 차방에 좌복도 만들었다. 불전함에 올릴 단돈 천원도 다림질한 깨끗한 돈을 올리는데서 부터 기도가 시작되듯 아이들을 위한 물건은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前 교사의 신조였다. 그래서 좌복도 국내산 최고의 목화솜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前 교사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존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의장등록

사업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돼,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개업선물, 사업성공의 선물로 품격

▶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문의 : (02)723-4533
▶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사찰 · 스님 20% 할인)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얻고 평생부자로 살게!!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에나멜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별도로 옴자로 된 교통카드 꽂이도 있다.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23-4533
(사찰 · 스님 20% 할인)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www.kapilla.co.kr ※ 공휴일 접수 가능



앞면 뒷면 의장등록

호신불규격직경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용 호신불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 · 스님 20% 할인)
문의 : (02)723-4533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불교문화로 어린이 포교


2015년 제주 봉축법요식 당시 이완국 前교사가 지도한 어린이법회 아이들이 활기차게 승무북을 시연하고 있다.


우리절서 레크래이션을 지도하고 있는 이완국 前교사


이완국 前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있다.


더럭분교 교실뒤편에 이 前교사가 마련한 다실서의 차담 장면

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좌복으로 만들었다"며 "좌복을 함부로 한다면 너희 가치도 그만큼 잃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자 아이들 스스로가 좌복에 똑바로 앉지 않는 아이가 없었다.

이 前 교사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지마, 하지마' 라고 통제하기 앞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먼저 살피며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복도서 뛰어다닌다면 " '야, 왜 뛰어다녀?' 라고 나무라기 보다는 '너, 잘 뛰는구나. 뛸 줄 아는 사람은 걸을 줄도 알지. 복도서 '걷기' 라는 것도 해봐. 기분이 어떤지. 다음에 걸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꼭 자랑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선택과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줬다. 효과는 컸다. 이 前 교사의 인내와 노력은 마침내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교육에 앞서 이 前 교사 스스로도 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매일 아침 108배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열겠다고 다짐한다. 하루를 일찍 시작한 날은 108참회문을 통해 참회와 감사, 발원으로 자신을 다독인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새벽 4시면 '우리절' 로 향한다. 간경법회가 있는 날이다. 지난 2007년 초발심자경문을 시작으로 금강경, 법화경 등의 경전을 독송해 왔고, 요즘은 아함경공부에 푹 빠져있다.

"자기 기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기도의 참 맛을 알 때 그 수승함을 알듯이 끊임없이 자신의 번뇌 먼지를 털어내는 일, 그것이 내 자신과의 약속이자 바로 아이들과의 약속이죠."

이 前 교사의 문화포교는 '멈출 수 없는 끼' 도 한 몫했다. 대부분 남자 교사들이 체육 담당을 맡는 것과 달리 이 前 교사는 '민속 · 음악 · 예술' 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며 제주도내 교육계에 자신을 각인시켰다. 이 前 교사는 특히 레크리에이션 지도와 웃음치료에 특기가 있어 외부강의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직장교육 등과 제주도내 초. 중. 고 학생 대상 마음수련활동, 축제 등에 초대돼 강사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기강사이기도 하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초임발령지인 양수초등학교서 풍물반을 조직해 학생들에게 풍물과 승무북을 가르치기도 했다. 1990년 서귀중앙초등학교 근무 때는 남제주군서 열리는 소년체전 식전행사에서 풍물놀이를 지도했고, 1997년 전국체전 식전행사에서는 '혼저옵서' 를 주제로 마스게임을 기획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2003년 특기적성교육 발표회에서는 제주도 초등학교를 대표해 지도사례를 발표했고, 2005년 경기도 고양시서 열린 전국 교육혁신인적자원박람회와 2007년 부산서 열린 전국 방과후페스티벌 행사에 어린이들을 지도해 제주 대표로 승무북가락을 연주해 이름을 알렸다.

이 前 교사가 떠난 현재의 더럭분교 어린이들은 아직도 전교생이 승무북 가락을 연주하며 전국 규모 행사에 초대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前 교사가 다져놓은 초석 덕택이다. 이 前 교사의 봉사와 문화 포교는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학교를 개방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 봉사에 헌신했고,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의 상담자로, 교육자로 활동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지역에 있는 생활개선회 풍물반을 대상으로 승무북가락을 지도해 지역주민에게도 다양한 무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웃음으로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 이란 이름으로 웃음치료교실도 꾸준히 열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우리절 동연 어린이회 사물놀이팀도 구성, 승무북을 제주연등축제 및 도내 불교행사 등에 선보이며 단골손님으로 초대돼 각광을 받고 있다.

그의 노력은 2013년 5월 '대한민국 스승상' 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 이완국 前 교사는 제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초등부문서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부의 으뜸교사상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한 상이다.

묵묵히 헌신한 교육자로 참다운 스승상 정립을 위한 이 상의 목적과 '딱' 맞아떨어졌다. 그는 상금으로 수여된 1천만원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대웅전 중창불사중이던 우리절에 보시했다.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 준 우리절에 대한 고마움의 답례였다고 털어놓는다.

이 前 교사는 애월초등학교서 지난 8월말 명예퇴직을 했다. 요즘 선망의 직업중 하나인 교사를 10년이나 정년을 남겨놓고 왜 박차고 나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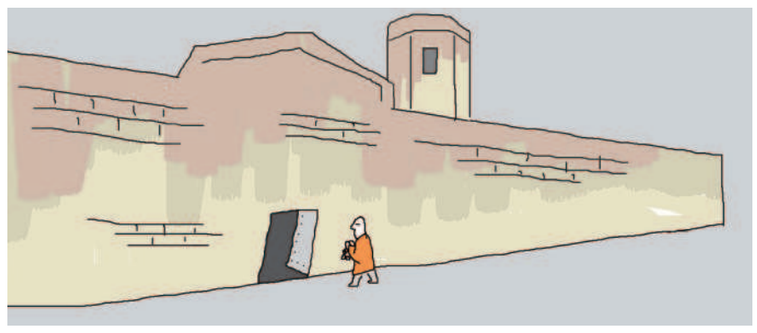
그는 말한다. "매스컴에 많이 알려지다보니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월 10회 이상이었지만 근무시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강사료 없이 재능나눔 봉사로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요. 그리고 그동안 내 마음의 모태가 된 더럭분교 옆에 누구든지 오면 편안히 마음을 쉬고 갈 수 있는 찻집을 만들고 싶은 오랜 꿈도 실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가장 큰 이유는 올해 90세가 넘으신 어머니를 곁에서 모시면서 착한 아들로 남고 싶은 마음컸구요. 제 능력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꽤 있었지만 저는 천성적으로 아이들과 뒤섞여 노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절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는 물론 방과후 교실 등 기회가 주어지면 어린이 포교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주일 기자 · 이병철 제주불교 신문기자

전법일기

교도소 담장 너머도 해탈의 기쁨이

교도소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어리고 철없던 20대 시절, 맨 처음 교도소를 가던 날이 생생하다. 교도관의 뒤꽁무니를 따라 두꺼운 철문을 지나서 긴 복도를 걸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던지. 그 날은 하도 떨려서 수감자들의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허둥지둥 법상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난다. 그 동안 세월 따라 교도소도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문을 지날 때마다 교도관이 무쇠로 만든 열쇠꾸러미를 한 다발씩 들고 하나하나 문을 열었는데, 요즘은 간단한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또 시설도 많이 쾌적해져서 과거에 비해 덜 삭막하고 지내기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문과 문을 지나 좁고 긴 통로를 지날 때면 여전히 낯설고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든다.


그림 · 박구원

각자 무슨 인생에 우여곡절을 있어 이곳까지 흘러들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매월 한 번씩 수감자들 앞에서 법문을 하려고 법상에 설 때마다 나는 그들의 말못할 사연이 오롯이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올해 초 개나리가 막 피던 봄날이었던 것 같다. 유독 기억에 남는 법회가 있었다. 그날은 법문 대신 아무 말 없이 "해탈의 기쁨"이라는 찬불가를 들려준 적이 있다. "한 생각 바로 돌려 얽힌 번뇌 끊고 보니/천상천하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 없고/평등한 성품 속엔 너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인 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 사바세계 가득하네."라는 노랫말이 강당에 울려 퍼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감자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노랫말을 마음으로 새기는 듯 보였다. 노래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 곡의 노래가 백 마디의 법문보다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깊은 침묵이 지난 뒤 나는 노랫말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는 평등한 성품을 가진 존재이며 비록 과거의 잘못으로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한 생각을 돌리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해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을까.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의 눈가가 벌겋게 붉어졌다. 아마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잠자고 있던 내면의 불성이 깨어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비록 여기에 갇혀 있지만 마음의 해탈을 얻으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바깥에 나가 몸이 자유롭다 해도 해탈을 얻지 못하면 여기보다 못한 감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생각을 일으켜 이곳에서 해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세요." 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날 법상에서 내려왔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종교위원의 자격으로 교도소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인생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대구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의정부까지 가는 멀고 긴 여정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높은 담장 너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교계에서 교도소 포교활동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고, 겉보기에 빛이 나는 일도 아니니 다른 일에 순서가 밀리기 일쑤다. 과거 지장보살님께서는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며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셨다. 비록 지장보살만큼 큰 원력을 실천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이 땅에서 부처님의 법이 가장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감옥에 갇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언젠가 부처가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덕신 스님(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世界佛教 法王廳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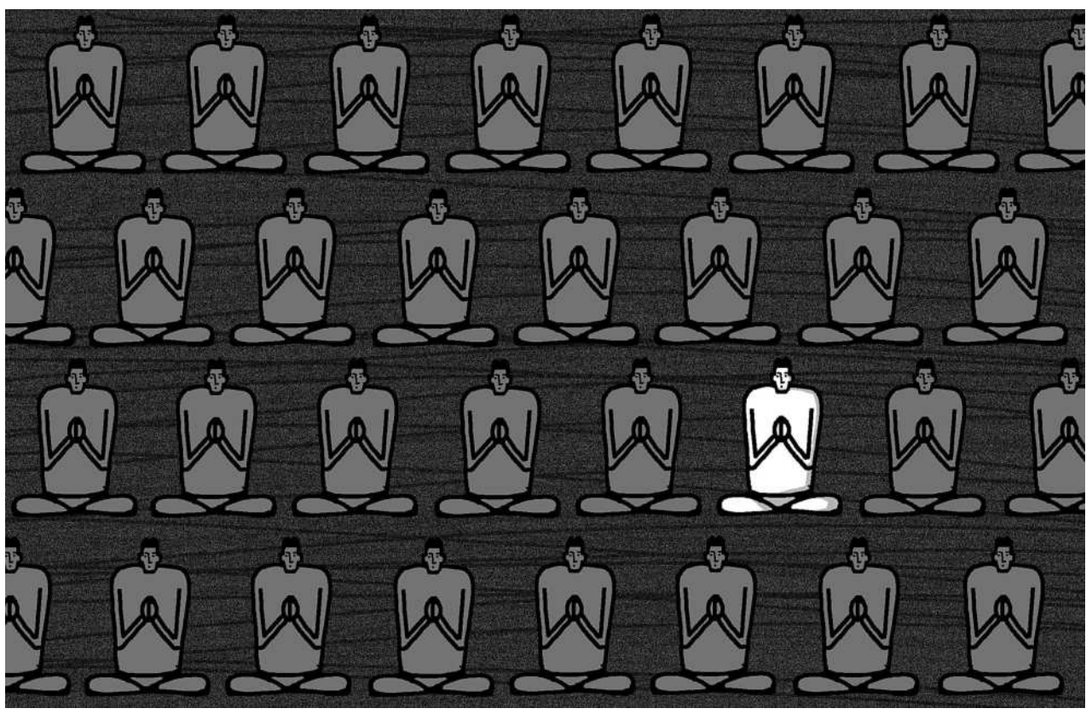
어떤 관법으로 공부를 이끌고 계신지요

질문 큰스님께서는 수없는 세월을 통해서 저희 불자들을 이끌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차원의 신도들이 있기에 그들의 근기에 따른 수행의 방법도 또한 천차만별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스님께서는 관법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법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 행주좌와 관법(行住坐臥觀法)으로…. 우리가 말입니다,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행주좌와 관법이냐 하면 자기의 관법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무효지.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하는데, 자기의 이 생산된 육체가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두를 잡아서 해도 돌아갔지만, 그게 먹혀들어 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겉돌아서요. 왜 겉도느냐? 세계를 안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죽거리는 모든 걸 안방에서 볼 수 있는데다가 핑핑핑핑 돌아가는 그 머리 때문입니다. 육체가 탄생한 것도 화두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도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관법을 또 받아 가지고 하니까 겉돌 수밖에요. 행주좌와 관법은 시대가 요하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시대에 순응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뒤를 쫓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란 거지. 불을 밝혀서 앞장서란 거지. 그렇기 때문에 행주좌와 관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쉬지 않고 지구가 돌아가는가 하면 우주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내 이 육체 속의 자생 중생들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육체가 쉬면서 돌아갑니까? 이거 보세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눈을 뜬 것도 뜬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것이 어느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랬으니 공했지. 내가 한 게 따로 없으니 물 한 컵을 마셔도 더불어 같이 마신 거기 때문에 공식(共食)이에요. 보세요.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봤을 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여래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래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으면 전체가 다 들려야만이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 수만 명이다 할지라도 깨달은 그 한마음 처에 같이하기 때문에 여래인 겁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잘 배워야지, 예를 들어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삐뚤게 앉아서 해도 괜찮지. 요다음에 배워서 잘하지.' 이럭하면 안 됩니다. 앉음앉음이 굳어져서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인간도 마음의 오계(五戒)에, 오계향(五戒香)에 첫째, 내 마음으로부터 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이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소가 언덕이 있어서 비비는 거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없고 소가 없다면 비벼지지도 않죠. 그와 같이 인간도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 놔라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관한다 하는 것은 쉴 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관하는 거지, 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관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든 일배를 올리든, 내가 부처님 앞에 한마음으로 넣고 일배를 올려도 올리고, 일어날 때는 한마음으로 나와 같이 하고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도 하나요 저리로 가도 하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이 진리를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스간에 몽땅 타고 앉아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잡아먹는 게 아닌지요

질문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간 세상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의 세상도 동물들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단지 잡아먹는 게 아닐까요?

답변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러면서 인간까지 등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짐승은, 내가 그것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벌써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래 가지곤 서로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꺼풀을 살짝 씌워 놨어요. 이 지금 인간으로 꺼풀을 살짝 씌워 놨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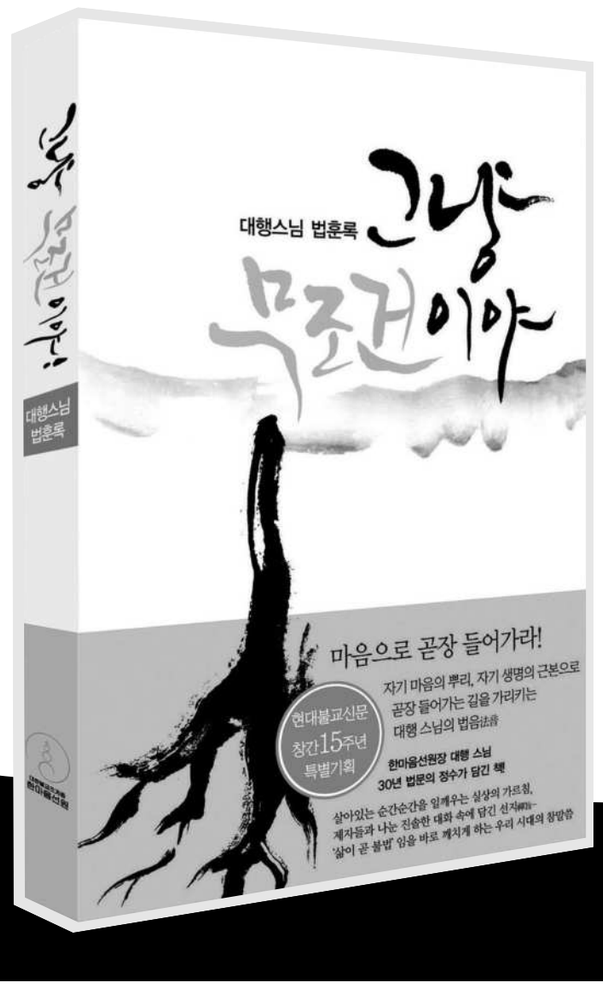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동물하고 똑같은데, 동물 마음이 지금 이 속에는 막 우글우글한데 사람으로 싹 씌워 놨거든요. 그래 놓고는 사람들끼리 서로 진짜 이렇게 잡아먹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잡아먹고 살아요. 마음으로는 잡아먹고 죽이고 살리고 쫓고 쫓기면서 살거든요. 이것도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 쫓고 쫓기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간 세상까지 벗어나야만 이 부처의 도리를 다 알 수 있고 또 그 중생들을 다 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중생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지금 꺼풀 씌워 놓은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벗어나야 그 중생들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중생들하고 같이 그냥 복닥거리면 항아리 속에서 항아리를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느냐? 그 항아리를 벗어나야 내 몸뚱이 항아리를 굴릴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천차만별의 그 마음들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그래 내가 벗어나야, 이걸 굴릴 수 있어야, 즉 말하자면 화신으로서, 전부 응신으로서 털구멍을 통해서 그냥 들고 나면서 모두 사람들을 건지는 게 보살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보살이라고 이름을 안 지어 줘도 보살행을 하면 됐지, 보살이라고 이름을 안 불러 준다고 그것도 생각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누가 보살이라고 생각을 안 해 주면 어떻고 불러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만 즐겁게 웃으면서 응신이 돼서 건져 주면 됐지. 내 아픔과 똑같은데. 울면 나도 우는데. 그런데 내가 울지 않고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길을 걷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그대로 생활이 실상이고 실상이 바로 참선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니 그렇게 굴지 말라 이겁니다. 네 몸뚱이를 동여매 놓고, 선방에다 꿇어앉혀 놓고 그래 가지곤 몸뚱이에 병이 들게 하고 그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는 것은 외려 중생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니까. 자기의 몸뚱이를 괴롭히고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를 모두가 알면 좋을 텐데, 모두 글쎄, 그냥 부처님 경전에 관념이, 착이 딱 붙어 가지고, "아이고, 경전의 부처님 말씀만이 제일이지." 이러지 말고 자기부터 봐라 이겁니다. 자기부터. 자기부터 봐야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래!

☞ 29면에서 계속

부처님 말씀도 훤하다 이겁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깨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 깨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분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밝아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계기로 해서 확 깨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아, 이런 예도 있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마는 경허 스님도 아주 대 강백으로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경전이라는 경전은 무불통지하고요. 그랬는데, 호열자가 돌아다니는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거를 알아도 어쩌지 못했단 얘기입니다. 하룻밤 자고 가자니까, 죽으니까 빨리 달아나라고 그러거든요. 이 집 가도 그러고 저 집 가도 그러고. 그러니까 인심이 고약한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열자가 돌아다녀서 사람이 전부 쓰러졌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살려고 그 고을을 벗어나서, 나무 밑에 앉아서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더라는 얘기죠. 세상에 자기도 죽을까 봐 뛰어나왔거니와 그 사람네들을 하나도 어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직껏 배우고 여직껏 강의한 게 무슨 소용 있느냐 이래서, 다시 돌아와서 강당을 그냥 문 닫아걸고서 다 해체를 시켰단 얘기죠. 그러고 자기 공부를 시작하고 책을 다 태웠다는 얘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선에는, 즉 말하자면 견성, 이거는 내면세계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견성을 해 가지고도 거기다 다시 뭉쳐 놓지 않는다면 미해진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미해지느냐. 흩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견성했다고 온통 자기라고 내세웠을 때 벌써 착이 붙고 욕심이 붙고 아만이 생기고, 삼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견성을 했어도. 그래서 다시 뭉쳐 놨을 때에 둘이 아닌 도리를 그때 홀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해야 그다음에 열반경지에 들어서서 자유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둘이 아니게 나툴 줄 알게끔 됐을 때에 비로소 그 원 하나 탁 놓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봉우라지 하나 탁 올려놓는, 그것이 돈오다 이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이름을 해서 돈오지 그걸 어떻게 돈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 경지에.

그러니 이 죽은 세상 즉,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접하는 때라 견성을 하고 나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대 의정이 생기고 그때에 시공이 초월된 것도 거기서 배우게 되고, 찰나찰나도 거기서 배우게 되고요, 둘이 아닌 도리 배울 때. 그러니까 나 하나의 마음이 수천수만으로, 입자로 인해서 분자가 돼 가지고 화신으로 화해 가지고 이 털구멍으로 들고 나면서 그냥 전부 응신이 돼 주는 그런 보살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모두가 보살 아닌 게 없고 또 나 아님이 없고, 이 도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 도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세상의 죽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영혼도 보이는 영혼도 또는 생각이 없는 영혼도 생각이 있는 영혼도 모두 그냥 다 건질 수 있는 아주 광대무변한 그런 도리. 부처라는 건 어느 게 부처인지 모르는…, 아니,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찰나찰나 아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한마음이 이 우주를 전체 덮고 전체 굴리고 전체 딛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갈라서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말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스님과 한자리를 할 수 있겠는지요

질문 저희들과 같은 중생의 차원에서도 스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만 공부하면 세 단계 없는 세 단계를 무난히 넘어서서 스님과 한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예. 실천을 지금 가르치는 건데 왜 안되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것을 말로만 해 놓고 만약에 그것이 한데 떨어진다면 이런 말을 안 한다고 아주 다짐하고 이 세상을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한테 한마디라도 거짓된 말을 해서, 안되는 말을 해서 여러분이 해를 본다면 나 또한 여러분과 같이 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망을 본 놈도 도둑놈이요, 가서 훔친 놈도 도둑놈이요, 가지고 가는 놈도 도둑놈이니까. 붙잡히게 되면 다 같이 붙잡히게 됩니다, 도둑놈으로. 그러니 내가 한마디 했을 때에 내가 어찌 그것을 한만히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된 말이 아니고 진실되게 우리가 살림하는 행이 아니라면…. 그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상의 실현과 실행이 되는데 어찌 그걸 거짓으로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익 하게 사시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저 어떠한 악이 들어오더라도,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누가 어디 붙잡혀 갔답니다. 나라의 제일 큰 데로. 허허허. 그랬는데 벌써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성을 한번 들여 놓고 여기다가 턱 맡겨 놓고는 있으니까 그게 그냥 스르르 풀려서,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문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믿습니까?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자라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모자라는 게 자라집니까? 죽으면, 이 몸뚱이가 없으면 부딪칠 게 없어서 공부도 못 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죠. 악한 거, 모든 걸 빼 버려라. 악하지 않더라도 경우를 따지지 마라.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런 거 따진다면 벌써 이 공부 하는 데는 팡입니다.

마음과 주인공의 차이

질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라고 말을 할 때 그 '마음' 과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참나' 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워낙 미묘한 표현인지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음을 말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 마음의 정체를 꼭 집어내듯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음이라는 것은 한 물체가 (물컵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 물체가 움죽거리는 거는 공(空)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주인(主人)은 마음이요, 마음을 내는 것은 공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이름이죠. 이렇게 그냥 섰을 뿐이고 (찻숟가락을 세워 들어 보이시며) 이게 돌아갔을 때는 (찻숟가락을 돌려 보이시며) 바로 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능력을 말하고, 그 능력을 배출함에 있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를 공이다 했으니, 마음과 공한 것이 어떻게 둘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라면 공은 바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과 돌아가는 것을 그냥 한데 합쳐서 '주인공(主人空)' 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 보지 마십시오.

불성과 무명에 대해서

질문 우리 인간에 대해 한편으로는 불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무명에 휩싸인 그런 인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잘 조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조화가 왜 안돼요? 요런 걸로 비유해 봅시다. 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죠? 왜 작은 나무라고 했고 왜 큰 나무라고 했을까요? 왜 고목이라고 했고. 왜 그런 단어가 나왔고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산은 높고 낮다고, 얕은 산이 있다고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바로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없다면 얕은 산이라는 그 언어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또 얕은 산이 없다면 높은 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넓게 따지고 본다면 '얕은 산도 얕은 산이 아니요 높은 산도 높은 산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생의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생명이 있는 거는 다 불성이 있는 법인데 어째서, 어째서 그것이 어우러지지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봐도요, 저 풀도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럽디다, 저게. 똑같이 잘라 놨는데도 먼저 쓱 나오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어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깐 우리가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는 얕다 높다, 동이다 서다, 여자다 남자다, 잘못한다 잘한다, 모른다 안다 이런 거를 몽땅 놓는 것이 바로 선맥을 이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 다 나한테서 나온 거니깐 바로 나한테서 해결하고 나한테서 잘된 거니까 나한테다 감사하고, 내가 갔으니까 남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 탓이고, 이렇게만 한 군데로 뭉쳐 놓는다면 이 세상을 다 가질 것도 없고, 또 그 한군데로 뭉쳐 놓는다면 나중에는 자기를 홀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는 '아이고, 알고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나 아님이 없구나. 아, 어저께 오늘이 따로 없고 하나가 따로 없고 만이 따로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부처님이 행하시는 중용처럼, 실상처럼 그냥 이걸로도 나투시고 저걸로도 나투시고 한 찰나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저 보살의 마음속에 한 찰나에 들었다 한 찰나에 그 좋은, 귀중한 설법을 하고 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삼천 년 전도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평등하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안된다고요? 그렇게는 생각지 마세요. 하다못해 기어가는 버러지도 생명이 있는 거는 다 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요, 만약에 옛날의 선조들, 선사들 같으면, 나라에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그런다면 이 꽃 이파리 한 이파리 한 이파리를 군사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보경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급하니까 마음을 내는 게 이보예요. 한 발 내려딛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민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다면 땅속에 있는 무기들도 전부 녹이 슬게 딱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법이고요 중단시키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다 내 부처님의 마음이 돼서 보살이 돼 가지고 다 그 마음으로 다듬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서 일을 만들어 놓고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너무 국민들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가 손발 들고 나가게 만드시고 그러는 거지, 누가 말을 하고 때리고 갖다 가두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을, 이렇게 광대무변한 법을 어째서 우리는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왜 외면을 합니까? 제일 중한, 자기 아픔을 거두어 주는 그 자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기 나가시다 엎드러져 보세요. 무르팍이 깨져 보세요. 벌써 거기 손 가는 건 남의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어이쿠!" 그러고선 "아파!" 하곤 그 손이, 바로 십대 제자가 거기 갑니다.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십대 제자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무명의 근원지가 어딘지요?" 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한마디를 하면 봇장이 울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깐 또 그런 질문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지수화풍이라는 그 소리를 부처님께서 왜 자꾸 하셨고 우리도 자꾸 하는지, 이게 지금 천체가 지수화풍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지수화풍이, 즉 말하자면 바람과 흙과 물이 한데 합쳐서 혼합이 되니까 온기가 생겼어요, 불이. 온기가 생겨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그 근원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으로 낳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몸속의, 너희가 역대에 거쳐서 진화돼서 올라온 그 자체의 근원지를 봐라.' 하고 인연에 따라선 그 근원지에, 미생물이나 모든 모습도 갖가지로 그 몸속에 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물주머니로 나오게 만들었죠? 어떻습니까? 지수화풍의 근원지라 이겁니다.

또 지수화풍의 근원지면 우리는 지수화풍의 근원지를 가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아요.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이 세계가 발달할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거니와 과학이라는 그 소리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끝 간 데 없는 진리가 될 수도 없거니와 풀 한 포기만 살아도 불교가 그대로 있다는 그 사실을 아마 모를 겁니다.

관한다 하는 것은 쉴 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관하는 거지, 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10-2094-2991-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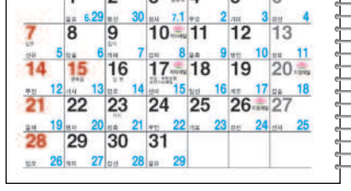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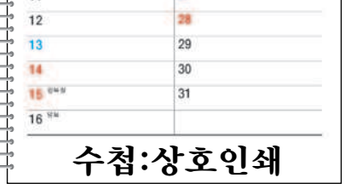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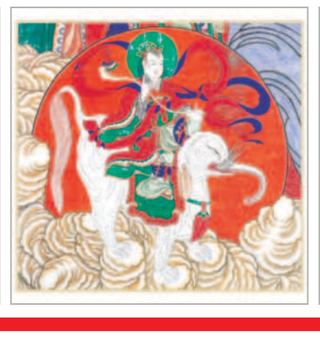














12절 : 상호인쇄

미니 : 상호인쇄

수첩 : 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삼천부 이상 @ 800원
• 1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원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원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